文學博士學位論文

原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照 硏究

—龍川 地域語와 和順 地域語를 중심으로—

2004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 專攻
鄭 仁 浩

한 영균 선생님께

필자 올림

原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照 研究

—龍川 地域語와 和順 地域語를 중심으로—

指導敎授　　李　秉　根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0月　日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鄭　仁　浩

鄭仁浩의 文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3年 12月　日

委員長 崔明玉 

副委員長 宋喆儀 

委　員 金鍾圭 

委　員 金周源 

委　員 李秉根 

<국문초록>

原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照 硏究

—龍川 地域語와 和順 地域語를 중심으로—

鄭仁浩

본고에서는 [원]용천어와 화순어를 대상으로 두 가지의 음운론적 대조를 진행한다. 즉 현대 두 지역어의 음운체계와 음운배열에 대한 공시론적 대조와 두 지역어의 음운변화 양상에 대한 통시론적 대조 작업을 병행하여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 본다.

제2장에서는 현대 두 지역어의 음운 구조에 대한 공시론적인 대조를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두 지역어는 모음의 목록([원]용천어-8모음, 화순어-9모음)과 대립 체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자음의 목록(19자음)은 두 지역어가 동일한데 '설단음'의 대립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반모음으로 2개(y, w)가 있으며 '음장'이 운소로서 기능한다는 점은 두 지역어가 완전히 동일하다.

한 음절을 구성하는 음소들의 제약은 두 지역어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데 한 음절 내의 음소연쇄에서, ① '반모음-모음'의 연쇄(상승 이중모음), ② '전설음-y'의 연쇄, ③ '설면음-으'의 연쇄, ④ 'ㄴ-이'의 연쇄 등은 그 제약에서 있어서 차이를 드러낸다. 음절연결에서의 음소연쇄 제약도 두 지역어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제2유형에서 개재자음이 'ㆁ'일 때와 제3유형에서 '장애음' 뒤에 'ㅎ'이 놓일 때에는 그 제약에 있어서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공시음운론적 대조 결과와 내적 증거에 의해,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음운 구조를 설정하고 이로부터의 음소 변화 양상을 '계열상의 변화'와 '통합상의 변화'로 나누어 대조한다.

제3장은 모음 변화에 대한 통시론적 대조 연구이다. 두 지역어의 공시음운론적 대조와 내적 증거에 의해 설정할 수 있는 最古 단계의 공통적인 모음체계는 아래와 같다. 이로부터 두 지역어는 때로는 동일하고 때로는 상이한 '계열상의 변화'를 경험하여 현대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ㅂ	ㄷ	ㄱ	
			ㅍ	ㅌ	ㅋ	
이	으	우	ㅃ	ㄸ	ㄲ	
				ㅅ		ㅎ
	어			ㅆ		ㆅ
			ㅸ	ㅿ	ㅇ	
	ᄋᆞ	오		ㅈ		
				ㅊ		
	아			ㅉ		
			ㅁ	ㄴ	ㆁ	
				ㄹ		

<본고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最古 단계의 모음체계와 자음체계>

<동일한 '계열상의 변화'>

① 'ᄋᆞ'가 비음운화한다.

② 이중모음 '애[ai], 에[əi], 외[ɔi]'가 음운화(ai>ɛ, əi>e, ɔi>œ)한다.

<상이한 '계열상의 변화'>

① ㊕용천어에서 '외'가 비음운화(œ>wɛ)하고 화순어에서 '위'가 음운화(ui>wi>ü)한다.

② 화순어에서 '오, 외'는 재음운화(ɔ>o, œ>ö)한다.

③ 화순어에서 '에'가 비음운화(e>i)한다.

모음에 있어서 '통합상의 변화'는 체계와 비교적 관련이 적은 변화(모음충돌의 변화)와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으>이'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고모음화)로 나눌 수 있다. 두 지역어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변화에 있어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움라우트,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등에 있어서 두 지역어의 차이는 전설원순모음의 유무에 기인한 바 크다. 그리고 '으>이' 전설모음화에 있어서의 차이는 'ㅅ, ㅈ' 설면음화 시기와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은 자음 변화에 대한 통시론적 대조 연구이다. 본고에서 설정할 수 있는 最古 단계의 공통적인 자음체계는 위와 같다.

<동일한 '계열상의 변화'>

① 유성마찰음이 비음운화한다.

② 'ㆅ'이 비음운화한다.

③ 'ㅅ, ㅈ'이 재음운화한 것은 동일하나 그 시기와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상이한 '계열상의 변화'>

① [원]용천어에서 'ㄷ, ㄴ'이 재음운화한다.

자음에 있어서 '통합상의 변화'는 체계와 관련이 적은 변화(모음간 자음의 변화, 자음연쇄의 변화)와 체계와 밀접한 관련(설면음화, 어두 'ㄴ'의 변화)이 있는 변화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두 지역어의 변화 양상이 거의 동일한데 다만 몇 가지 변화(모음간 'ㆁ'의 변화, 'C#yV'에서의 음절경계 변화, 'C#h'에서의 'ㅎ'탈락)에서 차이를 보인다. 후자의 경우 두 지역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원]용천어에서 'ㅅ, ㅈ'의 설면음화가 아직 진행중이라는 점과 'ㄷ, ㄴ'이 설단-치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주요어 : 평북방언, 전남방언, 계열상의 변화, 통합상의 변화, 음운체계, 음운배열

학번 : 95101-813

<목 차>

<국문초록> i

1. 서 론 **1**

2. 현대 (원)용천어와 화순어의 음운 대조 **8**

2.1 음운체계 8
2.1.1 음소체계 8
2.1.2 운소체계 13
2.2 음운배열 14
2.2.1 음소배열 14
2.2.2 운소배열 18

3. 모음의 변화 **20**

3.1 계열상의 변화 21
3.1.1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21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27
3.1.3 'Vi' 이중모음의 변화 32
3.1.3.1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 38
3.1.3.2 부동 이중모음의 변화 50
3.1.4 'ᄋᆞ'의 변화 60
3.1.5 두 지역어의 '계열상의 변화' 대조 67
3.2 통합상의 변화 69
3.2.1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69
3.2.2 전설모음화 80
3.2.2.1 '으>이' 전설모음화 80
3.2.2.2 움라우트 86
3.2.3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91
3.2.4 고모음화 99
3.2.5 모음충돌의 변화 105
3.2.6 두 지역어의 '통합상의 변화' 대조 110

4. 자음의 변화 113
4.1 계열상의 변화 114
4.1.1 'ㅅ, ㅈ'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114
4.1.2 'ㄷ, ㄴ'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120
4.1.3 'ㆅ'의 변화 124
4.1.4 유성마찰음의 변화 127
4.1.5 두 지역어의 '계열상의 변화' 대조 132
4.2 통합상의 변화 134
4.2.1 설면-경구개 이음과 관련된 변화 134
4.2.1.1 설면음화 134
4.2.1.2 어두 'ㄴ'의 변화 144
4.2.2 모음간 자음의 변화 147
4.2.3 자음연쇄의 변화 155
4.2.4 두 지역어의 '통합상의 변화' 대조 158

5. 결 론 160

<참고문헌> 168

<ABSTRACT> 177

이 논문은 재단법인 동숭학술재단의 1998년도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1. 서 론

본고는 '두 지역어'의 공시음운론적 대조와 통시음운론적 대조를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현대 두 지역어의 음운체계와 음운배열에 대한 공시론적인 대조와 두 지역어의 음운변화 양상에 대한 통시론적인 대조 작업을 병행하여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 보려 하는 것이다.

方言이란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단위로서의 言語體系이면서 동시에 한 母體로부터 다른 모습으로 변이를 일으킨 分化體인 것이다(Chambers & Trudgill 1980, 이익섭 1984). 따라서 방언을 연구하는 방언학은 분화의 결과로 독립된 방언의 체계 내적인 구조를 공시론적으로 밝히기도 하며 또한 한 언어가 지닌 구조 속에서 방언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는 전자를 기술방언학(descriptive dialectology), 후자를 대조·비교방언학(contrastive or comparative dialectology)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이병근 2001).

방언학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이 중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방언 연구는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독립된 체계로서의 방언만을 강조하다 보면 방언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실패할 우려가 있으며, 분화체계로서의 방언만을 강조하다 보면 방언 자체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실패해 피상적인 대조·비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의 방언 연구가 독립된 방언들에 대한 체계 내적인 연구에 힘을 쏟으면서 국어의 방언(또는 지역어)을 정밀하게 기술하고 나아가 방언의 특징적인 면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이 한 언어의 分化體 내지 變種(variation)이라는 개념상의 인식이 약화되어, 한국어의 분화체인 여러 방언들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는 움츠러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독립된 방언들의 체계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수긍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방언 연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어느 한 언어에 속하는 방언들을 대조·비교하는 작업이 뒤따를 때

방언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때에야 비로소 한 언어가 가지는 공통적인 기반 위에서 방언들이 분화된 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가능하면 많은 지역어를 대상으로 대조·비교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방언 연구의 최종 목표가 되겠지만 필자 능력과 여건의 한계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대상을 '두 지역어'에 한정하려 하며 나머지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될 두 지역어는 全南 和順 地域語와 原平北龍川系 沈陽 韓國語이다.[1] 하나의 지역어로 서남방언 계통에 속한 화순어를 선정한 것은 졸고(1995)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서북방언 계통에 속한 ㉯용천어를 화순어의 대조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어는 흔히 6개의 대방언권(서북방언, 동북방언, 중부방언, 서남방언, 동남방언, 제주방언)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남한에 위치하는 네 방언은 그동안 연구와 자료보고가 꽤 진행되어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에 위치하는 서북방언과 동북방언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는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아직까지 미진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1992년 한·중 수교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자료보고도 주로 동북방언에 치우치고(전학석 1993, 곽충구 1994, 최명옥 2000, 소신애 2002, 최명옥 외 2002, 채옥자 2002) 상대적으로 서북방언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지 않았나 한다.

둘째, 그동안 학계에서는 서북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예를 들어 소위 '구개음화')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이것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서북방언의 음운론적 실체를 이해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된 감이 없지 않다.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은 같은 음장 방언권에 해당한다.[2] 두 방언의 차이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공통점 또한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두 방언의 정밀한 음운론적 대조는 충분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북방언 중에 평북방언을 택한 것은 중국 요녕성에서 이 방언 화자를 상대적으로 접하기가 쉬웠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

1)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각각 '화순어'와 '㉯용천어'로 칭하려 한다.

2) 방종현(1947)에서 '서부방언'이라는 말이 사용된 바 있다. 이 '서부방언'이 어느 방언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음장 방언(서북방언, 중부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된 '서부방언'(김병제 1988, 황대화 1998, 이병근 2001)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인 이유 외에도 전남방언과 평북방언이 한반도의 남북단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지리방언학적 측면에서 좀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본고의 한 연구 대상인 ㉾용천어는 평안북도 용천군 출신 제보자의 말이다. 평안북도 용천군은 신의주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평야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小倉進平(1929)에 따르면, 보고된 자료가 많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평북의 서부 평야지역(의주, 용천, 선천, 정주)이 하나의 방언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오명숙 할머니(제1차 조사 당시 73세)는 17세 때 압록강을 건너 중국 심양으로 이주하였다. 조사지점은 中國 遼寧省 沈陽市 東陵區 滿融村鄕인데 대부분 평북 출신들이 모여사는 마을로, 한족은 거의 살지 않는 전형적인 조선족 마을이다. 이 마을의 노년층은 漢語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3] 스스로의 말을 '北鮮말'이라고 할 정도로 평북방언 의식이 강하다.[4] 조사는 3차(1997년 7월 3일~15일, 2000년 8월 20일~27일, 2002년 7월 21일~25일)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제1·2차 조사는 이병근 교수와 함께 했으며[5] 제3차 조사는 한성우 동학과 함께 했다. 또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제전화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화순어의 조사지점은 全南 和順郡 北面 西酉里이며 주요 제보자는 졸고(1995)에서와 동일한 정연채 할아버지(86세)이다. 조사는 졸고(1995)을 위한 조사 이후 2001년 7월에 주로 실시되었으며 수시로 확인조사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전형적인 두 지역어의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보조 자료도 참고로 하였다. ㉾용천어는 <평북방언사전>(김이협 1981), <조선어방언사전>(리운규 외 1992) 등을, 화순어는 <한국방언자료집 Ⅵ(전남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1), <전남방언사전>(이기갑 외 1998) 등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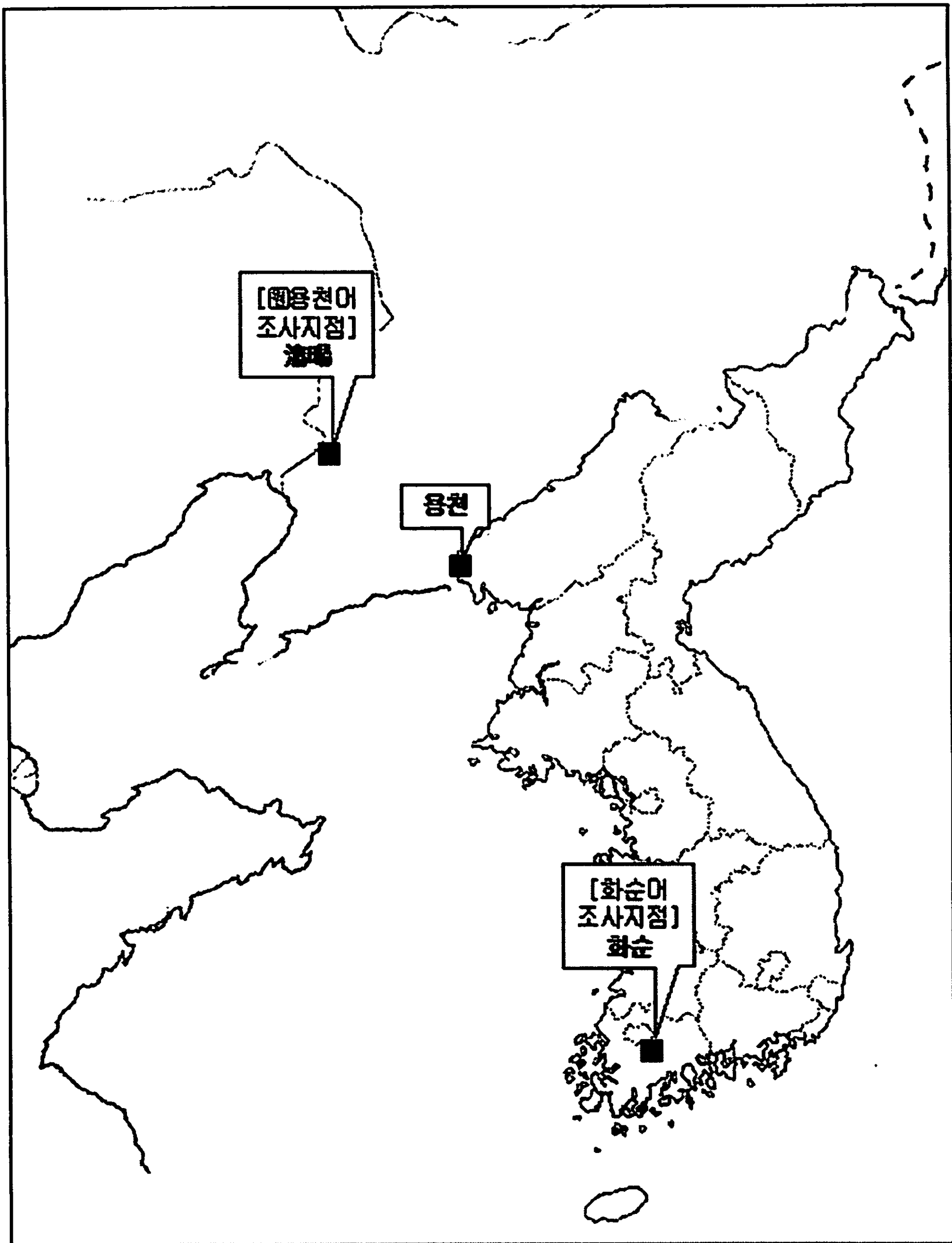
평북 출신의 제보자가 중국으로 이주하여 사용하는 한국어를 평북방언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심양 한국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필자는 가능한 한 딴 방언

---

3) 물론 중국의 新造語, 예컨대 '삥샹(氷床, 냉장고), 뗸쓰(電視, 텔레비전), 꿍조(空調, 에어컨)' 등과 같은 漢語를 사용하기는 한다.

4) 北鮮말 이외에 연변지역의 동북방언 계통을 '延邊말'이라 하고 서울 중심의 남한어를 '南鮮말'이라 부르고 있다(이병근·정인호 2003).

5) 조사결과는 이병근·정인호(1999, 2003)에 보고되어 있다.



<조사지점 지도>

(또는 언어)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과 제보자를 선정하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면서 딴 방언을 차용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되도록 배제하고자 김이협(1981), 리운규 외(1992) 등에서 보고된 평북방언을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는 또한 짧은 기간에 조사된 자료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서북방언을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남한의 조사 연구자들이 북한에 들어가 방언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큰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서북방언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및 자료보고는 그 연구 대상에 따라 대략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서북방언을 직접 조사하여 진행된 연구들이 있다. 분단 전의 업적으로는 小倉進平(1929, 1944), 河野六郎(1945) 등이 있다. 그리고 분단 후에는 의주・피현 방언의 '어음론적' 특성을 논한 한영순(1956ㄱ, ㄴ)이 있으며 그 이후 김영황(1982), 김병제(1988) 등이 있다. 둘째, 분단 후 월남한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 업적들이 있다. 자료집으로는 김이협(1981), 김영배(1997) 등이 있으며 연구로는 김영배(1977)을 비롯한 김영배 교수의 일련의 작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덩보(1976)은 본인의 말을 대상으로 한 '피양말'의 연구 보고서이다. 셋째, 주로 외국인이 19세기에 기록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업적들이 있는데 최임식(1984), 최명옥(1985ㄱ, 1985ㄴ, 1986, 1987)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현재의 요녕성에 거주하던 서북방언 화자의 언어였다. 넷째, 중국에 이주한 평안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업적들이 있는데 리운규 외(1992),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 집필조 편(1985), 왕한석(1997), 이병근・정인호(1999, 2003), 졸고(2003), 한성우(2003)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의 음운론적 대조 연구가 진행된다. 먼저 현대 두 지역어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대조 연구를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다(제2장). 그리고 그 대상은 순수음운론적 구조, 즉 음운체계와 음운배열에 한정한다. 이와 같은 공시음운론적 대조를 진행하려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한국어의 분화체인 두 지역어의 음운 구조를 각각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검토가 선행될 때에야 비로소 두 지역어를 대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시음운론적 대조에 필요한 "共通的"인 先代形을 설정하는 데에 근거를 제

공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두 지역어의 음운변화 양상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대조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제3·4장). 이를 통해 공시음운론적 대조를 통해 드러난 두 지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음운의 변화 과정을 대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할 일이 대조 가능한 변화의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대 두 지역어의 대조 결과와 두 지역어 각각의 내적 증거에 의해 "共通的"인 先代形을 설정할 것이다. 본고에서 공통적인 선대형을 설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이용되는 내적 증거는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실현되는 음운 현상들이다.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은 역사적인 음운변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6]. 이와 같이 설정된 공통적인 선대형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 양상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여기에서 '공통적'이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두 지역어가 분화되기 이전 단계의 언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두 지역어가 분화되어 독자적인 변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음운체계나 음운배열을 가지는 역사적인 단계가 두 지역어 모두에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통적인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 절대적인 시기까지 동일하다는 말은 결코 아님을 강조하여 둔다. 바꾸어 말하면 두 지역어의 변화를 대조함에 있어 그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두 지역어의 대조와 내적 증거만을 통해 정확한 선대형을 설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중부방언의 '문헌어'[7]를 참고하려 한다. 다만 그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의미와 형태면에서 유사한 어형에 한정하여 문헌어를 참고하고 그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필자는 음운 변화를 살핌에 있어 순수음운론적 현상이라고 보기 힘든 다음과 같은 변화는 될 수 있으면 논의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

---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규(1989), 이진호(2002ㄴ) 등을 참고.

7) 본고에서 중세 문헌어는 { } 안에 제시한다. 용례는 유창돈(1964ㄱ)에서 주로 발췌하였으며 편의상 출전은 생략하고자 한다.

㉮ paradigm의 단일화 및 어간 재구조화에 의한 변화

㉠ 자음군단순화 ㉄ 닭>닥 값>갑 등

㉡ 어미 '-어/아' 교체

㉢ 체언 어간말의 재구조화 ㉄ 잎>입, 낯>낫 등

㉣ ㅂ-불규칙 용언의 개음절화 ㉄ 굽->꾸-, 깁->쭈- 등

㉤ ㄷ-불규칙 용언의 'ㅀ'말음화 ㉄ 듣->듫-, 싣->싫- 등

㉥ 르-불규칙 용언의 ㄹ첨가 ㉄ 거르->걸르-, 바르->발르- 등

㉯ 의미(표현) 강화를 위한 변화

㉠ 어두 경음화

㉡ 어두 격음화

㉢ 표현적 장음화

본고에서 모음과 자음의 변화는 '계열상의 변화'와 '통합상의 변화'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전자는 음운체계와 관련된 변화, 즉 음소의 생성(音韻化), 소실(非音韻化) 그리고 대립의 변화(再音韻化)를 가리키며 후자는 음소배열과 관련된 변화를 가리킨다. 하지만 둘 사이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통합상의 변화'는 그 자체가 음소의 분포, 음소가 실현되는 빈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체계의 변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음소배열상의 변화가 음소체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중모음의 변화 ⇒ 모음체계의 변화). 이와 반대로 음소체계의 변화가 음소배열상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 'ㅈ, ㅅ'의 재음운화 ⇒ '으>이' 전설모음화).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계열상의 변화'와 '통합상의 변화'는 임의적인 성격이 짙은데 다만 기술·설명의 편의와 초점(변화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구분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2. 현대 ㉖용천어와 화순어의 음운 대조

이 장에서는 현대 두 지역어의 음운 구조, 즉 음운체계와 음운배열에 대한 공시론적 대조를 진행하려 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두 지역어 각각의 음운 구조를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또한 통시음운론적 대조를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다.

2.1 음운체계

2.1.1 음소체계

● 모음

현대 두 지역어는 모음목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 ㉖용천어(8모음) : 이 에 애 으 어 아 우 오
㉯ 화순어(9모음) : 이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

두 지역어의 모음목록을 비교하면 우선 후설모음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전설모음에 있어서 먼저 화순어는 전설 원순모음(위, 외)가 존재하지만 ㉖용천어에는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㉖용천어와는 달리 화순어에는 전설 비원순모음 '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 지역어는 이러한 목록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모음의 대립 체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를 보이기 위해 변별적 자질을 이용하여 그 체계를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이 때 필요한 모음의 변별적 자질은 혀의 전후 위치에 따른 [±전설성],[8] 혀의 높이에 따른 [±고모음성]과 [±저모음성],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른 [±원순성]이다.

<table>
<tr><td rowspan="2"></td><td colspan="2">[+전설성]</td><td colspan="2">[-전설성]</td></tr>
<tr><td>[-원순성]</td><td>[+원순성]</td><td>[-원순성]</td><td>[+원순성]</td></tr>
<tr><td>[+고모음성, -저모음성]</td><td>이</td><td></td><td>으</td><td>우</td></tr>
<tr><td>[-고모음성, -저모음성]</td><td>에</td><td></td><td colspan="2">어</td></tr>
<tr><td>[-고모음성, +저모음성]</td><td>애</td><td></td><td>아</td><td>오</td></tr>
</table>

<[원]용천어>

<table>
<tr><td rowspan="2"></td><td colspan="2">[+전설성]</td><td colspan="2">[-전설성]</td></tr>
<tr><td>[-원순성]</td><td>[+원순성]</td><td>[-원순성]</td><td>[+원순성]</td></tr>
<tr><td>[+고모음성, -저모음성]</td><td>이</td><td>위</td><td>으</td><td>우</td></tr>
<tr><td>[-고모음성, -저모음성]</td><td rowspan="2">애</td><td rowspan="2">외</td><td>어</td><td>오</td></tr>
<tr><td>[-고모음성, +저모음성]</td><td>아</td><td></td></tr>
</table>

<화순어>

위에 제시한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를 대조하면 몇 가지 차이가 드러난다. 첫째, '어, 아'의 [+전설성] 대립짝이 차이를 보인다. 즉 [원]용천어에서는 '어, 아'의 [+전설성] 대립짝이 각각 '에, 애'이지만 화순어에서는 두 모음 모두의 [+전설성] 대립짝이 '애'이다. 둘째, '어'가 비원순모음인 화순어와 달리, [원]용천어에서 '어'는 어두와 비어두[9]에서 각각 원순모음(예 [ɒde](何處), [sɒːm](島))[10]과 비원순모음(예 [kunəŋ](穴), [yaŋnəm̥](양

---

8) 필자는 모음의 조음위치 자질로 [±후설성](±back) 대신 [±전설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송철의(1996)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 [±전설성]은 후술할 자음의 위치자질로도 사용되는데 동일한 자질을 사용하는 것이 자음과 모음의 동화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9) 이승녕(1959)에서는 제2음절 이하 위치가 "音節母音의 分節의 不分明 또는 聽覺印象의 不分明이 흔히 수반하기 쉬운" 위치라고 하여 음운의 결합적 발달에 있어서 훌륭한 음운론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어두, 비어두, 어말' 등의 조건을 음운변화의 주요 음운론적 조건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음운론적 용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음운론적 용어로는 각각 '기식군의 제1음절, 기식군의 제2음절 이하, 기식군의 끝음절' 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어두, 비어두, 어말'을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넘))의 이음을 갖는다. 셋째, 두 지역어는 '오'의 [-원순성] 대립짝이 차이를 보인다. 즉 '오'의 [-원순성] 대립짝이 ㉥용천어에서는 '아'이지만[11] 화순어에서는 '어'이다.

● 자음

현대 두 지역어의 자음목록은 완전히 일치한다.

♠ 자음목록(19자음) : 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ㄲ ㅅ ㅆ ㅎ ㅈ ㅊ ㅉ ㅁ ㄴ ㅇ ㄹ

그리고 그 대립 체계도 거의 비슷한데 변별적 자질을 이용하여 자음체계를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자음의 자질에 대해 잠깐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자음의 조음위치 자질로 조음자질과 음향자질이 혼용된 감이 없지 않다.[12] 물론 이러한 두 종류의 자질이 함께 쓰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필자는 조음자질만을 가지고도 국어의 음운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음의 조음위치는 조음점과 조음체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음위치 자질도 조음점을 기준으로 하는 자질과 조음체를 기준으로 하는 자질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필자는 조음점을 기준으로 하는 자질로 [±전부성]을, 조음체를 기준으로 하는 자질로 [±전설성]을[13]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설성] 자음을 하위

---

10) [ɵ]는 중설원순중모음을 가리킨다.

11) ㉥용천어에 존재하는 '오마니'(어머니)가 '오'와 '어'의 [±원순성]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후행하는 양순음 'ㅁ'의 영향으로 '어'가 원순모음 '오'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첫째, <3.2.1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에서 후술하겠지만 ㉥용천어에서 양순음에 의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용천어에서 '어'가 어두에서는 원순모음으로, 비어두에서는 비원순모음으로 실현된다.

12) Chomsky & Halle(1968)에서 조음위치 자질로 '[ant], [cor]'을 설정한 이후에 국어에서 이 자질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cor]자질 대신에 [grave]자질이 국어에서 더 유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진우 1972, 이병근 1977). 그리고 배주채(1996:47)에서는 '치음, 치조음, 경구개음'을 전설음으로 묶어 사실상 [전설성]자질을 인정했으며 송철의(1996)에서도 '[grave], [front]'자질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우(1997)에서는 '[grave], [diffuse]'자질을, 김경아(2001)에서는 '[labial], [grave], [high], [low]'자질을 언급하기도 했다.

13) [+전설성] 자질은 [-grave]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음향 자질인

분류하는 데에 필요한 자질이 [±설면성]이며[14] 이에 의해 설단음과 설면음이 나뉘게 된다.[15] 그리고 조음방법 자질은 이병근 · 최명옥(1997)에 따라 사용하되 다만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을 구분하는 자질로 [±폐쇄성]과 [±마찰성]을 사용하려 한다.

			[+전부성 -전설성]	[+전부성, +전설성] [-설면성]	[+전부성, +전설성] [+설면성]	[-전부성 -전설성]	
[-공명성]	[+폐쇄성 -마찰성]	[-격음성 -경음성]	ㅂ	ㄷ		ㄱ	
		[+격음성 -경음성]	ㅍ	ㅌ		ㅋ	
		[-격음성 +경음성]	ㅃ	ㄸ		ㄲ	
	[-폐쇄성 +마찰성]	[-격음성 -경음성]			ㅅ		ㅎ
		[-격음성 +경음성]			ㅆ		
	[+폐쇄성 +마찰성]	[-격음성 -경음성]			ㅈ		
		[+격음성 -경음성]			ㅊ		
		[-격음성 +경음성]			ㅉ		
[+공명성]	[+비음성]		ㅁ	ㄴ		ㅇ	
	[-비음성]			ㄹ			

<(원)용천어 · 화순어>

[±grave] 대신에 조음 자질인 [±전설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14) [±설면성]은 [±high]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다. 성희제(1997)에서는 이와 비슷한 자질로 [±하치조성]을 언급하였는데 이 자질에 의해서 'ㅅ'과 'ㅈ'은 동일한 자연부류로 묶일 수 없다고 하여 본고의 [±설면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ㅅ'과 'ㅈ'이 [+설면성]에 의해 자연부류로 묶일 수 있음은 <4.1.1 'ㅅ, ㅈ'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후술할 것이다.

15) 자질의 명칭은 임의적일 수도 있지만 송철의(1996)에서 언급했듯이 동화현상 ([-F][+F]→[+F][+F])을 일관성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자질로 표시할 수 있으면 더더욱 나은 일일 것이다. [±설면성]은 '설면음화'를, 그리고 [±전설성]은 '움라우트'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전설성]이 모음의 조음위치 자질로도 사용됨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두 지역어의 자음 체계는 그 대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음성적 실현에서 몇몇 자음들이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

	원용천어	화순어
㉮ /ㅅ/ /ㅈ/	㉠ 'i' 앞에서 각각 설면-후치경음 [ʃ], [ʧ]와 설면-경구개음 [ɕ], [ʨ]로 자유변이한다. ㉡ 'ɯ' 앞에서 'ㅈ'은 설단-치음 [ʦ]로 실현되며 'ㅅ'은 설단-치음 [s]와 설면-후치경음 [ʃ]로 자유변이한다. ㉢ 기타 모음 앞에서는 각각 설면-후치경음 [ʃ], [ʧ]로 실현된다.	㉠ 'i, y' 앞에서 각각 설면-경구개음 [ɕ], [ʨ]로 실현된다. ㉡ 기타 모음 앞에서는 각각 설면-후치경음 [ʃ], [ʧ]로 실현된다.
㉯ /ㄴ/ /ㄹ/	㉠ 모든 모음 앞에서 설단-치음 [n̪]으로 실현된다. ㉡ 'i, y' 앞에서 'ㄹㄹ'은 [lʎ]로 실현된다.	㉠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음 [ɲ]으로 실현된다. 단 어두에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설단-치경음 [n]으로 실현된다. ㉡ 기타 모음 앞에서는 설단-치경음 [n]으로 실현된다. ㉢'i, y' 앞에서 'ㄹㄹ'은 [lʎ]로 실현된다.
㉰ /ㄷ/	㉠ 설단-치음 [t̪]로 실현된다.	㉠ 설단-치경음 [t]로 실현된다.

16) 본고에서 사용하는 'ㅅ, ㅈ'의 음성기호는 지금까지 우리가 편의상 사용해온 음성기호와 음가가 다름을 미리 지적하여 둔다. [s ʦ]는 齒音(dental), [ʃ ʧ]는 後齒莖音(postalveolar), [ɕ ʨ]는 前硬口蓋音(prepalatal), [ç]는 硬口蓋音(palatal)이다. 또한 [s ʦ]는 舌端音(laminal)이며, [ʃ ʧ ɕ ʨ ç]는 舌面音(dorsal)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편의상 [ɕ ʨ] 대신 사용해온 [ʃ ʧ]의 음가는 본고에서의 음가와 다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前硬口蓋音 [ɕ ʨ]를 편의상 '경구개음'이라 칭하려 한다.

❸ 반모음

현대 두 지역어에는 두 개의 반모음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전설 비원순	후설 원순
y	w

2.1.2 운소체계

현대 두 지역어에 존재하는 운소는 음장으로 동일하다. 특히 최소대립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음장이 큰 혼란 없이 그 변별적 기능을 매우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1) 말(斗)—말:(言) 눈(眼)—눈:(雪) 밤(夜)—밤:(栗)

최소대립쌍을 형성하지 못하는 단어들의 기식군 첫머리에서도 장음은 존재한다. 하지만 중부방언과 비교할 때 음장의 실현이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 꽤 존재한다. 이는 두 지역어에서 음장의 혼란이 꽤 진행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17]

(2) ㄱ. 성씨(姓氏) 매뜽(墓) 괌친다(고함) 쌈헌다(싸움) 첨애(처음) 갈애(가을)
 ㄴ. 없어서(無) 벌어(收) 썰어(斷) 넷이요(넣+엇+이요, 入) 놧이요(놓+앗+이요, 置)
(3) ㄱ. 낮:에 나:무 거:무(蚊) 나:부(蝶) 까:지(茄) 까:지(盤) 까:시(荊)
 ㄴ. 깜:어(洗) 멀:어(遠) 갈:고(磨) 깔:고(席) 말:고(卷, 調) 물:고 빨:고(濯)[18]
 쏘:고(활) 쑤:고(죽) 싸:고(짐, 오줌) 까:고(밤) 찌:고(肥, 蒸) 썩:고(腐)

(2)는 ㉾용천어형이고 (3)은 화순어형이다. 이 예들을 비교하면 두 지역어에서 음장의 혼란이 진행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용천어에서

---

17) 김영배(1990)은 평안방언에서 3음절 어간의 경우 장음의 실현이 점차 없어지고 또한 장모음의 변별적 기능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고 하였다.

18) 화순어에서 'ㄹ'말음 용언 어간은 거의 대부분 장음으로 실현된다. 예외는 다음 4단어 정도이다. 예외. 달-(甘), 들-(擧), 잘-(細), 질-(泥)

는 중부방언의 장음이 단음으로 실현되는 예들이 다수이며 그 반대의 예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중부방언의 단음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예들이 다수이며 그 반대의 예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리하면 ㉯용천어에서는 장음의 단음화가, 화순어에서는 단음의 장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음운배열

2.2.1 음소배열

화순어의 음소배열 제약에 대해서는 졸고(1995)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용천어와의 대조를 통해 드러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한 음절 내에서의 음소배열 제약**

한 음절의 구조는 두 지역어가 완전히 동일한데 다음과 같다($: 음절경계, C: 자음, S: 반모음, V: 모음).

♠ $\$(C_1)(S)V(C_2)\$$

즉 한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는데 초성과 종성은 자음이, 중성은 모음 또는 이중모음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자음과 반모음은 수의적 요소이다. 초성과 종성에는 각각 2개 이상의 자음 연쇄가 불가능하다. 이 때 종성 위치에 바뀌어 놓일 수 있는 자음은 7개(ㅂ ㄷ ㄱ ㅁ ㄴ ㅇ ㄹ)뿐이다. 또한 초성 위치에 바뀌어 놓일 수 있는 자음에도 제약이 있는데 어두 음절 초성으로는 'ㅇ[ŋ], ㄹ[19]'을 제외한 17자음만이 가능하다.[20]

19) ㉯용천어에서 문화어 교육을 받은 젊은층은 어두 음절 초성으로 'ㄹ'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20) 비어두 음절 초성의 제약은 <음절연결에서의 음소배열 제약>에서 후술할 것이다.

한 음절 내에서 음소들은 일정한 연쇄 제약을 가진다. 첫째, '반모음-모음'(상승 이중모음)의 연쇄에 제약이 따르는데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y계 상승 이중모음으로 [원]용천어에는 6개(예, 얘, 여, 야, 유, 요)가 존재하는데 화순어에는 4개(여, 야, 유, 요)가 존재한다. 즉 [원]용천어에는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예, 얘'가 실현되나(㉥ 옌주(연지), 얘드래미(여드름)) 화순어에는 이들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w계 상승 이중모음으로 [원]용천어에는 5개(위, 웨, 왜, 와, 워)가 존재하는데 화순어에는 3개(왜, 와, 워)가 존재한다. [원]용천어의 '위'는 화순어에서 단모음 '위'로 실현되며 화순어에서 '웨'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단모음 '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초성-반모음'의 연쇄에도 제약이 따른다. 먼저 '초성-y'의 연쇄는 <3.2.3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후술하겠지만 두 지역어 모두 그리 활발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제약은 [원]용천어에서 더욱 심하여 초성이 [+전설성] 자음(ㄷ ㅌ ㄸ ㅅ ㅆ ㅈ ㅊ ㅉ ㄴ ㄹ)일 때 이 연쇄는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화순어에서는 초성이 [+전설성] 자음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환경에서 '초성-y'의 연쇄가 가능하다. ㉮ '설면음(ㅅ ㅆ ㅈ ㅊ ㅉ)-y'의 연쇄가 몇몇 환경에 한해 가능하다(4).

(4) ㄱ. 마셔(마시+어#) 다셔(다시+어#)
ㄴ. 가쟈(가자고 해, 해체 간접인용문) 가쟈(가+지, 해라체 의문문)

(4ㄱ)은 'ㅅ' 뒤에, (4ㄴ)은 'ㅈ' 뒤에 'y'가 위치하는 예이다. 'y'가 'ㅅ'에 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시'말음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에 한정된다.[21] 그리고 'y'가 'ㅈ'에 후행하는 예는 해체 간접인용문 어미[22]과 해라체 의문문 어미에서 발견할 수 있다. ㉯ '공명음(ㄴ ㄹ)-y'의 연쇄가 비어두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우나(㉥ 음녁(음력), 안녕(안녕), 달력(달력)) 어두에서 이 연쇄는 발견할 수 없다. ㉰ '폐쇄음(ㄷㅌㄸ)-y'의 연쇄가 형태소 경계에서만 확인된다(㉥ 무뎌(무디+어), 버텨(버티+어)).

다음으로 '초성-w'의 연쇄는 두 지역어가 큰 제약 없이 실현되는데 다만 비어두

---

21) '어'로 시작하는 어미라 할지라도 '-어X'인 경우에는 '셔'가 생성되지 못하고 '시'로 실현된다. ㉥ 마싰다(마시+었+다), 마시라잉(마시+어라#잉), 마시야(마시+어야) 등.

22) 화순어에서 해체 간접인용문 어미는 '-은/는댜(-은/는대), -냐(-내), -랴(-래), -쟈(-재)'로 실현되는데 바로 '가쟈'에서 'ㅈ-y'의 연쇄를 확인할 수 있다.

위치에서 이 연쇄를 확인할 수 있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양순음-w'의 연쇄는 형태소 내부에서 확인하기 힘들다.

(5) ㄱ. 뽜시요~빠시요(뽓+앗+이요, 碎) 붜서~버서(붓+엇+어, 腫) 바(보+아, 覩)
   ㄴ. 뿨(뿌+어, 切斷) 바(보+아, 覩)

(5ㄱ)은 [원]용천어형이고 (5ㄴ)은 화순어형인데 이를 통해 두 지역어 모두 형태소 경계에서는 '양순음-w'의 연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w'는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특히 '바(보+아)'의 경우에는 두 지역어 모두 'w'가 거의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성-모음'의 연쇄에도 제약이 따른다. 먼저 '양순음-으'의 연쇄를 형태소 내부에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3.2.1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에서 후술하겠지만 형태소 경계, 즉 양순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조사 '-은, -을'이 결합할 때에는 이 연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믄(잠+은), 지블(집+을)) 그 양상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다음으로 '설면음-으'의 연쇄는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3.2.2.1 '으>이' 전설모음화>에서 후술하겠지만 [원]용천어에서는 이 연쇄에 큰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이 연쇄를 형성하는 예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23] 그리고 <4.2.1.2 어두 'ㄴ'의 변화>에서 후술하겠지만 어두 위치에서 'ㄴ-이'의 연쇄가 [원]용천어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실현되는 반면 화순어에서는 몇몇 단어[24]에서만 가능하다.

● 음절연결에서의 음소배열 제약

중부방언에서 음절이 연결되는 방식은 모음 사이에 개재하는 자음의 숫자에 따라 크게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25] 두 지역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3가지 유

---

23) '스-(立), 쓰-(點火), 즈그(저희)' 등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순정의 '으'가 아니라 '어'가 변화한 '으'라는 특징이 있다.

24) '니(네), 닝기-(넘기-), 니기(너희)'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ㄴ' 뒤의 '이'가 순정의 '이'가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25) 이 경우 음절경계가 배정되는 방식은 송철의(1982), 강창석(1984), 박창원(1987ㄴ)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강창석(1984)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어의 음절 형성 규

형, 즉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없을 때(제1유형), 자음이 1개일 때(제2유형), 그리고 자음이 2개일 때(제3유형)로 구분할 수 있다.

㉮ 제1유형: V_1 $ V_2
㉯ 제2유형: V_1 $ CV_2
㉰ 제3유형: V_1C_1 $ C_2V_2

첫째, 제1유형에 해당하는 연쇄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그 제약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3.2.5 모음충돌의 변화>에서 후술하겠지만 두 지역어 모두 'V_2'가 '우'나 '이'일 때는 이 연쇄가 꽤 자연스럽다. 하지만 'V_2'가 '이'인 경우에도 'V_1'이 전설모음이면 두 지역어 모두에서 '이'가 수의적으로 탈락하기도 한다(㉻ 내일~낼:). 그리고 이 연쇄에서 'V_1'이나 'V_2'가 '으'인 연쇄는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는데 이 제약도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둘째, 제2유형에 해당하는 연쇄에서의 제약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두 지역어 모두 그리 심하지 않다. 먼저 두 지역어 모두 이 연쇄에서 'C'에 'ㅎ'이 놓일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C'가 경음, 격음일 때 이 자음이 양음절적(ambisyllabic)이라는 점이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26] 그런데 'C'가 'ㅇ[ŋ]'일 때 음절경계 배정에 있어서 두 지역어는 차이를 보인다. 화순어에서는 'V_2'의 종류에 관계없이 'ㅇ'이 양음절적[27]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용천어에서는 'V_2'의 종류에 따라 음절경계가 다르며 이 때 'ㅇ'의 음성도 차이를 보인다.

㉠ 'V_2'가 y계 상승 이중모음일 때 : 'ㅇ'은 앞 음절의 종성이 된다.
㉻ 동$양(동양), 방$양(방향) 강$엿 등.

칙'을 제안하고서 이들을 순서대로 적용함으로써 국어의 음절경계가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① 모음 혹은 활음+모음으로 음절핵 형성
② 음절핵 앞의 자음이 음절초에 결합
③ 음절핵 뒤의 자음이 음절말에 결합

26) 이러한 사실은 중부방언에서도 동일하다(유재원 1988, 이병근 · 최명옥 1997).

27) 학자에 따라 중부방언에서의 모음간 'ㅇ'이 뒤 음절의 초성이라는 주장(송철의 1982)도 있고 앞 음절의 종성이라는 주장(배주채 1989)도 있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양음절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 'V_2'가 '이'이거나 'V_1'과 동일 모음일 때 : 'ㅇ'은 뒤 음절의 초성이 되고 'ㅇ'은 매우 약화된다.

㉾ 사$이(상+이), 가$아(가위) 등

㉢ 'V_2'가 기타 모음일 때 : 'ㅇ'은 양음절적이다.

㉾ 종애(종이), 능애(누에), 방애(방아) 등

셋째, 제3유형에서 음절 경계는 두 자음 사이에 위치해 'C_1'은 선행 음절의 종성이 되고 'C_2'는 후행 음절의 초성이 된다. 이 때 'C_1'과 'C_2' 사이에는 꽤 심한 제약이 존재하는데 강창석(1984)에서는 중부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C_1'이 'C_2'보다 강한 자음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약은 두 지역어에서도 비슷한데 이를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C_1'에는 7자음(ㅂ ㄷ ㄱ ㅁ ㄴ ㆁ ㄹ)만이 놓일 수 있으며, 'C_2'에는 'ㆁ'이 놓일 수 없다.
② 'C_2'가 비음(ㅁ ㄴ)이면 'C_1'에 장애음(ㅂ ㄷ ㄱ)이 놓일 수 없다.
③ 'C_2'가 'ㄴ'이면 'C_1'에 장애음뿐만 아니라 'ㄹ'도 놓일 수 없다.
④ 'C_2'가 'ㄹ'이면 'C_1'에 'ㄹ'만이 놓일 수 있다.
⑤ 'C_1'이 장애음(ㅂ ㄷ ㄱ)이면 'C_2'에 평장애음(ㅂ ㄷ ㄱ ㅈ ㅅ)이 놓일 수 없다.

그런데 'C_2'가 'ㅎ'이고 'C_1'이 장애음(ㅂ ㄷ ㄱ)인 연쇄에서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즉 화순어에서는 이 연쇄가 불가능하지만 (원)용천어에서는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4.1.3 자음연쇄의 변화>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2.2.2 운소배열

화순어에서 변별적 기능을 담당하는 장음은 어두 위치에서만, 더 정확히는 기식군 첫머리에서만 존재한다.[28] (원)용천어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비슷한데 비어두 위치에서도 변별적인 장음이 실현되는 특이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모두 'ㆁ'말음과 개음절 체언어간에 특수한 처격조사 '-V'가 결합된 어형들인데 비어두 음절의 모음이 장음으로 실현된다(6).

---

28) 중부방언에서도 그 양상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병근 1986).

(6) 구너:(구넝+에, 穴) 서다:(서당+에) 잔드:(등+에) 머리:(머리+에)

이 조사는 'ㆁ' 말음 어간과 개음절 어간에 쓰이는데 제 형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특히 'ㆁ' 말음 어간의 경우 자음 'ㆁ'이 수의적으로 약화되거나 탈락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이 조사가 어간말 모음과 같은 모음으로 실현되고(㊞ 바아(방+에)) 후자의 경우에는 이 조사도 탈락하며 대신 어간말 모음을 장음화시킨다(㊞ 바:(방+에)).[29]

29) 한영순(1956ㄱ)에서도 이 처격조사는 모음과 'ㆁ'으로 끝나는 모든 명사에 붙는데 모음중복을 기피하기 위해서 처격조사는 탈락하고 대신 명사의 끝모음이 장모음화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대 ㉾용천어에서는 이 처격조사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대신 '-애'의 쓰임이 늘어가는 추세로 보인다.

3. 모음의 변화

이 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모음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대조를 진행하려 한다. 필자는 제2장에서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과 관련된 음소배열을 대조한 바 있다. 이제 그 대조 결과와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의 음운 현상을 주요 내적 증거로 삼아 공통적인 선대형을 설정하고 두 지역어가 이로부터 변화하는 양상을 대조할 것이다.

현대 두 지역어의 공시음운론적 대조를 통해 드러난 모음체계의 차이점만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용천어에 존재하는 '에'가 화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화순어에 존재하는 전설원순모음 '외, 위'가 [원]용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어, 아'의 [+전설성] 대립짝이 [원]용천어에서는 각각 '에, 애'이나 화순어에서는 동일한 모음 '애'이다.
㉣ 후설원순모음 '오'의 대립짝인 후설비원순모음이 화순어에서는 '어'이나 [원]용천어에서는 '아'이다.

이 장에서는 현대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를 형성하게 한 모음의 변화, 즉 모음의 '계열상의 변화'를 대조하되 내적 증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변화에 한정한다.[30] 그리고 공시음운론적 대조에 통해 드러난 모음의 분포 · 빈도와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의 음운현상을 고려하여 음소배열상에 진행된 모음의 변화, 즉 모음의 '통합상의 변화'도 뒤이어 함께 살필 것이다.

---

30) 국어사 연구에서 '어'의 후설모음화에 대한 논의가 있다. 즉 중부방언에서 '어'가 전설모음이던 역사적인 단계가 있었는데(김완진 1963, 이기문 1965), 이 '어'가 후설모음화하여(비록 그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국어와 같은 후설모음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곽충구(1980)에서는 '으'와 '어'가 중화되지 않는 중부방언에서도 18세기 후기에 원래의 '으'를 '어'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어'의 후설모음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의 후설모음화는 [원]용천어와 화순어의 내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 계열상의 변화
①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②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③ 'Vi' 이중모음[31]의 변화
④ 'ᄋᆞ'의 변화
㉯ 통합상의 변화
①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② 전설모음화('으>이'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③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④ 고모음화
⑤ 모음충돌의 변화

3.1 계열상의 변화

3.1.1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용천어와 화순어의 전설비원순모음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용천어형⇔화순어형).

(1) ㄱ. [i]⇔[i] : 비⇔비(雨) 씨갓⇔씨갓(種子) 짐⇔짐(負荷)
ㄴ. [e]⇔[i] : 메⇔미(杵) 데운다⇔딘다(溫) 세다⇔씨다(强)
ㄷ. [ɛ]⇔[ᴇ] : 매⇔매(鞭) 잰다⇔잰다(尺) 해⇔해(日)

일반적으로 ㉾용천어의 두 모음 '이[i]'와 '에[e]'가 화순어의 '이[i]'에 대응하며[32]

---

31) "'Vi' 이중모음"은 그동안 학계에서 '하강 이중모음'이라고 불리던 모음을 가리킨다. 종래의 용어 대신 "'Vi' 이중모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까닭은 소위 '하강 이중모음'이 두 부류로 나뉘며 이 때의 후행모음이 'i'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3.1.3 'Vi'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32) 물론 다음과 같이 이러한 대응관계에서 벗어난 예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용천어형⇔화순어형) 이러한 대응 예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후술할 '통합상의 변화'('으>이'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등)의 차이로 능히 설명할 수 있다.

[원]용천어의 '애[ɛ]'는 화순어의 '애[E]'에 대응한다. 이를 방언 분화체계(diasystem)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에/
[원]용천어, 화순어 //               /이₁/ ≈ --- ≈ /애/ //
                              (화)          /이₂/              .
```

우리는 두 지역어에서 이러한 차이를 유발한 변화 과정으로 3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즉 ① [원]용천어에서 '이'가 '이'와 '에'로 分岐(split)함으로써 '에'가 음운화하였을 가능성, ② 화순어의 '에'가 '이'로 合流(merger)하여 비음운화하였을 가능성, ③ 제3의 음소(또는 음소연쇄)가 [원]용천어에서는 '에'로, 화순어에서는 '이'로 변화했을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먼저 [원]용천어에서 이전 단계의 '*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환경과 '에'로 변화하는 환경을 음운론적으로 명확히 기술하기 힘들기 때문에 ①의 가능성은 우선 배제한다. 그리고 ③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33] 화순어의 내적 증거들이 ②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고 있다.

(2) ㄱ. 싯~서이(三) 닛~너이(四)
  ㄴ. 닝기-(넘기-) 미기-(먹이-)
  ㄷ. 민경(面鏡) 빌(別) 빙(病)

(2)는 화순어형인데 이 예들은 그 변화과정에서 '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어이'의 변화(2ㄱ), '어'의 움라우트(2ㄴ), '여'의 변화(2ㄷ)가 그것인데 이들은 후설모음 '어'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하는 전설모음을 상정케 한다. 그런데 그 모음을 '이'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면에서 무리가 따른다. 첫째, 현대 화순어에서는 움라우트에 의해 '어'가 '애'로 교체되기도 한다((예) 법+이(法)→배비[pEbi]). 이는 현대 화순어서 '어'의 [-전설성] 대립짝이 '애'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만약 '어'의 [-전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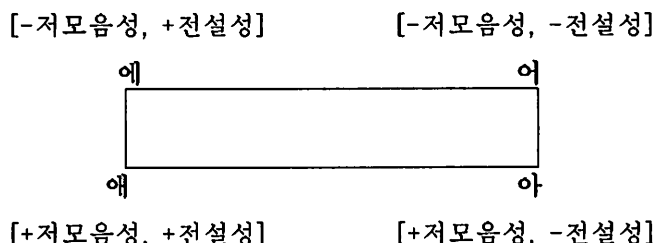
---

① 이⇔으 : 기림⇔기름 이림⇔이름
② 으⇔이 : 쫒-⇔찢- 슴슴허-⇔심심허-
③ 에⇔애 : 제리-⇔재리-(저리-) 쎄기-⇔쌔기-(썩이-)

33) 중부방언을 참고할 때 '어데⇔어디{어듸}, -는데⇔-는디{-는듸}' 등의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대립짝이 현대 이전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서 '이'이고 현대 화순어에도 '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의 [-전설성] 대립짝이 '이'에서 '애'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찾기 힘들다. 둘째, '여>이'의 변화에 대한 음성학적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셋째, 화순어에는 '이'의 [+전설성] 대립짝으로 '으'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2)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어'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이루는 모음이 '애'이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이 경우 '애>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와 그러지 못하는 경우의 음운론적 환경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화순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전 단계에 '어'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했던 전설비원순모음의 존재를 가정할 수밖에 없으며 [원]용천어와의 대조에 의해서 그 모음은 '에[e]'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두 지역어의 대조와 화순어의 내적 증거들에 의해서 두 지역어 모두 현대 이전의 어느 시기에 전설모음 '에'가 존재하여 '애'와 [±저모음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이들이 각각 후설모음 '어, 아'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는 이전의 단계가 공통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공통적인 단계의 '에'와 관련된 모음체계>

■ [원]용천어

현대 [원]용천어에서는 공통적인 단계의 대립이 유지되어 '에, 애'가 [±저음성]에 의한 대립을, 그리고 이들이 각각 '어, 아'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

(3) ㄱ. 베(稻) : 배(腹)　테기(제기) : 태기(胎氣)
ㄴ. coŋᴇ(紙)　nuŋᴇ(蠶)　molgᴇ(沙)　morᴇ(後後日)

다만 ‘에’와 ‘애’의 합류에 의해 그 대립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는데 (3ㄴ) 이러한 현상은 비어두 위치에만 한정된다. 즉 어두에서 두 모음의 대립이 약화되는 현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3ㄱ).

■ 화순어

화순어에서 ‘에’와 ‘애’의 대립은 상실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에’와 ‘애’의 합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에’가 ‘이’로 합류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돈주 1978, 이기갑 1986). 하지만 오종갑(1998)에서는 동남방언의 변화를 예로 들어 ‘애>ᴇ’의 변화가 단초가 되어 ‘에’와 ‘애’의 간극이 좁아짐으로써 ‘e>i’ 또는 ‘e>ᴇ’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순어에서 ‘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에>이’ 변화에 기인한 것은 분명한데 본고에서 그 변화의 단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화순어에서 저모음의 상승이 하나의 경향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할 ‘오, 외’의 상승이라든가, ‘아’가 딴 방언에 비해 꽤 높은 위치에서 발음된다든가 하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면 ‘애’의 상승이 ‘에>이’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나 한다.

화순어에서 ‘에>이’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일부의 단어들에서 ‘에’가 ‘애[ᴇ]’로 합류한다. ‘에>이’ 변화는 어두에서 특히 활발하게 일어났다.[34]

(4) ㄱ. 니{네, 爾}　시-{세-, 强}　끼울-{게으르-, 懶}　미-{메-, 負}　치{체, 篩}
ㄴ. 시상{셰상}　시수{셰슈}　지사{졔ᄉᆞ}　지비{졔비}
ㄷ. 미느리{며ᄂᆞ리}　비실{벼슬}　핀허-(편하-)
ㄹ. 이미(어미)　닝기-(넘기-)　미기-(먹이-)　비리-(버리-, 汚)　비:-(보이-)[35]

---

34) 아산지역어(곽충구 1982)와 전북방언(최태영 1983:125) 등을 참고할 때 화순어에서도 장음을 가진 환경에서 이 변화가 먼저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35) ‘비-’는 ‘poi->pö-(단모음화)>pe-(비원순모음화)>pi-’의 변화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

ㄹ'. 새끼-(섞이-) 쌔기-(썩이-) 생기-(섬기-) 재피-(접히-) 재리-(저리-)
ㄹ''. 배비(법+이, 法) 개비(겁+이, 怯) 생이(성+이, 姓) 재기(적+이, 炙)

'에>이'의 변화를 경험하는 '에'에는 대략 4가지 유형이 있다.[36] 즉 ㉮하강 이중모음 'əi'가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경험한 것(4ㄱ), ㉯y계 상승 이중모음 'ye'의 'y'가 탈락함으로써 형성된 것(4ㄴ), ㉰'yə'가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경험한 것(4ㄷ), ㉱움라우트에 의해 형성된 것(4ㄹ)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움라우트에 의해 형성된 '에' 중에는 '이'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애'로 합류한 예들도 상당하다(4ㄹ'). 화순어의 어두에서 '에'가 '애'로 합류한 예들은 움라우트에 의해 형성된 '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37] 이는 움라우트의 적용 시기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화순어에서 움라우트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그 사이에 '에>이'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38] 그리고 형태소 경계에서는 '에>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4ㄹ'') 이러한 사실은 형태소 경계의 움라우트가 '에>이' 변화보다 뒤에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아 좋을 것이다.

(5) 얼기빗{얼에빗} 써리{서흐레} 올기쌀{올벼, 오례쌀} 행이나{힝혀}
생이{상여, 喪興} -기-(존칭선어말어미 '*-겨-')
(6) ㄱ. 언재(언제) -내(하게체 서술형 종결어미 '-네')
-개(하게체 명령형 종결어미 '-게')
ㄴ. 굼뱅이(굼벙이) 엉댕이(엉덩이) 껍대기(껍데기) 독댕이(돌덩이) 뿌랭이(뿌리)
ㄷ. 너매(너머) 건내(건너) 붕애(붕어) 건내-(건너-)

인다.

36) 이들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3.1.3 'Vi' 이중모음의 변화>(㉮), <3.2.3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 <3.2.2.2 움라우트>(㉱)에서 후술할 것이다.

37) '채육(體育), 개산(計算), 애절(禮節)' 등에서도 '에'가 '애'로 합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은 '에'가 모음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딴 방언(특히 표준어)의 '에'가 직접 '애'로 차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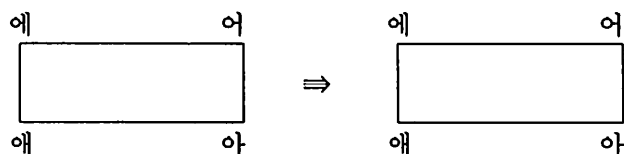
38) 예들이 많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움라우트된 '에'가 '애'로 합류한 예들은 음절두음이 주로 'ㅅ, ㅈ'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이들 자음이 '에>이'의 변화를 저지할 수 없음은 '시상(世上), 지사(祭祀)' 등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자음이 '어'의 움라우트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거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어두에서도 '에>이'의 변화는 존재하는데(5) 어두만큼은 활발하지는 않고 '에'가 '애'로 합류한 예가 다수이다. 특히 움라우트된 '에'(6ㄴ)와 어간말 '어>에'에 의한 '에'(6ㄷ)는 '이'로의 변화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애'로 합류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와 같이 '에'가 '이'로 변화하고(특히 어두에서는 대부분) 나머지는 '애[ɛ]'로 합류함으로써 '에[e]'는 화순어의 모음체계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에 : 어, 애 : 아'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 화순어에서 모음 '애[ɛ]'는 어느 하나의 후설모음이 아니라 두 후설모음 '어, 아'와 동시에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는 점이 특이하다.[39] 이러한 사실은 형태소 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후설모음 '어'와 '아'가 모두 '애[ɛ]'로 움라우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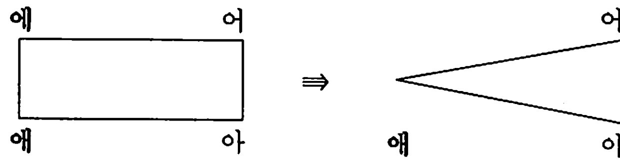
(7) ㄱ. pɛbi(법+이, 法)
ㄴ. pɛbi(밥+이, 食)

결론적으로 ㊊용천어에서는 화순어와 공통적인 단계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화순어에서는 변화를 경험한다. 즉 '에'가 '이'로 합류하여 비음운화함으로써 모음의 대립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전설모음 '애[ɛ]'가 두 후설모음 '어, 아'와 동시에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게 된다(진한 글씨는 변화한 모음).



<㊊용천어>

39) 이는 음운변화('에'의 소실)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최명옥(1978ㄱ)에서는 /으/와 /어/가 대립하지 못하는 방언에서 움라우트 현상이 달리 나타남을 예로 들어 "신·구 두 개의 음운체계가 교체되는 과도기에는 새로운 음운체계 사용자들의 언어능력에 바로 전단계의 음운체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다.



<화순어>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현대 (원)용천어와 화순어에는 모두 음소로서 '오'가 존재한다.

(8) ㄱ. [kɔru](고리, 環) [tɔk'u](도끼) [mɔk](목) [nɔ:rəda](노랗-)
  ㄴ. [phɔdo](포도) [imo](이모) [mɜks'o](먹+소)
(9) ㄱ. [kori](고리) [to:chi](도끼) [mok](목) [no:rəda](노랗-)
  ㄴ. [phodo](포도) [imo](이모) [mɜks'o](먹+소)

(8)은 (원)용천어형인데 '오'는 환경에 따라 2개의 음성을 가진다. 그 환경은 어두와 비어두로 구분되는데 어두에서는 음장에 관계없이 저모음 [ɔ]로 실현되며(8ㄱ) 비어두에서는 중모음 [o]로 실현된다(8ㄴ). (9)는 화순어형인데 모든 환경에서 중모음 [o]로 실현된다.

그런데 '오'는 두 지역어에서 모두 음소의 자격을 가지면서도 각각의 모음체계에서 대립하는 양상이 다르다. 첫째, '오'와 '우'가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을 하는 점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이는 <3.2.4 고모음화>에서 후술할 '오>우'의 고모음화에서 확인된다((예) 가운대(가운데), 까투리(까투리) 등). 둘째, '오'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하는 전설모음이 차이를 보인다. 즉 화순어에는 '오'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하는 전설모음 '외'가 존재하나 (원)용천어에서는 이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오'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하는 후설 비원순모음이 차이를 보인다. 화순어에는 '오'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하는 모음이 '어'이다. 이러한 대립관계는 <3.2.1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에서 후술할 '어>오'의 원순모음화에 의해 드러난다((예) 머시매~모시매(男兒)). 그런데 (원)용천어에서는 '오'와의 [±원순성]에 의한 대

립관계를 드러내는 음운과정(통시적이든 공시적이든)을 찾을 수 없어 '오'와 이러한 대립을 이루는 모음인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그 모음이 화순어와 같은 '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 의해 그 모음이 '아'일 것으로 판단한다. ① 화순어의 '외'[ö]가 ㉾용천어의 상승 이중모음 '왜'[wɛ]에 대응된다. 우리는 '웨'[we]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용천어에서 '애'와 '아'가 [±전설성]에 의해 대립함을 감안할 때 '오'는 '아'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② ㉾용천어에서 '어'는 어두 위치에서 중설원순중모음 [ɵ]로 실현된다(㉥ [ɵde](何處), [sɵːm](島)).[40] 따라서 이음으로 원순모음을 가지는 '어'가 원순모음인 '오'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③ 부차적인 증거이기는 하지만 음성적 측면에서 볼 때 ㉾용천어에서 '오'는 혀높이가 '아'에 좀더 가까운 저모음 [ɔ]로 실현된다.[41] 이상에서 언급한 두 지역어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오'의 [+전설성] 대립짝으로 화순어에는 '외'가 존재하나 ㉾용천어에는 이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오'의 [-원순성] 대립짝이 화순어에서는 '어'이나 ㉾용천어에서는 '아'이다.

그런데 우리는 두 지역어의 내적 증거들을 통해 '오'와 관련된 대립에 있어서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용천어에서도 전설원순모음 '외[œ]'가 존재하는 단계가 있었다. 현대 ㉾용천어에는 '쏘인다~쐔다, 고인다~괜다' 등과 같은 쌍형이 존재하는데 'ɔi~wɛ'의 변이는 중간단계로 단모음 [œ]를 인정할 때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화순어에서도 '오'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 양상이 현대 ㉾용천어와 동일한 단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존재한다(10).

(10) 맵쌀(멥쌀) 모서숙(메조)

이들은 중부방언과 같은 '뫼'(粳)를 선대형으로 설정할 때 '매, 모'의 변화가 무리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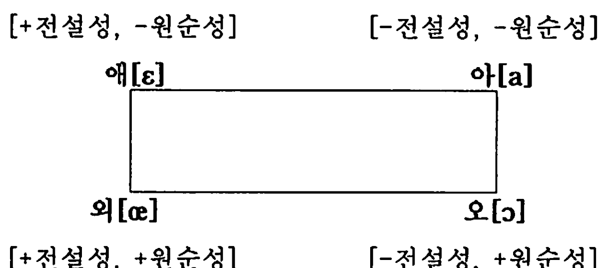
---

40) 비어두 위치에서는 비원순모음 [ə]로 실현된다. ㉥ [kunəŋ](구멍), [yaŋnəm](양념)

41) 이현복(1989:34)에 따르면 평안방언의 '오'는 '아'와 '어'의 중간 높이에서 발음되는데 '아'에 보다 가깝다고 한다.

이 설명될 수 있다. 이때 '뫼>매'의 변화는 단모음 '외'가 양순음 뒤에서 비원순모음화한 것인데 이는 '외'의 [-원순성] 대립짝이 '애'임을 의미한다. 만약 '애'가 아니라 '에'였다면 화순어에서는 '에>이'의 변화에 의해 '*미'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외'와 '애'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 양상은 현대 ㉺용천어에서와 동일하다.

우리는 두 지역어의 대조와 각 지역어의 내적 증거들을 통해서 '오'가 [ɔ]로 실현되어 '아'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하고 '외[œ]'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하는 이전의 단계를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통적인 단계의 '오'와 관련된 체계>

■ ㉺용천어

현대 ㉺용천어에서는 '오'의 [-전설성] 대립짝인 '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하강 이중모음 '외[ɔi]'가 변화한 단모음 '외[œ]'가 상승 이중모음 '왜[wɛ]'로 변화했기 때문이다(11ㄱ). 그리고 이 '왜[wɛ]'는 양순음 뒤에서 'w'가 탈락함으로써 'ɛ'로 실현된다(11ㄴ).

(10) ㄱ. 놰(腦) 돼(升) 좨(罪) 쇄(金)
ㄴ. 배(뵈, 布) 매뚜기{묏도기} 매떵{뫼, 墓}

그런데 이러한 '외>왜'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필자는 ㉺용천어의 모음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3.1.3 'Vi'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후술할 것인데 ㉺용천어에서 '오'의 [-전설성] 대립짝인

'외[œ]'는 이중모음 '외[ɔi]'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이중모음 '위[ui]'는 '위[wi]'로 변화함으로써 '우'는 [-전설성] 대립짝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체계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단모음 '외[œ]'가 상승 이중모음 '왜[wɛ]'로 변화하여 비음운화함으로써 ㊊용천어의 모음체계에서 사라지게 된다.[42)]

■ 화순어

현대 화순어에서는 '오'와 '외'가 각각 중모음 [o]와 [ö]로 실현된다. 위에서 설정한 공통적인 단계와 비교해 볼 때 저모음 '오[ɔ], 외[œ]'가 각각 중모음 '오[o], 외[ö]'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43)]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외'와 '위', '오'와 '우'의 안전간격이 매우 넓다는 점, 즉 중모음의 위치가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외, 오'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전반적으로 화순어의 저모음에 폐구조음원칙(김진우 1971)이 강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화순어에서 일어난 '에>이'의 변화도 '애'의 상승(ɛ>ᴇ)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 지역어의 '아'도 ㊊용천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발음된다.

이러한 'œ>ö, ɔ>o'의 변화는 모음들의 대립관계에 변화를 가져와 '오, 외'는 각각 '어, 에'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하게 된다. 우리는 화순어에서 일어났던 '통합상의 변화', 즉 양순음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를 통해 이러한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12) ㄱ. 깽본(강변) 모시매~머시매(머스마)
ㄴ. 비-{보이-, 被覩}

---

42) 이러한 체계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wi'가 '위[ü]'로 단모음화하는 것인데 화순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43) 이러한 생각은 김완진(1957), 이기문(1969)에서 제기한 '母音推移' 가설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오'는 혀높이가 하강하는데 만약 화순어에도 이와 같은 모음추이가 있었다면 이에 의해 하강했던 모음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은 음운변화에서 타당성을 부여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음추이 가설을 반추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오'의 원순성 대립짝인 '외'의 변화를 통해 'ɔ>o'의 변화를 조심스레 제기하려 한다.

먼저 '오'와 '어'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 관계는 '어>오'의 원순모음화를 통해 확인된다(12ㄱ).44) 다음으로 (12ㄴ)에 제시한 어형은 '외'와 '에'의 대립관계를 드러내 주는 소중한 예이다. '비-'는 '보이->뵈-(단모음화)>베-(비원순모음화)>비-(에>이)'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모음 '외'가 '에'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외'의 [-원순성] 대립짝이 '에[e]'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만약 '외'의 [-원순성] 대립짝이 '애[ɛ]'였다면 '배-'로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모음 '외'가 [œ]에서 [ö]로 변화함으로써 [±원순성]에 의한 대립관계가 '외[œ]—애[ɛ]'에서 '외[ö]—에[e]'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순어에서 '에'가 소실되면서 '외[ö]—에[e]'의 원순성 대립관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외[ö]'는 다시 '애[ᴇ]'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관계를 드러내 주는 예들이 있다(13).

(13) 쐐기~쐬기(蟲) 바꽤깄소~바꾀깄소(바꾸+아+기+었+소)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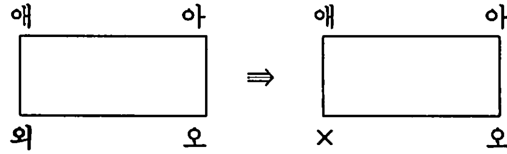
화순어에서 w계 상승 이중모음은 수의적으로 단모음화하는데 (13)에서 보듯이 'wᴇ'는 'ö'로 단모음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ᴇ'와 'ö'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화순어에서 '외'의 [-원순성] 대립짝은 '애[ɛ] ⇒ 에[e] ⇒ 애[ᴇ]'로 바뀌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 모두 '오'와 관련된 대립관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용천어에서는 '오'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이루는 전설원순모음 '외'가 상승 이중모음 '왜'로 변화하면서 비음운화한다. 다음으로 화순어에서는 '오'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이루는 모음이 '아'에서 '어'로 바뀐다. 또한 '외'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이루는 모음이 '애[ɛ] ⇒ 에[e] ⇒ 애[ᴇ]'로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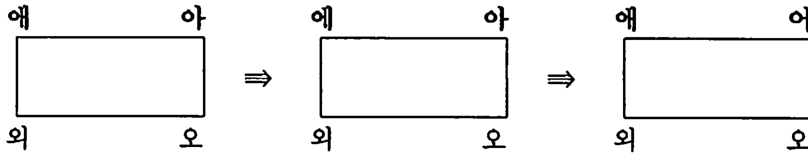
---

44) 중부방언에서도 '오'와 '어'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음은 '오>어'의 비원순모음화를 통해 알 수 있다(이병근 1970ㄴ).

45) 화순어에는 존칭선어말어미로 '-기-'가 존재하는데 역사적으로 앞뒤에 어미 '-어/아'를 필요로 한다(전남방언의 선어말 어미 '-게-'에 대해서는 박양규(1980)을 참조). 그리고 이 '-기-'에 선행하는 어미 '-어/아'는 움라우트를 경험하게 된다.



<원용천어>



<화순어>

3.1.3 'Vi' 이중모음의 변화

중부방언과 마찬가지로 두 지역어 모두에서도 역사적으로 'Vi' 이중모음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내적 증거들이 존재한다.

(14) ㄱ. 아ㅣ : 사이~새(間) 가이~개(犬) 재우-(寢) 채우-(滿)
　ㄴ. 어ㅣ : 서이~셋(三) 너이~넷(四) 데우-(溫) 세우-(立)
　ㄷ. 오ㅣ : 고이-~괘- 쏘이-~쐐- 보이-~배우-(보이-)
　ㄹ. 우ㅣ : 누이-~뉘-(오줌) 쥔(主人)
　ㅁ. 으ㅣ : 키우-(長) 띠우-(浮) 씨우-(冠)[46]

(15) ㄱ. 아ㅣ : 사이~새(間) 재우-(寢) 채우-(滿)
　ㄴ. 어ㅣ : 서이~싯(三) 너이~닛(四) 디-(溫) 시우-(立)
　ㄷ. 오ㅣ : 고이-~괴- 쏘이-~쐬- 비-(보이-)
　ㄹ. 우ㅣ : 누이-~뉘-(오줌) 주인~쥔(主人)
　ㅁ. 으ㅣ : 키우-(長) 띠우-(浮) 씨우-(冠)

---

46) 여기에 제시한 예들이 이중모음 '의'의 존재를 확고하게 증언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어형성 과정에서 각각 '크-(大), 뜨-(浮), 쓰-(冠)'에 접미사 '-이우-'가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모음 '이' 앞에서 '으'가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부방언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중부방언에서는 이 때 '으'가 탈락하지 않고 '이'와 이중모음(킈우-, 띄우-, 씌우-)을 형성한다.

(14)는 ㉿용천어형이고 (15)는 화순어형인데 두 지역어가 비슷한 대응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두 지역어의 전설모음이 '후설모음$이'의 모음충돌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두 지역어에 'Vi' 이중모음이 존재했다는 완벽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후설모음$이'가 이중모음을 형성하지 않고 후행하는 '이'의 영향으로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변화한 다음 이화에 의해 '이'가 탈락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예 사이>*새이>새). 따라서 'Vi' 이중모음이 존재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필자는 다음의 예들이 'Vi' 이중모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증거가 아닌가 한다.

(16) 구신(鬼神) 구찬허-(귀찮-) 모서숙(메조, cf.맵쌀)

(16)에서 '구신'은 두 지역어 모두에서 나타나며 '구찬허-, 모서숙'은 화순어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이'가 탈락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Vi'와 같은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후설모음$이'의 모음충돌에서 '이'가 탈락하는 경우는 두 지역어에서 확인하기 힘들다.[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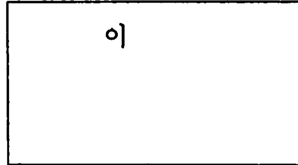
지금까지 두 지역어의 내적 증거들을 통해 두 지역어 모두 역사적으로 'Vi' 이중모음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이제 'Vi' 이중모음이 존재할 당시에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서 '이' 이외의 전설모음이 대립을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적 증거들을 두 지역어 모두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중부방언과의 대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대 두 지역어에 존재하는 전설모음은 중세국어의 다음 모음들에 주로 대응된다.

㉮ 'Vi' 이중모음(ᄋᆡ, 애, 에, 외, 위, 의)
㉯ 상승 이중모음(야, 여, 요, 유, 예, 얘)
㉰ 후에 움라우트가 가능한 환경의 후설모음(아, 어, 오, 우)

우리는 중세국어가 '이'를 제외한 전설모음을 가지고 못하다가 'Vi' 이중모음의 변화

47) 모음충돌에서 '이'는 전설모음에 후행할 때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젤(第一), 낼(來日) 등.

에 의해 현대국어와 같은 전설모음체계가 형성되었음을 안다. 이를 감안하면 'Vi' 이중모음이 존재할 당시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서 전설모음으로 '이'만이 존재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공통적인 단계의 전설모음체계>

이제 두 지역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Vi' 이중모음의 변화를 검토하려 하는데 이에 앞서 먼저 이중모음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을 되씹어 보고자 한다.

이중모음은 음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중모음을 논하기에 앞서 음절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Saussure는 음성을 내파음(implosif)과 외파음(explosif), Grammont은 점약음(phonème décroissant)과 점강음(phonème croissant)으로 나누어 음절 경계가 각각 내파음과 외파음, 점약음과 점강음 사이에 놓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이숭녕(1954ㄱ), 허웅(1985:112) 등을 참조). Jespersen(1926:190)에 따르면, 음절은 한 번의 呼氣壓力(Ausatmungsdruck)으로 발음되는 音群(呼氣音節, Expirationssilbe)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음을 亮度[48](Schallfülle) 또는 공명도(Sonorität)에 따라 8등급[49]으로 나누어 도식화할 때 하나의 頂點(Gipfel)를 중심으로 음절(共鳴音節, Sonoritätssilbe)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Pike(1947:246)

---

48) 이 번역 용어는 이숭녕(1954ㄱ)에 따른 것이다.

49)

① 무성음	a) 파열음:	[p, t, k]
〃	b) 마찰음:	[f, s, ç, x]
② 유성음	파열음:	[b, d, g]
③ 〃	마찰음:	[v, z, ɣ]
④ 〃	a) 비음:	[m, n, ŋ]
〃	b) 측음:	[l]
⑤ 〃	r-음	
⑥ 〃	고모음:	[y, u, i]
⑦ 〃	중모음:	[ø, o, e]
⑧ 〃	저모음:	[ɔ, æ, ɑ]

에서도 '한 번의 흉부-박동과 한 번의 공명 또는 prominence의 정점이 있는 동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절음으로 구성되는 음의 단위'를 음성적 음절이라고 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음성적인 음절은 조음적 특성(흉부-박동 또는 호기압력)과 음향적 특성(공명도)에 의해 정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언어의 음절은 이러한 음성적 음절만으로 규정될 수는 없으며 특정 언어의 구조적인 제약과 관련되는 음절, 즉 음소적 음절도 함께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함을 Pike(1947:246)에서 지적한 바 있다. 허웅(1985:114)에 따르면 영어의 *pay*와 프랑스어의 *pays*는 모음의 발음이 같으나 영어의 *pay*는 한 음절인 반면 프랑스어의 *pays*는 두 음절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는 동일한 음성이라도 음소적 음절은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음성적으로 이중모음은 '동일한 음절 내에 존재하는 다른 두 모음의 연쇄'로 정의된다(Jespersen 1926:207, 이숭녕 1954ㄱ, Catford 1988:115). 음절이 조음적 특성과 음향적 특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의 종류도 이들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음향적 특성(공명도, Sonorität)에 따른 이중모음의 분류(Jespersen 1926:207)
㉠ 下降 二重母音(fallende Diphthonge) : (공명도가 큰) 꼭대기 모음이 다른 모음을 선행하는 이중모음. ㉥ ai, oi, au, aɛ
㉡ 上昇 二重母音(steigende Diphthonge) : (공명도가 큰) 꼭대기 모음이 다른 모음을 후행하는 이중모음. ㉥ ia, ea
㉢ 浮動 二重母音[50](schwebende Diphthonge) : (공명도가 동일한) 두 모음의 연결로 가변적인 평형이 유지되어 어느 모음이 정점 모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중모음. ㉥ ɪə, iu
㉯ 조음적 특성(강세-박동, stress-pulse)에 따른 이중모음의 분류(Catford 1988:116)
㉠ 하강 이중모음(decrescendo or falling diphthong) : 강세-박동이 강하게 시작해서 점차 사라지는 이중모음. ㉥ aĭ, ɔĭ, oʊ̆
㉡ 상승 이중모음(crescendo or rising diphthong) : 강세박동이 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강해지는 이중모음. ㉥ ĭe, ĭɔ, ĭu, ŭɔ

---

50) 이숭녕(1954ㄱ)에서는 '浮動 二重母音' 대신 '橫進 二重母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橫進'보다는 '浮動'이라는 용어가 Jespersen이 사용한 'schwebende'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부동 이중모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음절이 음성적으로만 결정될 수 없다면 이중모음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언어 보편적인 음성적 특징 이외에 특정 언어의 특징—운율적인 특징(길이, 높이, 세기), 음절구조적 특징 등—에 의해 이중모음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숭녕(1949)에서의 "영어의 *tie*가 현대 국어에서는 '타이'로 두 음절을 이루나 중세국어에서는 필연코 이중모음 '태(타+ㅣ)'로 느껴졌을 것"이라는 언급도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중모음은 모음의 음성적 특성(공명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특정 언어의 구조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이중모음에서 어느 모음이 핵음이며 부음인가의 여부는 특정 언어의 구조와 음성적 공명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51)]

이제 눈을 돌려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김완진(1964)에 따르면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 이중모음을 단위음운으로 보는 견해
㉡ 한 음절 내의 두 모음 연쇄로 보는 견해
㉢ 한 음절 내의 반모음과 모음의 연쇄로 보는 견해

여기서 ㉠안은 김완진(1964)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언어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은 ㉡안과 ㉢안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두 견해의 차이는 핵음과 결합한 부음을 음운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중모음 '애'와 '야'의 부음을, ㉡안은 모음 /i/로 보며 ㉢안은 반모음 /y/(또는 /j/)로 보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음성적인 반모음을 음소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완진(1964)에서는 ㉢안을 제1안으로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 국부적으로 ㉡안을 원용한다고 하였다. 이기문(1972)에서도 중세국어의 부음을 /y/로 처리하였는데, 다만 'ᄀᆞᇫ애'의 재구형으로 *'/kʌzgai/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i/>/ay/'의 변화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와 같이 하강 이중모음의 부음을 /y/로 해석하려는 견해가 그동안 학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

---

51) 허웅(1985:115)에 따르면 "영어의 here도 객관적인 소노리티를 보면 [ə]가 클 것이나, … [i]가 성절음이 된다."라고 하였다.

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김종규(1989)에서는 중세국어의 언어사실(모음연쇄의 빈칸, Glide화, Glide삽입, 모음조화 등)을 들어 하강 이중모음을 'Vi'의 모음연쇄(모음군)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창원(1988)에서도 하강 이중모음의 부음을 /i/로 보아 'i계 이중모음'이라고 칭한 바 있다. 이병근(2003)에서는 '올무(올모)'와 '올미'와 같은 방언형으로부터 '*올미[olmʌi]'를 재구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도 두 지역어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하강 이중모음(㉥ '애')의 부음을 /i/로 보려 한다. 두 지역어에서 이중모음이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고 나면 이러한 태도가 정당화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아가 상승 이중모음의 부음도 /i/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세국어의 상승 이중모음을 '반모음-모음'의 연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모음-모음'의 연결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상승 이중모음을 전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모음의 제자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하강 이중모음과 상승 이중모음의 제자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합성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단위문자(再出字)로 제자를 한 것이다. 하지만 김완진(1963)에서는 두 이중모음의 제자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ᅴ, ᆝ'를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다. 만약 그렇다면 문헌어에서도 상승 이중모음은 한 음절 내의 두 모음의 연결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음절 부음 'i'가 양음절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가야지~개야지)도 하강 이중모음과 상승 이중모음의 부음 'i'에 대해 동일한 음운론적 해석을 가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52]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의 "ㅛ與ㅗ同而起於ㅣ"에서 상승 이중모음의 'i'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하강 이중모음과 상승 이중모음의 부음은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i/라고 할지라도 그 음성적 실현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적 차이의 인식이 제자상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그 음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인데 필자는 음성적 길이 차이에 의한 [ɩ](하강 이중모음의 부음)와 [y](상승 이중모음의 부음)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Catford(1988:116)에 따르면 영어의 *high*는 하강 이중모음 [haɩ]이며 *yes*는 '[j(=y)]+V'의 연쇄인 [jes]라고 하여 그 음성적 실현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어와 다른 영어의 예이

52) 화순어에는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는 방증례가 존재하는데 '쉬엄{슈염, 鬚髥}, <u>뒤엄</u>재(두염, 斗斂峙)'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상승 이중모음의 부음 'i'가 선행 음절의 부음이 되어 하강 이중모음을 형성한 것이다.

라서 논증으로 타당할지는 의문이지만 이를 바꾸어 말하면 언어 보편성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필자는 중세국어 또는 국어의 어느 역사적 단계에서 하강 이중모음과 상승 이중모음은 음성적으로 각각 [Vɩ]와 [yV]로 다르게 실현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53)

지금까지 'Vi'를 하강 이중모음이라고 묶어 지칭하였는데 끝으로 이들이 두 부류로 나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국어의 하강 이중모음은 음성적 변이의 결과로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공명도'라는 음성적 특질에 의해 이중모음의 변화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명도에 차이가 생기는 이중모음과 그렇지 못한 이중모음이 음운 변화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Jespersen(1926)의 용어를 빌어 전자를 '하강 이중모음', 후자를 '부동 이중모음'이라 칭하려 한다. '하강 이중모음'은 공명도가 작은 'i'가 부음이 되고 선행하는 모음이 핵음이 될 수 있는 이중모음인 데에 반해, '부동 이중모음'은 두 모음이 공명도가 비슷해 핵음이 될 수 있는 모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 하강 이중모음 : ᄋᆡ 애 에 외
㉯ 부동 이중모음 : 위 의

3.1.3.1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

앞서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 단계에 'Vi' 이중모음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이중모음을 하강 이중모음과 부동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이와 같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 두 지역어에서 'Vi' 이중모음이 변화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우선적으로 하강 이중모음(ᄋᆡ[ʌi], 애[ai], 에[əi], 외[ɔi])의 변화 양상을 살피도록 한다.

---

53) 국어의 이러한 구조 제약에 따라 Jespersen(1926:211)에서 부동 이중모음으로 분류되었던 /iu/도 상승 이중모음 [yu]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원]용천어

● ᄋᆡ[ʌi]

(17) 배{ᄇᆡ} 해{ᄒᆡ} 태우-{ᄐᆡ오-}

중부방언에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ᄋᆞ>아' 이후에 또는 이 변화와 거의 동시에 'ᄋᆡ>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용천어에서도 이러한 과정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어두에서는 'ᄋᆞ'가 '아'로 변화한 후에 '애'의 변화를 따름으로써 'ᄋᆡ'는 거의 예외없이 /ɛ/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17). 'ᄋᆞ>아'와 'ᄋᆡ>애'의 변화가 대부분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건과 분포에 따라 달리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18) ㄱ. 바디{ᄇᆞᄃᆡ} 가시{가ᄉᆡ}
ㄴ. 모구{모ᄀᆡ} 조루{죠ᄅᆡ} 호무{호ᄆᆡ} 나부{나ᄇᆡ} 고부{고ᄇᆡ}
ㄷ. 종애{죠ᄒᆡ} 동애{동ᄒᆡ}
ㄷ'. 잔채{잔ᄎᆡ,잔채} 선배{션ᄇᆡ}

비어두에서는 'ᄋᆡ>의'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의'의 변화를 따라서 '이'로 실현된다(18ㄱ). 이는 비어두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겪은 'ᄋᆞ>으'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양순음 또는 원순모음이 선행하면 원순모음화('ᄋᆡ>외' 또는 '의>위')가 먼저 일어난 후에 뒤이은 변화('외>위>우' 또는 '위>우')를 경험하여 '우'로 실현된다(18ㄴ).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변화에서 벗어나 'ᄋᆡ'가 '애'로 변화한 예들이 존재한다(18ㄷ). 곽충구(1994:298)에 따르면 육진방언에서 'tõe{동ᄒᆡ}, ʧõe{죠ᄒᆡ}, ore{올ᄒᆡ}'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비어두의 'ᄋᆡ'가 '에'로 변화한 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ᄋᆞ>어'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그 이유는 선행음절의 '오' 때문에 'ᄋᆞ>으'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일어난 'ᄋᆞ>어'의 변화물결에 합류한 것으로 보았다.[54] [원]용천어

54) 이를 'ᄋᆡ>의>에'의 변화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김완진(1978)에서는 이를 비판하면서 'ᄋᆡ>에'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어'의 후설모음화에 따른 'ᄋᆞ'의 말기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서도 육진방언과 동일한 변화를 거친 '에'가, 비어두에서 '애'와 '에'의 대립이 약화되면서 '애'로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oss(1877)에서 '紙'가 'jiongê[ʧɔŋe]'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북방언의 보고에 의하면 '종애'(전길성 1939ㄴ), '종왜'(한영순 1956ㄱ), '종외'(최금용 1939), '동왜'(전길성 1939ㄱ)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용천어의 '종애, 동애'가 '종왜, 동왜'의 변화형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55] 필자는 후자의 변화, 즉 'ᄋᆡ'가 'ᄋᆡ>외[ɔi](원순모음화)>외[œ](단모음화)>왜(상승 이중모음화)>애(w탈락)'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 보려 하는데 이때의 원순모음화는 선행음절의 '오'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어형에서 '외'가 비어두에서의 일반적인 변화(외>위)의 변화를 거부하고[56] '외'가 단모음화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음운론적 이유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18ㄷ)의 '잔채, 선배'도 비어두의 'ᄋᆡ'가 '애'로 변화한 것인데 이들에 대한 음운론적인 설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남겨 둔다.[57]

비어두 위치에서 폐음절의 'ᄋᆡ'는 특이한 변화를 한다. 이는 특히 한자어에서 확인되는데 어말모음이 'ᄋᆡ'이고 폐음절인 경우에 '이'가 탈락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 ㄱ. 이승{이#싱, 生} 데승{뎌#싱} 짐승{즘싱}
ㄴ. 낙화성(落花生, 땅콩)
ㄷ. 기상~기생(妓生) 고상~고생(苦生) 동상~동생(同生)

---

55) ㉥용천어에서 비어두 위치의 '외'가 '애'로 변화하는 예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비어두 위치에서 전설원순모음 또는 w계 상승이중모음이 놓이기를 꺼려하는 음소배열 제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모래{모뢰, 後後日}, 부새~부쇄{부쇠}, 부새-{부쇠-, 洗}, 땀때{쏨되} 등.

56)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선행 음절의 '오'가 '오>우'의 고모음화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은 <3.2.4 고모음화>에서 후술할 것이다. ㉮ 도토리, 오소리 등.

57) {잔채}는 문헌어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잔채'를 비어두 변화의 예외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을 듯하다. 즉 '채'가 '채(菜)'와 같은 한자어이거나 복합어의 구성요소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분명히 말하기 어려우므로 비어두 변화의 예외로 처리하여 둔다. 그리고 '선배'는 '배(<ᄇᆡ)'가 결합된 복합어(㉮ 치기배)일 가능성이 높다.

(19)의 예들을 보면 어말의 한자가 모두 '生(싱)'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58] 이 한자가 어두에서는 '생'으로 실현되지만(예 생쌀, 생사람 등)[59] 비어두 폐음절 구조에서는 'ᄋᆡᆼ'의 '이'가 탈락한 것이다.[60] 그리고 '이'가 탈락하고 난 뒤의 'ᄋᆞ'는 '으, 어, 아' 등으로 다양한 변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19ㄷ)의 예들은 쌍형으로 존재하는데 대체로 화자들은 전자를 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 애[ai] 에[əi]

'애'와 '에'의 변화 방향은 거의 일치한다.

(20) ㄱ. 깨{ᄣᆡ, 蘇} 매{ᄆᆡ, 鞭} 때{ᄣᆡ, 時}
　　ㄴ. 새~사이(鳥) 새~사이(間) 개~가이(犬)
(21) ㄱ. 께-{ᄢᅦ-} 테{테, 箍}
　　ㄱ'. 채{체, 篩}
　　ㄴ. 셋~서이(三) 넷~너이(四)

어두에서 '애'와 '에'는 각각 /ɛ/와 /e/로 단모음화하였다(20ㄱ, 21ㄱ). 단, (21ㄱ')의 '채'는 어두에서 '에'가 /ɛ/로 실현되는 거의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0ㄴ)과 (21ㄴ)은 모음충돌을 형성하던 '아-이, 어-이'가 이중모음화한[61] 뒤 단모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원용천어에서 모음충돌형과 쌍형으로 공존하고 있다.[62] 이 때 단모음화한 '애, 에'는 장음으로 실현되는데 이중모음화에 따른 보상적

---

58) 이는 필자의 조사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한자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보이는 예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59) 중부방언를 참고할 때 '상추{싱치}'에 대응하는 예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원용천어에서는 이 단어 대신 '쌈'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김이협(1981)에는 평북방언으로 '생치'가 등재되어 있다.

60) 정승철(1995:90)에 따르면 제주방언에서도 폐음절 구조에서 '이'가 탈락하는 예들이 존재하는데 한자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어두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보인다는 점이 원용천어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몽글-{ᄆᆡᆼ골-}, 몿-{ᄆᆡᆾ-,結}, 묻{ᄆᆡᆮ, 最}, 탕주{ᄐᆡᆼᄌᆞ} 등.

61) 모음충돌 형성하던 예들이 모두 이중모음화한 것은 아니다. '마이(臆), 쓴나이(薺)'는 자음 'ㅇ'이 삽입되어 모음충돌을 방지하였으며 '귀이'(게)는 모음충돌이 그대로 유지된다.

장모음화라고 할 수 있다.

비어두에서도 '애'와 '에'의 변화는 어두에서와 큰 차이가 없다.

(22) 모래{몰개} 강애{ᄀᆞᅀᅢ} 냄새{내옴새} 써레{서흐레}

그런데 다음 문법형태소는 이와 다른 변화를 보인다.

(23) -앗/엇-(과거시제 선어말어미)63)

이 문법형태소는 중부방언을 참고할 때 선대형으로 '-앳/엣-'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어미는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가 탈락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원)용천어만의 특징이 아니라 거의 국어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일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이중모음 변화의 예외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이는 이중모음의 부음으로서 '이'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된 통사적 구성 '-어/아 잇-'에서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탈락시키고 '잇-'의 기능을 'ㅅ-'에 넘겼다고 할 수 있다. 형태소 '잇-'의 일부로서 '이'가 탈락하는 현상은 현대 (원)용천어에도 존재한다. 현대 (원)용천어에 '본동사+어/아 잇-'의 구성이 있는데 그 문법적인 의미는 '동작 결과의 지속'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 '잇-'의 '이'가 매우 활발하게 탈락을 경험하여 탈락형과 유지형이 자유변이하는 경우가 많다((예) 앉아잇는~앉앗는, 서잇구~섯구 등).64) 그 탈락되는 양상이 과거시게 선어말 어미 '-앗/엇-'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65) 따라서 선어말어미 '-앗/엇-'은 음운변화의

---

62) 그런데 '사이(鳥), 가이(犬)' 등은 그 쓰임이 매우 약화되어 화자들이 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63) (원)용천어의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엇/앗-)는 말자음이 'ㅅ'이라는 점에서 중부방언의 '-었/았-'과 차이가 있다. (예) 가서(가+앗+어, 갔어), 가시요(가+앗+이요, 갔어요) 등.

64) 보조용언 '잇-'의 '이'가 모두 탈락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고 잇-'이 '-곳-'으로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탈락은 어느 정도의 문법화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 깊은 논의는 삼가려 한다.

65) 서술격 조사 '-이-'의 탈락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중세국어에서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하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과 결합할 때 탈락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예외적 존재가 아니라 형태소 일부가 모음충돌의 회피를 위해 탈락한 어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용천어의 'ai'와 'əi'는 환경에 관계없이 각각 'ɛ'와 'e'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 외[ɔi]

(24) ㄱ. 놰(腦) 돼(升) 쐐(金) 쇄-(명절) 좨(罪)
　　ㄴ. 배{뵈, 布} 매뚜기(묏도기) 매뗑{뫼, 墓}

어두에서의 '외'는 대부분의 서북방언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왜[wɛ]'로 변화한다(24ㄱ). 그리고 선행하는 자음이 양순음일 때에는 이화에 의해 'w'가 탈락함으로써 '애'로 변화하게 된다(24ㄴ). 그렇다면 이제 하강 이중모음 '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왜[wɛ]'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의주지역어[66]를 반영한 Ross(1877)에서 '외'가 어떻게 전사되었는지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외'는 3가지 정도의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① oi : doiya(化) motdoin(못된) doishi(升) doi(升)
② oe : motdoen(못된) oeghoog(外國) biunoe(邊外) doe(升)
③ we : biunwe(邊外)

위에서 제시한 상이한 표기를 단순히 轉字 표기로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당시의 실현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위의 자료 중에서 'we'로 표기되어 있는 예는 ③에 제시한 한 예밖에 없다. 주로 ①과 ②의 표기가 나타나는데 ②의 표기가 약간 우세하다. 여기서 'oi'는 하강 이중모음 '외[ɔi]'를 표기한 것이고 'we'는 상승 이중모음 '왜[wɛ]'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oe'는 무엇을 전사한 것인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최명옥(1986)에서는 /y/가 선행자음의 유무에 따라 'i'와 'y'로 달리 표기되는 점을 들어 'oe, ooi'의 'o, oo'는 /w/를 표기한

66)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小倉進平(1929)에 따르면 ⓐ용천어와 의주 지역어가 동일한 방언권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oe'의 'o'가 선행자음의 유무에 따라 달리 표기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y/의 경우와 다르다. 또한 /와, 워/를 표기할 때는 'o, oo'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항상 'wa, wu'로 표기(예 wassum(왓슴, 來)<1-13>, hangwun(一卷)<2-9> 등)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 견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표기 'oe'가 상승 이중모음 '왜'를 표기하기 위한 'we'의 異表記가 아니라 단모음을 표기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oe'의 음가는 중모음 [ö]가 아니라 저모음 [œ]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 단모음 '외[œ]'는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했듯이 체계적인 이유로 인해 머지 않아 상승 이중모음 '왜[wɛ]'로 변화하게 된다.

비어두 위치의 '외'는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한다.

(25) ㄱ. 까마구{가마괴} 사우{사회} 파우{바회} 사마구{사마괴} 고루{골회}
ㄴ. 바뀌-{밧괴-} 사귀-{사괴-} 알귀-{알외-, 知}
(26) ㄱ. 모래{모뢰} 부새~부수{부쇠}
ㄴ. 부새-{부쇠-, 洗}

먼저 하강 이중모음 '외'가 부동 이중모음 '위'로 변화하여 '위'의 변화를 따른다(25).[67] 그리고 이 변화에서 벗어난 '외'는 어두에서와 동일한 변화(외[ɔi]>외[œ]>왜[wɛ])를 경험한다(26). 다만 이 경우 '왜'의 'w'는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화순어

● ᄋᆡ

(27) ㄱ. 채수{ᄎᆡ소} 채우-{ᄎᆡ오-} 해{ᄒᆡ} 태우-{ᄐᆡ오-}
ㄴ. 배{ᄇᆡ} 배우-{ᄇᆡ호-} 매-{ᄆᆡ-} 백{ᄇᆡᆨ, 百} 패-{ᄑᆡ-, 發穗}

어두에서 'ᄋᆡ'는 'ᄋᆡ>애'의 변화 후에 /ɛ/로 실현된다(27). 그런데 양순음에 후행하는 'ᄋᆡ'의 변화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화순어에서 양순음 뒤의 단

---

67) 박창원(1988)에서는 '외'에 상이한 두 가지 음가 [oi]와 [wi]가 있다고 추정하여 '외'의 상이한 변화를 설명하려 했지만 '외'가 [wi]로 실현된다는 점이 음성학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모음 ‘ᄋᆞ’는 원순모음화하여 ‘오’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ᄋᆡ’의 ‘ᄋᆞ’도 동일하게 원순모음화하였다면 ‘외’의 변화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7ㄴ)의 예를 보면 양순음 뒤의 ‘ᄋᆡ’는 ‘ᄋᆡ>외’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화순어만을 대상으로 하면 양순음 뒤에서 ‘외’와 ‘ᄋᆡ’가 모두 ‘애’로 변화하기 때문에 ‘ᄋᆡ’의 원순모음화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단모음 ‘ᄋᆞ’가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기타 전남방언을 관찰하면 양순음 뒤의 ‘ᄋᆡ’의 ‘ᄋᆞ’가 ‘아’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에 따르면 ‘에’와 ‘애’가 대립하고 있는 전남방언에서 양순음 뒤의 ‘외’가 지역어에 따라 ‘e’ 또는 ‘ɛ’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ep'ujɛŋi], [p'ɛp'ujɛŋi]{뵈빵이}). 뿐만 아니라 ‘외’가 비원순모음화하지 않고[68] ‘ö’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möt{뫼}). 그만큼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남방언 전체를 보아도 양순음 뒤의 ‘ᄋᆡ’가 ‘애[ɛ]’ 이외의 모음으로 변화한 예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양순음 뒤의 ‘ᄋᆡ’는 원순모음화를 경험하지 않고 ‘애’로 변화한 후 단모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69] 그렇다면 화순어에서 단모음 ‘ᄋᆞ’와 이중모음 ‘ᄋᆡ’는 양순음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ᄋᆞ’는 양순음 아래에서 ‘오’로의 변화를 보이는 반면 이중모음 ‘ᄋᆡ’의 ‘ᄋᆞ’는 그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아’로의 변화를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이중모음을 하나의 단위음운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어의 음운 현상들(㉥ 부텨+이→부톄 등)이 이러한 견해가 부당함을 말해준다. 그보다는 이중모음 ‘ᄋᆡ’의 ‘ᄋᆞ’와 단모음 ‘ᄋᆞ’의 음성적인 차이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즉 후행하는 ‘이’의 영향으로 ‘ᄋᆞ’에 음성적 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완진(1963)에 따르면 전설화된 이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28) ㄱ. 보디{ᄇᆞᄃᆡ} 까시{가ᄉᆡ} 모디{ᄆᆞᄃᆡ} 아그{아ᄒᆡ}
ㄴ. 모구{모ᄀᆡ} 조루{죠ᄅᆡ} 나부{나ᄇᆡ}
ㄷ. 잔채{잔ᄎᆡ, 잔채}

---

68) 양순음 뒤의 ‘외’가 ‘왜’로 변화한 후 ‘w’가 탈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화순어에서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화순어에서 양순음 이외의 자음 뒤에서 ‘외’가 ‘왜’로 실현되는 예가 거의 없으며 도리어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화순어에서는 ‘왜>외’의 변화형들이 존재한다. ㉥ 쐐기~쐬기(蟲) 등.

69) 하지만 경남 김해방언에 ‘비우-{ᄇᆡ호-, 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백두현 1992:151) 화순어에서도 양순음 아래에서 ‘ᄋᆡ’가 원순모음화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비어두 위치의 'ᄋᆡ'는 '의'로 변화한 후 환경에 따라 '이' 또는 '으'로 변화한다(28ㄱ). 다만 원순모음화 환경에서는 'ᄋᆡ>의>위>우' 또는 'ᄋᆡ>외>위>우'의 과정을 거쳐 '우'로 실현된다(28ㄴ).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애'로 변화한 '잔채'가 있는데 ㊎용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음운론적인 예외라고 할 수 있다(28ㄷ).

비어두 위치에서 폐음절의 'ᄋᆡ'가 변화하는 양상은 ㊎용천어와 비슷하다.

(29) ㄱ. 학상(學生) 기상(妓生) 고상(苦生) 옹삭(壅塞) 행삭(行色) 상각(上客)
ㄴ. 저승{뎌#ᄉᆡᆼ} 이승{이#ᄉᆡᆼ} 동승[70]~동상(同生)
ㄷ. 안동떡{-ᄃᆡᆨ, 宅號}

'ᄋᆡ'가 '애'로 단모음화하는 어두에서와는(㉥ 택{ᄐᆡᆨ}, 백{ᄇᆡᆨ}, 쌩-{ᄉᆡᆼ}, 탱자{ᄐᆡᆼᄌᆞ}, 태고{ᄐᆡᆨ호} 등) 달리[71] 비어두에서는 'ᄋᆡ'의 '이'가 탈락하는 예가 다수이다(29). '이'탈락이 일어나고 난 후 'ᄋᆞ'는 '아, 으, 어' 등으로 다양한 변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차이가 무엇에 기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두 지역어에서 이와 같이 폐음절의 'ᄋᆡ'가 '이'탈락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국어의 음절구조제약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기원적으로 고유어의 하강 이중모음(부동 이중모음 포함)이 폐음절에 존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문헌어를 대상으로 하강 이중모음이 폐음절에 존재하는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0) ㄱ. 귓도라미 묏도기 믯그럽- ᄆᆡᆫ ᄆᆡᆼᄀᆞᆯ- 믲- 싄 ᄐᆡᆨ
ㄴ. 싑 뷘 윈 흰/힌 믠/민 멜 ᄇᆡᆸ- ᄆᆡᆸ- ᄉᆡᆸ-
ㄷ. 믯믯/밋밋 ᄇᆡᆨᄇᆡᆨ/빅빅 ᄉᆡᆨᄉᆡᆨ/식식 ᄎᆡᆨᄎᆡᆨ/칙칙 ᄑᆡᆼᄑᆡᆼ/핑핑

이를 보면 많은 어형들이 형태소의 결합과정에서 형성되거나(30ㄴ), 어두음절이 반복되는 의성·의태어이다(30ㄷ). 분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이중모음이 폐음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예들은 (30ㄱ)에 제시한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들도 모두 어두에 한정된다. (30ㄷ)을 제외하면 비

---

70) '동승'은 '동ᄉᆡᆼ>동ᄉᆞᆼ('이'탈락)>동승(ᄋᆞ>으)>동숭(원순모음화)'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71) 만약 '상추'가 'ᄉᆡᆼ치'의 변화형이라면 어두에서 'ᄋᆡ'의 '이'가 탈락하는 유일한 예이다.

어두에서 이러한 음소배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음절구조제약이 화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비어두에서는 더욱 그러하였으리라 본다. 그리하여 비어두에서 '이'탈락을 보이는 예가 다수이고 제주방언의 경우(정승철 1995:90) 어두에까지 이러한 압력이 확대되어 'ᄆᆞᆫ{민}, ᄆᆞᆼ글-{밍ᄀᆞᆯ-}, ᄆᆞᆽ-{ᄆᆡᆽ-}' 등과 같은 어형이 나타났으리라 추정해 본다.

● 애 에

'애'와 '에'의 변화는 ㉰용천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예들은 생략한다. 즉 하강 이중모음 '애, 에'는 어두와 비어두에 상관없이 각각 /ɛ, e/로 단모음화한다. 다만 <3.1.1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순어에서 단모음 '에'는 뒤이어 거의 대부분 '이'로 변화한다.

● 외

(31) ㄱ. 되(升) 쇠(金) 죄(罪) 묏{뫼, 墓}
　ㄴ. 배{뵈, 布} 매떼기{묏도기} 빼뿌쟁이{뵈ᄧᆞᆼ이, 질경이} 맵쌀{뫼ᄡᆞᆯ}
　ㄷ. 모서숙{뫼셔쇽, 메조}

어두에서 '외'는 원칙적으로 단모음화하여 /ö/로 실현된다(31ㄱ). 그런데 선행자음이 양순음일 때에는 이화에 의한 비원순모음화를 경험한다(31ㄴ). 이 때 비원순모음화한 모음이 '애[ᴇ(<ɛ)]'라는 점이 관심을 끈다. 화순어에서 단모음 '외'가 저모음 [œ]인 단계가 있었을 가능성은 앞서 <3.1.2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외[œ]'가 비원순모음화하여 '애[ᴇ]'로 변화한 것이다. (31ㄷ)은 '외'의 '이'가 탈락한 어형이다. 이 한 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후술할 '위>우'의 변화(㉥ 구신(귀신), 두집-(뒤집-), 구찬허-(귀찮-) 등)을 함께 참고할 때 후행음절에 'i, y'가 존재하며 [+전설성] 자음이 개재하는 환경에서 '이'가 탈락하는 것으로 보인다.[72] 후행하는 자음이 [+전설성] 자음이고 그 뒤의 모음 'i, y'도 [+전설성] 모음임

---

72) 필자는 하강 이중모음인 '외'가 '외>오'의 변화를 경험할 있는 환경은 이 경우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동일한 환경의 딴 하강 이중모음 '애, 에'가 이러한 변화를 겪은 예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 표준어의 '가죽나무{개둑나모}'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곽충구(1982)에서는 '이'탈락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grave]

을 감안하면 [+전설성]을 가진 음소 3개가 연달아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모음의 '이'가 탈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일종의 이화인 셈이다.

(32) ㄱ. 까마구{가마괴} 사마구{샤마괴} 사우{사회} 바우{바회}
ㄴ. 알리-{알외-} 배끼-{밧괴-}
ㄴ'. 사구-~새기-{사괴-}

비어두에서 '외'는 체언이든(32ㄱ), 용언이든(32ㄴ) 관계없이 '위'로 변화한 후 '위'의 변화를 따른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용천어와는 달리 이 변화에서 벗어나는 예외들이 화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두 지역어에서 하강 이중모음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두 지역어가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즉 하강 이중모음이 부동 이중모음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어두이든 비어두이든 그 환경에 상관없이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73)

㉮ 이[ʌi] > ai > ɛ
㉯ 애[ai] > ɛ
㉰ 에[əi] > e
㉱ 외[ɔi] > œ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축약이라고 함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자음이 후행할 때라고만 하였는데 이는 범위가 넓어 예외가 존재한다(㉠ 메사니{뫼사리}, 배틀{뵈틀}, 회채리{회초리} 등). 따라서 범위를 좁혀 [-grave] 자음(필자의 용어로는 '[+전설성] 자음') 뒤에 'i, y'가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73) 최전승(1986:225)는 '바호(巖), 거모(蜘)' 등의 예들이 'oy>o'의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 전북방언에 나타나는 '종오, 동오' 등도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전승(1986:224)에서도 'u>o'의 변화 예를 19세기 서남방언(㉠ 친고, 투고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대 서남방언에서도 '화토(花鬪), 꼰토(拳鬪), 봉토(封套), 삼오(三虞)' 등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이들은 어말에서 '우'가 '오'로 변화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호, 거모'의 어말 '오'가 '외>오'(i탈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위>우>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수 있다. 그런데 음운변화가 음성적 점진성을 가진다(Lass 1984:331)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음성적 변이 과정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① 핵음의 음성적 변이에 의한 변화
② 부음 '이'의 음성적 변이에 의한 변화
③ 두 모음 모두의 음성적 변이에 의한 변화

①은 부음 'i'에 의해 핵음이 전설음화하고 이어 부음이 탈락한 변화이다. 그리고 ②는 핵음과 동일한 혀높이로 부음이 실현되고 이어 핵음이 탈락한 변화이다. 김완진(1963)은 하강 이중모음 '에'의 변화를 ③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음절부음적인 -i̯가 음성적으로 [e̯]로 실현되었을 것이 아닌가 想定되며, 그런 경우의 음절주음들도 상당히 전설화된 allophone으로 실현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언어들[74]에서도 -i Diphthong의 단모음화에서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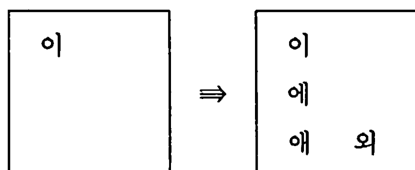
필자도 하강 이중모음의 음절핵음과 부음 'i̯'가 음성적으로 변이함으로써 단모음화가 가능했다는 김완진(1963)의 견해를 따르려 한다. 비록 다른 지역어이기는 하지만 필자가 우연히 청취한 발음 [a̧ɛ̯]가 '애[ai]'의 음성적 변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75] 결국 '애[ai], 에[əi], 외[ɔi]'는 각각 이음 '[a̧ɛ̯], [ə̧e̯], [ɔ̧ɛ̯]'를 거쳐 축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두 지역어에서 하강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하여 전설모음 '애[ɛ], 에[e], 외[œ]'가 형성됨으로써 두 지역어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설모음체계를 갖게 된다.

---

74) 김완진(1963)에서는 그 예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Jespersen(1926:197)에서는 불어 '*joie, roi*'의 'oi'가 이와 같은 변화(oi>oæ>oa>wa)를 경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75) http://www.urisori.co.kr에 따르면 '오행'의 '행'이 [ha̧ɛ̯ŋ]으로 실현된다. 이는 전북 김제군 백산면 하서리의 '상여소리(오행소리)'인데 '상여소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古音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용천어 · 화순어>

3.1.3.2 부동 이중모음의 변화

그동안 학계에서는 부동 이중모음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하강 이중모음에 포함시켜 이중모음의 변화를 고찰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모음 변화의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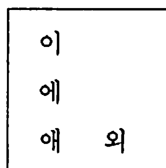
첫째, '외'와 '위'를 한 부류로 묶어 변화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문증되지 않는 '위'의 단모음 /ü/를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유형(㉠ oj>ö, uj>ü, ㉡ oj>we, uj>wi)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데 백두현(1992:109)에서는 동남방언을 반영한 문헌의 연구를 통해 'oj'와 'uj'의 변화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필자에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근(1970ㄱ)에 따르면 중부방언에서도 19세기 후기까지는 '외, 위'의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뒤 '위'보다는 '외'가 앞서 단모음화를 경험하게 된다.

둘째, 하강 이중모음과 마찬가지로 부동 이중모음 '위, 의'의 음절부음도 '이'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ui̯>wi, ɯi̯>i'의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고 궁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절에서는 하강 이중모음(에, 에, 외)과 부동 이중모음(위, 의)의 변화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하강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애, 에, 외'의 '이'가 항상 음절부음이 되지만 부동 이중모음은 '위, 의'의 '이'뿐만 아니라 '우, 으'도 음절부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록 Ⓦ용천어와 화순어만를 대상으로 '위, 의'의 변화를 살피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때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지 않나 한다.

중부방언에서 부동 이중모음의 변화는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보다 뒤에 일어난다.

두 지역어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동일할 것으로 보아 부동 이중모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전설모음 체계로 하강 이중모음 변화의 결과에 의한 체계를 공통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공통적인 전설모음 체계>

■ [원]용천어

● 위[ui]

(33) ㄱ. 귀 뒤 쉬- 쥐-
ㄴ. 빗자루{뷔} 비-{뷔-, 空} 피-{퓌-, 發花}
ㄷ. 구신(鬼神)

어두에서 '위[ui]'는 상승 이중모음 '위[wi]'로 실현된다(33ㄱ).76) 한편 양순음 뒤에서 'wi'는 '양순음+w'의 연쇄를 회피하기 위하여 'w'가 탈락한다(33ㄴ). 일종의 이화인 셈이다. 중부방언의 문헌어는 양순음 아래에서 'ui>ɯi>i'(예 뷔>븨>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데 [원]용천어의 변화 과정은 이와 달리 'ui>wi>i'의 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77) 왜냐하면 Ross(1877)에서도 'booi-[pui-](空), pooi-[p^hui-](發花)'와 같은 어형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대 중국조선어에도 이러한 어형이 사용된다는 보고(한성우 2003)가 있으며 최금용(1939)에서도 '뷔'가 보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용천어에서 'ui>ɯi'의 비원순모음화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ui>wi' 변화 후에 양순음 뒤에서 'w'가 탈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듯하

76) [원]용천어에서 /wi, wɛ/는 [+전설성] 자음(설단음, 설면음) 뒤에서 각각 수의적으로 [ü, œ]로 실현된다.

77) 물론 [원]용천어에서도 양순음 뒤의 '위'가 '의'로 비원순모음화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33ㄷ)은 어두에서 '위'의 '이'가 탈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후술할 화순어의 기제, 즉 후행 음절에 'i, y'가 존재하고 [+전설성] 자음이 개재할 때 이중모음의 '이'가 탈락하는 변화(예 구신(귀신), 두집-(뒤집-), 구찬허-(귀찮-) 등)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해 Ross(1877)에서 '위'가 어떻게 표기되어 나타나는지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위'는 두 가지 표기를 보여준다.

㉮ ooi : sooipda<1-7, 易> dooi<5-3, 後> nooi<9-13, 누구>
jooi<9-19, 鼠> sooin<16-6, 五十>
㉯ wi : gwi<24-5>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위에 제시한 것이 '위'를 표기한 거의 전부인데 대부분 'ooi'로 표기되어 있고(㉮) 한 단어만이 'wi'로 표기되어 있다(㉯). 'ooi'는 이중모음 [ui]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wi'는 표기 그대로 상향 이중모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더 이상 '위'를 표기하는 수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표기를 통해 19C말 의주 지역어에서 '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중모음 [ui]가 상향 이중모음 [wi]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ui]가 단모음화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78] 따라서 ㉯용천어의 변화 과정에서 [wi]의 선행 단계로 단모음 [ü]를 인정할 근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중모음의 변화 과정에서 '외'와 '위'의 변화 방향을 동일시하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외'와 '위'는 음성적으로 성질이 다른 이중모음이며 그 변화 방향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용천어에 존재하는 [wi]는 [ui]가 직접 변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즉 'ui'는 어두에서 'i'가 음절핵음이 되고 'u'가 음절부음이 된다. 이때 음절부음 [u̯]는 반모음 [w]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위'를 /uy/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uy>wi'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 설득력이 약한 주장들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uy>wi'의 변화는 중간 단계로 단모음화 단계를 상정하지 않으면 음

78) 최명옥(1986)에서는 'oj'와 함께 'uj'도 19세기 후기보다 앞선 시기에 단모음화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성적인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다. 즉 반모음이 핵음화([y]>[i])하고 핵음이 반모음화([u]>[w])하는 과정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를 /ui/로 보더라도 하강 이중모음처럼 'i'만이 음절부음이어야 한다면 'ui̯>wi'의 변화 역시 위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위'를 부동 이중모음 /ui/로 해석할 때에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필자는 [ui]>[wi]의 변화가 부동 이중모음의 음성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 이중모음은 꼭 어느 한 모음으로 핵음으로 고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부동 이중모음 '위[ui]'와 '의[ɯi]'에서 'i'가 핵음이 된다면 '우, 으'는 각각 부음 [u̯], [ɯ̯]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음성적인 [w]와 [ɰ]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79)]

비어두 위치에서는 비음운론적 제약(체언과 용언)에 따라 부동 이중모음 '위'가 두 가지의 다른 변화를 경험한다.

(34) ㄱ. 도꾸{돗귀, 斤} 무루{무뤼, 雹} 허우대(허위대)
ㄴ. 까마구 사마구 나구 사우 파우 바쿠 내우 차무
ㄷ. 모구{모기} 나부{나비} 거무{거믜} 몬주{몬지} 호무{호미}

(35) ㄱ. 바꿔- 사귀- 마귀-(맞추-) 알귀-
ㄴ. 버티-{버튀우-} 무디-{무듸/무되-} 비치-{비취-}

체언의 경우는 대개 어말 위치의 환경인데 '이'가 탈락하는 것이 큰 경향이다(34). (34ㄱ)은 기원적인 '위'이고 (34ㄴ)은 '외>위'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며 (34ㄷ)은 '의' 또는 '이'가 원순모음화를 거쳐 '위'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데 용언의 경우에, 특히 어간말의 '위'는 체언과 달리 '이'가 탈락하지 않고 [ui]가 [wi]로 변화하거나(35ㄱ) [i]로 변화한다(35ㄴ). 우연인지는 모르나 전자의 경우는 [-전설성] 자음인 'ㄱ' 뒤의

---

79) 현대 중부방언에 존재하는 '의'의 음성을 흔히 [ɯy]라고 하는데 [ɯ̯i]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허웅(1965:145)에서 "'의'의 발음은 매우 불안정하다. '의정부', '의사'의 첫 음절은 [ㅡ]에 모음점을 두어서 [ïj]로 발음되기도 하고, 또는 [ㅣ]에 모음점을 두어 [ï̯i]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어느편이든, 그 과도(glide)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과도가 잘 두드러지지 않아서, [ïj]는 [ï]로, [ï̯i]는 [i]로 내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 언급을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강진철 외(1996:50)에 따르면 문화어의 '의'도 앞모음 요소의 발음시간은 147.5미리초이며 뒷요소는 평균 267.5미리초로서 뒷요소가 앞요소보다 1.47배 더 길게 발음된다고 한다.

환경이고 후자는 [+전설성] 자음인 'ㄷ, ㅌ, ㅊ' 뒤의 환경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경우 [+전설성] 자음 뒤에서 [ui]의 'u'가 직접 탈락한 것인지, 아니면 [wi]를 거쳐 'w'가 탈락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음성적 점진성을 생각한다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ui]>[u]의 변화를 보이는 체언과는 달리 [ui]가 [wi] 또는 [i]로 변화하는 것은 용언어간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용언어간말의 '이'는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이유로 어간말 [ui]에서 'i'가 핵음화하여 [ui]가 [wi]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부동 이중모음 '위[ui]'는 비어두 위치에서 어느 모음이 핵음화하느냐에 따라 변화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위'가 음성적으로 체언의 경우에는 [ui̯]로, 용언의 경우에는 [u̯i]로 실현되어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겠다.

● 의[ɯi]

우선 어두위치에서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36) ㄱ. 히-{희-} 씨우-(씌우-) 시-{싀-} 띠우-(띄우-)
ㄴ. 게-{긔-}

자음이 선행할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의'가 '이'로 변화한다(4ㄱ). 이는 '으'가 탈락한 것인데 'ɯi>ɯ̯i>ɯi̯>i'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의'의 '이'가 음절핵음으로 된 것으로 어두의 '위'와 그 양상이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듯한 예가 존재한다(36ㄴ). 하지만 '게-'는 '의' 변화의 음운론적 예외라기보다는 모음어미 '-어'가 결합한 활용형 '게'에 이끌린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긔+어→게' 또는 '기+어→게'와 같이 축약된 활용형이 어간형태소로 굳어지지 않았나 하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37) ㄱ. 이복(衣服) 이미(意味) 이문(疑問) 이연(醫院) 이붓아들(義父)
ㄴ. 으주(義州) 으심(疑心) 으지(依支)

선행하는 자음이 없이 어두에 '의'가 위치할 때에는 2가지 방향의 변화를 수행한다. 즉 단어에 따라 /ɯi/의 'ɯ'가 탈락하기도 하고(37ㄱ) 아니면 'i'가 탈락하기도 한

다(37ㄴ). 그런데 후자에 비해 전자가 주된 경향인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80] 이렇게 '의'가 '으' 또는 '이'로 분화되는 현상이 바로 부동 이중모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으'와 '이'로의 실현은 둘 사이의 음운론적 교체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의/를 재구하여 분기로서 설명할 수 있게도 해 준다.

따라서 어두에서 '의'는 '으'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가 /ɯy/가 아니라 /ɯi/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ɯi/는 /ui/와 마찬가지로 어두에서 /i/가 핵음화하여 음성적으로 [ɰi]로 실현되고 이어서 [ɰ]가 탈락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물론 점진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해석이다.

(38) ㄱ. 가시{가ᄉᆡ} 마디{마ᄃᆡ} 바디{ᄇᆞᄃᆡ} 공끼(空器) 여기{이어긔}
　　ㄴ. 아:{아희} 너:{너희} 저:{저희}
(39) ㄱ. 이기-{이긔-} 디키-{디킈-} 겐디-{견듸-} 부시-{브싀-} 디디-{드듸-}
　　ㄱ'. 땡기-~당기-~대-(ᄃᆞᆼ긔-)
　　ㄴ. 뭉개-{뭉긔/ᄆᆞᆼ긔-} 쪼개-{ᄧᅩ긔-}

비어두 위치에서 체언의 경우 '의'는 '이'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8ㄱ).[81] 이들은 어두에서와 마찬가지로 '으'가 탈락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어두에서도 '의'의 '으'가 음절부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점이 '위'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체언어간말 '위'는 '우'가 음절핵음이 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와 '으'의 음운론적 강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가 '으'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큰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38ㄴ)은 '의'가 특이한 변화를 보이는 예들이다. 이들은 '으'와

---

80) 한영순(1956ㄱ)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한자음에서는 [ɯ]로 되고 비교적 새로운 한자음에서는 [i]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어두와 비어두 '의'를 섞어서 논의했기 때문에 논의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81) (원)용천어의 자연발화에서 그 쓰임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의'가 '에'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두께(둗긔), 무게{므긔}'와 같은 예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의'가 직접 '에'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두꺼이, 무거이'의 반사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김이협(1981)에 따르면 평안북도에 '두꺼이, 무거이'가 사용되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어형은 {둗긔, 므긔}가 음운변화를 거쳐 변화한 것이 아니라 '두껍-, 무겁-'의 간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가 모두 탈락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장모음화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한 음운론적 이유를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외로 남겨둔다. 용언의 경우에도 ‘의’는 ‘이’로 변화한다(39ㄴ). 그리고 이때의 ‘이’가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되기도 한다(39ㄱ’). 그런데 ‘의’가 ‘애’로 변화한 듯한 예들이 소수 존재한다(39ㄴ). 그러나 이는 ‘의’가 아니라 ‘ᄋᆡ’의 변화형일 가능성이 높다. 선행음절에 ‘오’가 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말해준다.[82] 결국 비어두 위치의 ‘의’는 체언과 용언에 관계없이 ‘이’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비어두 위치에서 ‘의’의 ‘으’와 ‘이’ 중에서 ‘이’가 음운론적 강도가 큰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강도를 고려해야 이로부터 부동 이중모음인 ‘의’를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 화순어

● 위

(40) ㄱ. 귀(耳) 뒤(後) 쉬-(休) 쥐-(握)
ㄴ. 빗지락(掃) 비-(空) 피-(發花)
ㄷ. 구신(귀신) 두지~뒤주(뒤지) 두지-~ 뒤-(뒤지-) 두집-(뒤집-) 구찬허-(귀찮-)

어두에서 ‘위’는 단모음 [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40ㄱ). 단 선행하는 자음이 양순음일 때에는 [i]로 변화한다(40ㄴ). 이것은 [+원순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이화이다. 또한 후행음절에 ‘i, y’가 존재하고 개재자음이 [+전설성] 자음일 때 ‘이’가 탈락하기도 한다(40ㄷ). 이것도 또한 [+전설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이화라고 할 수 있다.

화순어의 [ü]는 [ui]가 직접 단모음화하여 변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전승(1986)은 서남방언을 반영한 문헌의 여러 음운 현상을 검토한 결과 [uy](필자의 견해로는 [ui])가 직접 단모음화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

---

82) 각각 {몽ᄀᆡ-, *ᄶᅩᄀᆡ-}의 ‘ᄋᆡ’가 ‘ᄋᆡ>외(원순모음화)>œ(단모음화)>wɛ(상승 이중모음화)>ɛ(w탈락)’의 과정을 거쳐 ‘*몽개-, 쪼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뭉개-’는 ‘*몽개-’의 간섭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만일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뭉기-, 쪼기-’ 정도의 어형이 기대되는데 실제로 중부방언에서 이들 어형이 쓰인다는 보고(이광호 1977)도 있다.

리하여 현대 서남방언에 나타나는 [ü]는 [wi]가 변화한 것으로 본 바 있다. 다른 방언들과의 비교도 이러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백두현(1992)에서도 동남방언의 '위'의 변화 과정에 단모음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용천어의 변화에서도 '위'가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단계는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하강 이중모음(애, 에, 외)처럼 '위'가 [ü]로 직접 단모음화한 것이 아니라 '[ui]>[wi]>[ü]'의 과정을 거쳐 변화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사실 화순어에서 [wi]>[ü]의 축약은 매우 활발하여 부동 이중모음 '위'가 변화한 [wi]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웨[we]'가 '에>이'에 의해 변화한 '위[wi]'도 단모음 '위[ü]'로 실현된다(41ㄱ).

(41) ㄱ. 귀짝{궤, 櫃} 뀌-{<꿰-<뻬-, 貫} 윈수{<웬수<원슈, 怨讐}
　　ㄴ. 꾀{<꽤<뽸} 쐬기(<쐐기, 暫) 썩회깄소(<썩홰깄소, 썩후+아+기+었+소)

또한 [wi]>[ü]의 변화와 더불어 [wᴇ]>[ö]의 변화도 꽤 활발하여, 비록 수의적이기는 하지만 '왜'가 '외'로 실현되는 예들도 다수 발견된다(41ㄴ). 최전승(1986)에 따르면 19세기 서남방언을 반영한 문헌에서도 [we]>[ö]의 변화를 반영하는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㉑ 초췌~초최(憔悴), 꿰-~꾀-(貫), 웬~왼(何) 등). 이와 같이 '위, 왜'의 단모음화 현상이 화순어에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남을 볼 때 부동 이중모음 '위[ui]'는 상승 이중모음 '위[wi]'로 변화한 후 단모음 '위[ü]'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비어두 위치에서는 비음운론적 제약(체언과 용언)에 따라 부동 이중모음 '위'가 두 가지의 다른 변화를 경험한다.

(42) ㄱ. 멀구{멀위} 머구{머회} 더우{더위} 허우대(허위대)
　　ㄴ. 까마구 사마구 나구 사우 바우
　　ㄷ. 모구 나부 거무
　　ㄹ. 뿌리~뿌랭이{불휘} 도치{도최} 고리{골회} 모리{모뢰}
(43) 배끼-{바꿔-} 사구-~새기-{사괴-} 버티-{버튀우-} 비치-{비취-} 무디-{무뒤-}

체언의 경우에는 이중모음 '위'가 '이'탈락을 경험하여 '우'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2ㄱ). 이 때 '위'는 '외'가 고모음화(외>위)하여 형성되기도 하고(42ㄴ) '이' 나 '의'가 원순모음화를 거쳐 형성되기도 한다(42ㄷ). 그런데 '위, 외'는 각각 선행음

절에 원순모음 '우, 오'가 존재할 때 '의'로 비원순모음화하고 이어서 '이'로 변화한다(42ㄹ). 이처럼 '위'가 대체로 '우'로 변화하는 체언과는 달리, 용언의 경우에는(특히 어간말에서) '위'가 '이'로 변화한다(43). 이는 ㉰용천어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데 [ui]>[wi]를 경험한 후 [w]가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가 탈락한 '사구-'와 같은 어형도 존재한다. 그리고 '위'가 변화한 '이'는 움라우트(㉮ 배끼-, 새기-)의 동화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고 하겠다.

● 의

(44) 히-{희-} 시-{싀-} 기-{긔-} 씨우-(씌우-) 띠우-(띄우-)
(45) ㄱ. 이자(倚子) 이복(衣服)
ㄴ. 으논(議論) 으심(疑心) 으사(醫師) 으붓아들(義父) 으지(依支)

어두에서 '의'의 변화 방향은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것인데 선행자음의 유무에 따라 탈락하는 모음이 다르다.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으'가 탈락하여 '이'로 실현된다(44). 그러나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으'가 탈락하기도 하고(45ㄱ) '이'가 탈락하기도 하는데(45ㄴ) 후자의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전승(1986:225)에서도 19세기 서남방언에서 선행자음이 없는 어두음절에서는 주로 '이'가 탈락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으관(衣冠), 으심(疑心), 으논(議論), 으혹(疑惑), 으외(意外), 으지(依支), 으탁(依託) 등).

비어두 위치에서는 비음운론적 제약(체언과 용언)에 따라 부동 이중모음 '의'가 두 가지의 다른 변화를 경험한다.

(46) 거무{거믜} 무누{무늬}
(47) ㄱ. 까시 보디 모디{ᄆᆞ듸} 까지{가지, 鰲} 문지{몬지} 소리{소릐}
ㄴ. 뿌리{불휘} 도치{돗귀} 고리{골회} 모리{모뢰} 느리{무뤼}
(48) 아그 느그 즈그 여그 거그 쩌그 사그(砂器)

체언의 경우 형태소 내부의 '의'는 비교적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먼저 원순모음화(의>위)가 선행하면 '의'는 '위'의 변화를 따라 '우'로 변화한다(46). 그러나 원순모음화에서 벗어난 '의'는 두 방향의 변화를 하게 된다. 첫째, '의'가 '이'로 변화한다(47). (47ㄱ)은 'ᄋᆡ>의>이'의 변화를, (47ㄴ)은 비원순모음화에 따른 '위(외)>의>이'

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둘째, '의'가 '으'로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48). 부동 이중모음 '의'의 이러한 변화 차이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순모음화를 유발하는 양순음까지 포함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의>위>우 : 양순음 ([-전설성 +전부성])
㉯ 의>으 : 연구개음, 후음 ([-전설성 -전부성])
㉰ 의>이 : 기타 자음 ([+전설성])

결국 비어두의 '의'는 선행하는 자음이 [+전설성] 자음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뉘어 그 변화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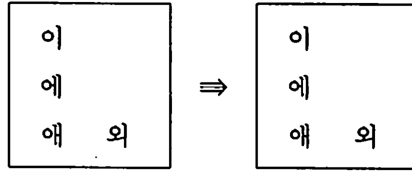
(49) ㄱ. 이기-{이긔-} 지키-{디킈-} 전디-{견듸-} 디디-{드듸-} 더디-{더듸-}
ㄱ'. 땡기-~당그-{ᄃᆞᇰ기-}
ㄴ. 뭉개-{뭉긔/ᄆᆞᇰ기-} 쪼개-{쏘긔-}

용언어간말에서는 '의'의 '으'가 탈락하여 '이'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9ㄱ).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이중모음 '위'가 변화한 '이'와 같이, '의'가 변화한 모음 '이'도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될 수 있다(49ㄱ'). 그러나 단어에 따라서는 '애'로의 변화를 보이는 예들이 존재하는데(49ㄴ) 이는 ㉯용천어에서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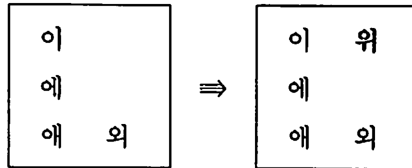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부동 이중모음 '위[ui], 의[ɯi]'는 두 지역어에서 각각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두 모음 중 어느 모음이 핵음이 되는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즉 'i'가 핵음이 되면 ㉠과 같은 변화를, '우, 으'가 핵음이 되면 ㉡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

㉮ 위[ui] > ㉠ wi, ㉡ u
㉯ 의[ɯi] > ㉠ i, ㉡ ɯ

이러한 변화를 볼 때 부동 이중모음의 직접적인 변화는 모음체계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wi/가 뒤이어 /ü/로 단모음화함으로써 모음체계에 변화가 생기며 이로 인해 ㉯용천어의 전설모음체계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원용천어>



<화순어>

3.1.4 'ᄋᆞ'의 변화

두 지역어의 대조에 의해서 두 지역어 모두 역사적으로 'ᄋᆞ'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 ㄱ. 바디 팔 팟(小豆) 빨-(吸) 마디
　　ㄱ'. 말~몰(村)[83] 뽓-(碎)
　　ㄴ. 보디 폴 폿 뽈- 모디 모실 뽀숙-

(50ㄱ)은 원용천어형이고 (50ㄴ)은 화순어형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원용천어의 '아'가 주로 화순어의 '오'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화순어의 '오'가 원용천어의 '오'에 대응되는 소수의 예들이 있기도 하다(50ㄱ'). 그런데 이러한 대응은 양순음에 후행하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이다. ① 양순음 아래에서 화순어의 '아'가 '오'로 바뀌는 변화, ② 양순음 아래에서 원용천어의 '오'가 '아'로

---

83) '몰'은 '데몰(저 마을), 웃몰(윗 마을), 아랫몰(아랫 마을)'에 한정되며 주로 '말'이 사용된다.

바뀌는 변화, ③ 양순음 아래에서 제3의 음소가 화순어에서는 '오'로, [원]용천어에서는 '아'로 바뀌는 변화 등이 그것이다.

(51) ㄱ. 마늘 마당 마시- 밤 발 밥 빠리-(速) 파
　　 ㄴ. 모낭(모양) 모구(蚊) 모루-(不知) 보-(視) 볼 보리 폭(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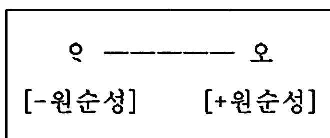
그런데 ①과 ②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51ㄱ)은 화순어형, (51ㄴ)은 [원]용천어형의 일부만 제시한 것인데 이를 통해 ①과 ②에서 벗어난 예들이 두 지역어에 너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③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는데 이들은 모두 문헌어에 'ᄋᆞ'로 표기된다. 따라서 두 지역어에서도 'ᄋᆞ'가 음소로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예들은 더 존재한다.

(52) 달큰허-∽들큰허-(甘) 살살∽슬슬 따따허-∽뜨뜨허-(暖)

(52)는 [원]용천어형인데 화순어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음성상징과 관련된 어형들인데 '아'와 '으'가 상징대립을 하고 있다. 두 지역어에서 '아'는 일반적으로 '어'와 상징대립을 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52)의 '아'는 '으'와 상징대립을 이루던 모음이 변화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의 '아'도 문헌어에 모두 'ᄋᆞ'로 표기된다.

두 지역어의 대조와 내적 증거들을 통해[84] 두 지역어가 역사적으로 'ᄋᆞ'를 가지는 단계가 공통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순어에서 양순음에 후행하는 'ᄋᆞ'가 '오'로 변화하고 [원]용천어에도 이러한 예들이 소수 존재한다는 것은 'ᄋᆞ'가 '오'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공통적인 단계의 'ᄋᆞ'>

84) 최명옥(1987)에서는 모음조화의 파괴를 보이는 예들의 검토를 통해 의주지역어에서 'ᄋᆞ'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제 두 지역어에서 'ㆍ'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중부방언의 'ㆍ' 변화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려 한다. 'ㆍ'는 제1단계 비어두 변화(ㆍ>으)와 제2단계 어두 변화(ㆍ>아)를 거치면서 모음체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이숭녕 1940, 이기문 1972). 하지만 이러한 두 단계의 변화로 'ㆍ'의 변화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말기적 증상으로 'ㆍ>어'의 변화를 겪어 'ㆍ'가 소실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김완진 1978). 'ㆍ>어' 변화의 예들이 주로 18세기 후기 문헌들에서 보여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곽충구 1980:83). 또한 이병근(2000)은 이미 15세기에도 어두에서 'ㆍ'가 '아'로 표기되는 예가 존재함을 논한 바 있다. 송민(1986:135)에서는 'ㆍ>아'의 확산과정을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였는데 'ㅎ,ㄱ,ㅂ,ㅍ⇒ㄷ,ㅌ,ㄹ⇒ㅅ,ㅈ,ㅊ,⇒ㅁ⇒ㄴ'의 순서대로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하였다.[85] 그리고 'ㆍ'의 소실 시기에 대해서는 18세기 중엽 이후로 보려는 견해(전광현 1971, 이기문 1972, 허웅 1975), 18세기초로 보려는 견해(김완진 1963, 곽충구 1980), 17세기까지 소급하려는 견해(이숭녕 1977) 등이 있다.

■ 원용천어

어두에서의 'ㆍ'는 '아'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화의 예는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예만 제시한다.

(53) 갈{ᄀᆞ술} 달{ᄃᆞᆰ} 짜-{ᄧᆞ-, 鹹}

그런데 이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존재한다.

(54) ㄱ. 뽓-~뽀-{ᄇᆞᅀᆞ-} 몰~말{ᄆᆞ술}
ㄴ. 소매{ᄉᆞ매} 놈{ᄂᆞᆷ, 他} 노누-{ᄂᆞᆫ호-} 도투-~다투-{ᄃᆞ토-}

먼저 'ㆍ'가 '오'로 변화한 예들이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54ㄱ)의 예들이 양

---

85) 현우종(1988)에 따르면 제주방언의 'ㆍ'가 두음의 종류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데 이것이 'ㆍ>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순음에 후행하여 'ᄋᆞ'가 '오'로 발달한 전부이다. 이러한 변화가 화순어에서는 매우 일반적인데 어떤 이유로 (원)용천어에서 이들만이 'ᄋᆞ>오'의 변화를 경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54ㄴ)의 예들은 'ᄋᆞ'에 양순음 또는 원순모음이 후행하는 경우인데(54ㄴ) 이 환경이 'ᄋᆞ>오'의 동화주가 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너무 많은 예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병근(1967ㄱ)에서는 문헌에 {논ᄒᆞ-}과 표기가 나타남을 들어 이를 음운 도치로 본 바 있다. 필자로서는 'ᄋᆞ>오'의 변화를 보이는 예들의 음운론적 환경을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아 예외로 남겨 둔다.

(55) 흙{ᄒᆞᆰ} 그늘{ᄀᆞᄂᆞᆯ}

(55)는 'ᄋᆞ'가 '으'로 변화한 것인데 이 예들이 전부인 듯하다. 이는 국어의 많은 방언들에서 공통적인 현상인바[86] 중부방언의 문헌어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보인다. 김완진(1978)에서는 'ᄋᆞ'의 변화를 시기의 문제로 보아 비어두 'ᄋᆞ'의 변화(ᄋᆞ>으)가 활발한 시기에 어두의 'ᄋᆞ'가 이 변화에 휩쓸린 것으로 본 바 있다.

(56) 허-~하-{ᄒᆞ-} 걷-~같-{ᄀᆞᆮᄒᆞ-} 꺼지~꺼정~까지{ᄭᆞ지}[87]

(56)의 예들은 'ᄋᆞ'가 '어'로 변화한 것이다.[88] 이는 음소로서의 'ᄋᆞ'가 소멸되는 말기적 증상으로도 볼 수 있다(김완진 1978).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ᄋᆞ>어'의 변화가 순수하게 어두변화(ᄋᆞ>아)의 예외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56)의 예들이 하나의 형태소이지만 주로 비어두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물론 '허-'는 예외일 수 있다. 어두에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빈도 면에서 접미사로서 사용되는 '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북방언의 '같-'과 '걷-'에 대해서는 김이협(1981:32)에 그 쓰임의 차이가 언급되어 있다.[89]

---

86) 함북 육진 지역어에는 '홁'으로 실현되기도 한다(이승녕 1967, 곽충구 1994).

87) 이 때 '까지'의 사용은 그리 흔하지 않다.

88) 중부방언에서 'ᄋᆞ>어'의 변화를 보이는 '벌써{ᄇᆞᆯ셔}'는 (원)용천어에서 '발쎄'로 나타난다. 또한 '못쓰게 되다'의 의미로 쓰이는 '버리-'는 (원)용천어에서 '배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ᄋᆞ'가 '아'로 변화하여 움라우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부방언의 '턱{ᄐᆞᆨ}'도 '탁'으로 쓰인다.

겉다(형) 【全域】 *같다. 유사하다. ★뒷 모습이 형님 겉다 / 불빛이 대낮 겉다 / 날씨가 봄 겉구나
(참) '겉다'는 '같다'와 같은 뜻의 말이지만, 활용에 있어서 '똑 겉다', '겉어요', '이와 겉은 값이면' 등으로 발음하지 않음.

이러한 차이는 필자의 조사에서도 확인된바 '겉-'과 '같-'의 용법 차이는 분명하다. 즉 '겉-'는 어두에서 사용되기가 힘들다.[90] 또한 '까지'의 쓰임이 흔하지 않는 이유도 어두에 놓이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결국 'ᆞ>어'의 변화는 어두변화의 예외로 볼 것이 아니라 비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비어두 변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91] 그렇다면 (56)에서 '하-, 같-'는 어두 변화형이며 '허-, 겉-, 꺼지'는 비어두 변화형으로 모두 (원)용천어 고유의 변화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57)의 예들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57) 덜~들{ᄃᆞᆯㅎ, 等} 껏~끗{ᄭᆞᆺ장} 절{ᄌᆞᅀᆞ, 核}[92] 벌~불{ᄇᆞᆯ, 件}

비어두 위치에서는 'ᆞ'가 대부분 'ᅳ'로 변화한다(58ㄱ).

(58) ㄱ. 바늘{바ᄂᆞᆯ} 야뜰~야듧{여ᄃᆞᆲ} 아들{아ᄃᆞᆯ}
ㄴ. 바람{ᄇᆞᄅᆞᆷ} 사람{사ᄅᆞᆷ} 나가내{나ᄀᆞ내} 따따허-{ᄃᆞᆺᄃᆞᆺᄒᆞ-}

그런데 비어두의 'ᆞ'가 '아'로 변화하는 예들도 소수 존재한다(58ㄴ). 이들은 선행음절에 '아'가 위치한다는 점이 공통적인 것으로 보아 이 '아'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부방언에서도 이러한 예들은 존재하는데 이들을 동화 작용의 산물이라고 보기도 하며(이기문 1959, 이숭녕 1960) 'ᆞ'변화에서의 시기적인 문제로 보기도 한다(김완진 1957).

---

89) 이기문(1984)에서도 이러한 차이의 지적이 매우 정확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90) '겉이'와 '같이'도 그 용법이 다르다. '겉이'는 표준어의 조사에 해당하며 '같이'는 부사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겉이'는 어두에 사용되기 힘든 것이다.

91) 형태소 내부의 비어두에서 'ᆞ'가 '어'로 변화한 예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부방언의 '다섯, 여섯, 여덟'은 (원)용천어에서 각각 '다숫, 여숫, 야뜰~야듧'으로 나타난다.

92) '힌절(흰자위), 검덩절(검은자위), 노랑절(노른자위)'과 같이 쓰인다.

■ 화순어

(59) 가실{ᄀᆞᄉᆞᆯ} 닥{ᄃᆞᆰ} 짜-{ᄧᆞ-}
(60) ㄱ. 퐅쎄{ᄇᆞᆯ셔} 모실{ᄆᆞᄉᆞᆯ} 포리{ᄑᆞᆯ} 폴{ᄇᆞᆶ, 臂} 뽈-{ᄲᆞᆯ-, 洗}
　ㄱ'. 맘{ᄆᆞᅀᆞᆷ} 마지막{ᄆᆞᄌᆞ막} 말-{ᄆᆞᆯ-, 調} 바람{ᄇᆞᄅᆞᆷ} 빨래[93] 바래-{ᄇᆞ라-}[94]
　ㄴ. 소매{ᄉᆞ매} 놈~넘{ᄂᆞᆷ, 他} 노물~너물{ᄂᆞᄆᆞᆯ}

어두에서 'ᄋᆞ'는 '아'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9). 다만 선행자음이 양순음일 때 'ᄋᆞ'는 '오'로 변화한다(60ㄱ). 전남방언의 'ᄋᆞ'가 양순음 아래에서 '오'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小倉進平(1944)에서 지적한 이래 국어 방언 연구의 큰 주제가 되어 왔다. 화순어도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 많은 단어들에서 양순음 아래의 'ᄋᆞ'가 '오'로 변화하였다. 이는 'ᄋᆞ>아'의 변화에 앞서 'ᄋᆞ'의 원순모음화가 먼저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소수 존재한다(60ㄱ'). 이들은 양순음 아래의 'ᄋᆞ'가 '아'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음운변화의 예외인지, 아니면 방언 차용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양순음이 후행할 때에도 'ᄋᆞ'가 '오'로 변화하는 예들이 있기는 하나(60ㄴ) 그 예가 너무 적고 산발적이어서 후행하는 양순음이 동화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화순어에서는 '놈, 노물'과 더불어 '넘, 너물'이 쌍형으로 존재하는데 '오'와 '어' 중에 어느 모음이 'ᄋᆞ'의 직접적인 변화형인지도 확실치 않다('남(他)'의 분포지도는 김창섭(1997)을 참고).

이러한 어두의 일반적인 변화에서 벗어나 'ᄋᆞ'가 산발적인 변화를 하기도 한다.

(61) 혹{ᄒᆞᆰ} 그늘{ᄀᆞᄂᆞᆯ}
(62) ㄱ. 허-{ᄒᆞ-} 벌써{ᄇᆞᆯ셔}
　ㄴ. 비리-{<베리-, ᄇᆞ리-}[95] 디꼬{ᄃᆞ리고, 率} 널어지-{˙ᄂᆞᆯ-, 降}[96]

---

93) '빨래'는 표준어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화순어에서는 주로 '서답'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94) 화순어의 '보랏고'는 {ᄇᆞ라-}의 'ᄋᆞ'가 '오'로 변화한 어형이다. 이 '보랏고'는 'ᄇᆞ라보고'가 줄어든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보라-'는 이 단어에서만 사용되며 그 이외에는 '바래-'가 사용된다.

95) '비리-'는 '못쓰게 되다'의 의미이며 '내 던지다'의 의미로는 '내뿔-'이 쓰인다.

96) 화순어에는 '널어지-'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떨어지-'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한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떨어지-'는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아래로 내

(61)의 예들은 'ᄋᆞ'가 '으'로 변화한 것인데 이것이 화순어만의 특징은 아니다. (62)의 예들은 'ᄋᆞ>어'의 변화로 추정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62ㄱ)의 예들은 화순어 고유의 변화라기보다는 방언차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허-'는 전남북부 지역어에서 쓰이는데(이기갑 1986) 전북방언, 충남 서해안 지역을 거쳐(김창섭 1997) 더 나아가 중부 방언까지 이어져 사용된다. 또한 '벌써'도 화순어에 '폴쎄'가 쓰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방언차용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97] 그리고 (62ㄴ)의 '비리-'는 'ᄇᆞ리-'의 변화형 '베리-'의 '에'가 '이'로 변화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 때 'ᄇᆞ리-'와 '베리-'의 중간 변화형으로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일견 'ᄇᆞ리-'의 'ᄋᆞ'가 중부방언처럼 '어'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ᄇᆞ리->보리-(원순모음화)>뵈리-(움라우트)>베리-(비원순모음화)>비리-(에>이)'의 과정을 상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98] 하지만 이 중에 어느 것이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외로 해 둔다. 그런데 '디꼬, 널어지-'는 'ᄋᆞ'가 '어'로 변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필자는 어떠한 음운론적 이유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비어두에서는 'ᄋᆞ'가 대부분 '으'로 변화한다(63ㄱ).

(63) ㄱ. 아들 마늘 하늘 까득(가득) 가늘- 오늘
ㄱ'. 가지런허-(整) 모실(村) 가실(秋)
ㄴ. 바람 사람 야달(八)
ㄷ. 다섯 여섯

그리고 (63ㄱ')은 'ᄋᆞ>으'의 변화 후에 'ᄋᆞ>으' 전설모음화를 경험한 예들이다. 그런데 비어두에서 'ᄋᆞ'가 '아'로 변화한 예가 소수 존재한다(63ㄴ). 이들은 ㉯용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음절에 '아'가 위치한다. 최전승(1986)에 따르면 19세기 후기 서

려오다.'라는 의미이며 '널어지-'는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 물건이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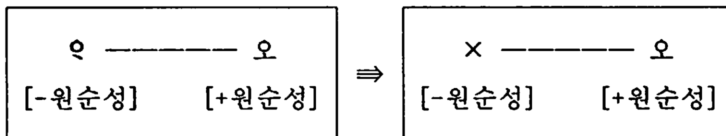
97) '벌써'와 '폴쎄'는 모두 {ᄇᆞᆯ셔}의 변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쓰이는 상황이 다르다.
㉠ 폴쎄 갔다. (이미 오래 전에)
㉡ 벌써 갔냐?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

98) 화순어의 '비:-(보이-)'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이다.

남방언에서 ‘ㆍ>아’의 변화가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는데 현대 화순어에 이러한 변화형이 그리 많지는 않다. (63ㄷ)은 ‘ㆍ’가 ‘어’로 변화한 것인데 이숭녕(1940)에서는 ‘여ᄉᆞᆺ’의 ‘ㆍ’가 선행음절의 ‘어’에 동화된 것이며 ‘다섯’은 이에 이끌린 것이라 하였다.

이제 두 지역어에서 ‘ㆍ’가 변화한 양상을 정리하도록 한다. 먼저 어두에서는 ‘ㆍ’가 ‘아’로 변화하는 것이 두 지역어의 일반적인 변화이다. 다만 화순어에서는 양순음 아래에서 ‘ㆍ’가 ‘오’로 원순모음화하는 것이 매우 활발하나 [원]용천어에서는 극소수의 단어에 불과하다. 비어두에서는 ‘ㆍ’가 ‘으’로 변화하는 것이 두 지역어의 일반적인 변화이다. 다만 선행음절에 ‘아’가 위치하는 경우 ‘ㆍ’가 ‘아’로 변화하는 단어들이 소수 존재한다.

‘ㆍ’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비음운화함으로써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 변화를 초래한다. 즉 두 지역어 모두에서 ‘오’의 [-원순성] 대립짝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원]용천어 · 화순어>

3.1.5 두 지역어의 ‘계열상의 변화’ 대조

위에서 필자는 두 지역어의 공시음운론적 대조와 내적 증거를 통해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존재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모음체계를 항목별로 구성하고 그 변화 양상을 통시론적으로 대조하였다. 이 때 ‘계열상의 변화’는 그 발생에 있어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다음의 순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① ‘ᄋᆞ’의 변화
② 하강 이중모음의 변화
③ 부동 이중모음의 변화
④ ‘오’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⑤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①이 ②에 선행함은 ‘ᄋᆡ’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ᄋᆡ’는 ‘ᄋᆞ’가 ‘아’로 변화한 후에 ‘애’의 변화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②가 ③에 선행함은 중부방언을 참고한 것이다. 또한 화순어에서 ④가 ⑤에 선행함은 ‘비-(被覝)’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어형은 ‘뵈->베-(비원순모음화)>비-(에>이)’의 변화를 경험한 것인데 ‘외’가 ‘에’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까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⑤는 ②에 후행한다. 화순어에서 ‘에[e]>이’의 변화는 있어도 ‘어>으’의 변화는 없다. 이는 하강 이중모음 ‘에[əi]’의 ‘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단모음 ‘에[e]’가 변화한 것임을 말해준다.

이 절에서는 ‘계열상의 변화’에 있어서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까지 고려하여 두 지역어의 전반적인 모음체계의 변화를 대조하여 검토하려 한다(음영은 본고에서 설정 가능한 最古 단계의 모음체계).

<table>
<tr><th colspan="2">모음체계</th><th rowspan="2">대 조</th></tr>
<tr><th>[원]용천어</th><th>화순어</th></tr>
<tr><td colspan="2">이 으 우
어
ᄋᆞ 오
아</td><td>▶ 두 지역어 모두 ‘으—우’, ‘ᄋᆞ—오’는 각각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한다.</td></tr>
<tr><td colspan="2">이 으 우
어
아 오</td><td>▶ 두 지역어 모두 ‘ᄋᆞ’가 非音韻化한다.</td></tr>
<tr><td colspan="2">이 으 우
에 어
애 외 아 오</td><td>▶ 두 지역어 모두 ‘애[ɛ], 에[e], 외[œ]’가 音韻化(하강 이중모음의 단모음화)한다.</td></tr>
</table>

이 으 우 에 어 애 아 오	이 위 으 우 에 어 애 외 아 오	▶[원]용천어에서 '외'는 非音韻化(œ>wɛ)한다. ▶화순어에서 '위'가 音韻化(ui>wi>ü)한다.
〃	이 위 으 우 에 외 어 오 애 아	▶화순어에서 '오[ɔ], 외[œ]'는 '[o], [ö]'로 再音韻化하여 각각 '어, 에'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	이 위 으 우 애 외 어 오 아	▶화순어에서 '에'가 非音韻化(에>이)한다. 그리고 '애'는 '외'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어, 아'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3.2 통합상의 변화

3.2.1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두 지역어에서 원순모음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확인된다.

(1) ㄱ. 아푸루(앞+으루, 前) 게부루(겝+으루, 疊) 벳디부루(벳딥+으루, 볏집)
　ㄴ. 부수루(붓+으루, 筆) 송구추루(송궂+으루, 錘) 노추루(놎+으루, 鍮)
(2) ㄱ. 자불(잡+을, 捕) 기픈(깊+은, 深)
　ㄴ. 보꿀(볶+을, 火) 주군(죽+은, 死)
(3) ㄱ. 아푸로(앞+으로, 前) 지부로(집+으로, 家)
　ㄴ. 쑤구로(쑥+으로, 艾) 구구로(국+으로, 羹)
(4) ㄱ. 자불(잡+을, 捕) 다문(담+은, 容)
　ㄴ. 무굴(묵+을, 食) 주군(죽+은, 死)

(1)과 (2)에 제시한 예들은 [원]용천어형인데 곡용(1)과 활용(2)에 상관없이 원순모음화가 일어난다. 다만 곡용에서는 조사 '-으루'가 결합할 때에 한해 원순모음화가 일어난다(3).[99] 그리고 이러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양순음(1ㄱ, 2ㄱ) 또는

원순모음(1ㄴ, 2ㄴ)이 선행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3)과 (4)에 제시한 예들은 화순어형인데 원순모음화 양상이 ㉑용천어와 비슷하다.

현대 두 지역어에 나타나는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의 원순모음화를 고려하면 두 지역어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었음을 상정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현대 두 지역어에서 '양순음+으'의 연쇄는 형태소 내부에서 거의 불가능한데 이는 이 연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두 지역어에는 비원순모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들도 있다.

(5) ㄱ. 배우-~보이-(被視)
ㄴ. 비-(被視) 배기싫-(보+기)

(5ㄱ)은 ㉑용천어형이고 (5ㄴ)은 화순어형이다. 우리는 여기서 '양순음+전설원순모음'의 연쇄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연쇄에 어떠한 변화가 존재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제 두 지역어에서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의 양상을 살피려 하는데 원순모음화는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논할 것이다.

㉮ 원순모음의 종류	㉯ 원순모음화의 방향	㉰ 동화주의 종류
㉠ 우 ㉡ 오	㉠ 순행 ㉡ 역행	㉠ 양순음 ㉡ 원순모음

■ ㉑용천어

● 원순모음화

우선 '우'와 관련된 원순모음화를 보도록 한다.

---

99) Ross(1877)에서는 조사 '-은, -을'의 '으'도 양순음이 선행할 때 원순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지만(jivool(집-을), baboon(밥-은) 등)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환경에서 '으'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㊀ 아플(앞+을, 前), 주근(죽+은, 粥) 등.

(6) ㄱ. 불{블} 풀{플} 물{믈}
ㄴ. 버물-{버믈-} 저물-{져믈-}
ㄷ. 거무{거믜} 너부{너븨} 글푸{글픠}
ㄷ'. 밉-{뮙-} 미끄럽-{믯그럽-}

(6)은 양순음에 의한 순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예들이다. 어두이든(6ㄱ), 비어두이든(6ㄴ) 관계없이 '으'가 '우'로 변화한다. 그리고 부동 이중모음 '의'도 비어두 위치에서 원순모음화하여 '위'로 변화한다(6ㄷ). 하지만 어두 위치의 '의'는 '이'로 실현되어 원순모음화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6ㄷ'). 왜냐하면 [원]용천어에서 다음 두 가지의 변화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의'가 어두의 일반적인 변화에 따라 '이'로 변화한다.[100]
㉯ '의'가 양순음 뒤에서 원순모음화하고(ɯi>ui), 'wi'로 변한 후 'w'가 탈락한다.

[원]용천어는 원순모음에 의한 순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하기도 한다(7).

(7) ㄱ. 두루-{두르-} 누루-{누르-} 부주런허-{브즈런ᄒᆞ-} 부꾸럽-{붓그럽-}
구술{구슬} 무순{므슴}
ㄴ. 눈추{눈츼} 요구(療飢)

이러한 변화에 개재자음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ㄱ)의 예들은 단모음 '으'가 변화한 것이고 (7ㄴ)은 부동 이중모음 '의'가 '위'로 변화한 것이다. 비어두 위치에서 단모음 '으'와 부동 이중모음 '의'의 '으'가 동일하게 원순모음화한 사실은 이중모음 '의'의 '으'가 단모음 '으'와 음성적으로 동일한 [ɯ]로 실현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도 [원]용천어에 존재한다.

---

100) 만약 [원]용천어가 이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는 어두의 단모음 '으'와 '의'의 '으'가 음성적으로 다르게 실현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원]용천어에서 어두의 '의'는 자음 뒤에서 '이'로 변화하는데 이는 어두에서 '의'의 음절 핵음이 '이'이고 '으'는 음절 부음이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순음 뒤에서 이중모음의 음절 부음 '으'는 단모음 '으'와 음성적으로 다르게 실현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8) 누펭이(늪, 濕地) 구만두-(그만두-)
(9) ㄱ. 뚧-{듧-, 穿}[101] 어둡-{어듭-} 둔눗-(드러눕-) 둘오-(들어오-) 수물(스물)
    두릅{들흡} 신우주~신으주(新義州)
  ㄴ. 느추-(늦추-) 능구-(碎)

(8ㄱ)은 양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를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역행적인 원순모음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불안한 면이 있다. '누펭이'의 경우 그 선대형이 '늪'이었는지도 현재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ㅡ>ㅜ'의 변화가 후행하는 자음 'ㅍ'의 영향 때문인지도 확실치 않다. (원)용천어에는 이 환경이 아니더라도 'ㅡ>ㅜ'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며(예 늦{늣, 蟲}) 양순음이 후행하더라도 'ㅡ>ㅜ'의 변화를 모르는 예(그만, 그물, 그뭄, 드물- 등)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만'도 '구만두-'와 같은 형식으로만 쓰이는데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동일한 음소배열임에도 불구하고 '그만'으로 실현된다.[102] 따라서 (원)용천어에 양순음에 의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다음으로 원순모음에 의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원)용천어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나(9ㄱ) 여기에도 역시 예외는 있다(9ㄴ).

이어서 '오'와 관련된 원순모음화를 보도록 한다. (원)용천어에서 역사적으로 '오'가 'ᆞ'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했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을 드러내 주는 원순모음화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10) ㄱ. 몰~말{ᄆᆞ술} 뽓-{ᄇᆞᅀᆞ-}
  ㄱ'. 아푸-{알ᄑᆞ-} 고푸-{골ᄑᆞ-} 가물-{ᄀᆞᄆᆞᆯ-}
  ㄴ. 배{ᄇᆡ} 맵-{ᄆᆡᆸ-}
  ㄴ'. 나부{나ᄇᆡ} 말무{말ᄆᆡ}

(10)의 예들은 'ᆞ'에 양순음이 선행하는 경우이다. 이 환경에서 어두의 단모음 'ᆞ'가 '오'로 변화한 예들은 (10ㄱ)에 제시한 것이 전부가 아닌가 한다. 그 예가 너

---

101) '뚧-'은 {듧-}의 어간말 자음 'ㅂ'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활용형에 나타나는 '우(<ᄫ)'의 영향으로 보아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에 포함시킨다.

102) 중부방언에서도 '그만두-'는 '관두-'로 줄어들 수 있지만 단독으로 쓰이는 '그만'은 그러지 못한다. 혹시 이들은 어원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한다.

무 적어 이들이 (원)용천어 고유의 음운변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비어두의 단모음 'ᄋᆞ'는 '우'로 실현되는데(10ㄱ') 두 변화, 즉 ① 'ᄋᆞ>오>우', ② 'ᄋᆞ>으>우' 중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양순음 뒤의 'ᄋᆞ>오'의 변화가 어두에서 그리 활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②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려 한다. 그리고 하강 이중모음 'ᄋᆡ'의 경우도 원순음화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어두이든(10ㄴ) 비어두이든(10ㄴ'), 'ᄋᆡ>외' 원순모음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변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양순음에 후행하는 'ᄋᆡ'의 원순모음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자 한다.

(11) ㄱ. 오소리{오ᄉᆞ리} 고소허-{고ᄉᆞ-}
ㄱ'. 도죽{도ᄌᆞᆨ} 고루-{고ᄅᆞ-} 모루-{모ᄅᆞ-}
ㄴ. 종애{죠ᄒᆡ} 동애{동ᄒᆡ}
ㄴ'. 조루{죠ᄅᆡ} 몬주{몬ᄌᆡ} 호무{호ᄆᆡ} 조구{조ᄀᆡ} 둥무{듕ᄆᆡ}

(11)의 예들은 'ᄋᆞ'에 원순모음이 선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11ㄱ)과 (11ㄴ)에서만 각각 'ᄋᆞ'와 'ᄋᆡ'의 원순모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예들은 'ᄋᆞ>오, ᄋᆡ>외'에 앞서 'ᄋᆞ>으, ᄋᆡ>의'의 변화가 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ᄋᆞ, ᄋᆡ'의 원순모음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도록 한다.

(12) ㄱ. 소매{ᄉᆞ매} 놈{ᄂᆞᆷ, 他}
ㄴ. 노누-{ᄂᆞᆫ호-} 도투-~다투-{ᄃᆞ토-} -두룩{<도록<ᄃᆞ록}

(12)의 예들은 'ᄋᆞ'가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산발적이고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음운변화로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 비원순모음화

(13) ㄱ. 매뚜기{묏도기} 배{뵈} 매떵{뫼}
ㄴ. 피-{퓌-, 燃} 비-{뷔-, 空} 비짜루{뷔} 비틀-{뷔틀-}

(13)은 어두 위치에서 비원순모음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예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비원순모음화로 인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들이 '외[ɔi]'가 '외[œ]'로 단모음화한 후에 이 단모음이 양순음 뒤에서 '애'로 변화한 것이라면 비원순모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용천어에서 단모음 '외[œ]'는 상승 이중모음 '왜'로 변화하였음을 상기할 때 이 변화 후에 '애'로 변화한 것이라면 이는 이화에 의한 w탈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3ㄴ)의 예들은 결코 비원순모음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용천어에서 이중모음 '위[ui]'가 단모음으로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이중모음은 '위[wi]'로 변화한 후에 양순음 뒤에서 'w'가 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어두 위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1) ㄱ. 구룸{구룸} 주룸{주룸} 우쿰{우훔}
ㄴ. 소곰{소곰} 고롬{골홈} 쪼꼼{죠곰} 오좀{오좀} 보롬{보롬}
ㄴ'. 고굼{고곰} 고순도티{고솜돝} 쪼숨{*조솜/주숨}

그런데 '오'가 '우'로 변화한 듯한 예들이 존재한다(11ㄴ'). 만약 이들이 '오>으>우'의 변화 단계를 거친 것이라면 '오>으'의 변화를 비원순모음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오>우'의 직접적인 고모음화를 경험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전자의 변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용천어에는 동일한 환경에서 이러한 변화를 거부한 예들(11ㄴ)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11ㄴ')의 예들은 예외적인 존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 화순어

● 원순모음화

'우'와 관련된 원순모음화를 먼저 검토한다.

(12) ㄱ. 불{블} 풀{플} 물{믈}
ㄱ'. 버물-{버믈-} 저물-{져믈-}
ㄱ.''. 아부지(아버지) 어무니(어머니)

ㄴ. 거무{거믜} 너부{너븨} 멀무{멀믜}
ㄴ'. 밉-{믭-} 미끄럽-{믯그럽-}

(12)는 양순음이 선행할 때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예들이다. ㉮용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두이든(12ㄱ), 비어두이든(12ㄱ') 관계없이 단모음 '으'가 '우'로 변화한다. 이때 '어'가 고모음화하여 형성된 '으'도 원순모음화의 피동화음이 될 수 있다(12ㄱ''). 그리고 이중모음 '의'도 비어두 위치에서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이 분명하지만(12ㄴ) 어두에서는 '의'의 원순모음화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 여부에 관계없이 변화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최전승(1986:235)에 따르면 19세기 후기 서남방언에서 '믭-～밉-'이 쌍형으로 존재하는데 '믯구리, 믯그럽-' 등은 원순모음화형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 비록 '믭-'과 같은 원순모음화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13) ㄱ. 부끄럽- 구술 누룸밥(<눌은밥, 누룽지)
ㄴ. 오늘 고드름 소름

(13)은 선행음절에 원순모음이 존재할 때 원순모음화한 예들이다. 단모음 '으'는 원순모음 뒤에서 활발하게 원순모음화한다(13ㄱ). 하지만 예외들도 존재하는데 주로 선행모음이 '오'라는 점이 눈에 띈다(13ㄴ). 여기서 우리는 원순모음 중에 '오'보다는 '우'에 의한 '으'의 원순모음화가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도 있다.

(14) ㄱ. 뚧-{듧-} 어둡-(어듭-) 둔누-(드러눕-) 둘오-(드러오-) 수물(스물) 두릅{들흡}
ㄴ. 느꾸-(늦추-)

㉮용천어에서와 같이 양순음에 의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원순모음에 의한 변화를 보여주는 예들이 꽤 존재한다(14ㄱ). 비록 동일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14ㄴ) 원순모음에 의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꽤 강력한 하나의 음운규칙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와 관련된 원순모음화를 보도록 한다. 먼저 어두에서 양순음 뒤의

'ᄋᆞ'가 '오'로 변화하는 원순모음화가 매우 강력하게 존재했음은 앞서 <3.1.4 'ᄋᆞ'의 변화>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15) ㄱ. 오소리{오ᄉᆞ리}
　　ㄴ. 종우{죠ᄒᆡ}　동우{동ᄒᆡ}　모구{모ᄀᆡ}　조루{죠ᄅᆡ}　조구{조ᄀᆡ}

원순모음에 의한 순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예들도 존재한다(15). (15ㄱ)은 단모음 'ᄋᆞ'가 선행하는 원순모음의 '오'의 영향으로 원순모음화한 것이다. (15ㄴ)은 이중모음 'ᄋᆡ'의 경우인데 'ᄋᆡ>외'의 원순모음화와 'ᄋᆡ>의'의 변화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쉽지 않다. 즉 'ᄋᆡ>외'의 원순모음화가 먼저 일어나 'ᄋᆡ>외>위>우'의 변화를 거칠 수도 있고(최명옥 1982) 'ᄋᆡ>의'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 'ᄋᆡ>의>위>우'의 변화를 거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원순모음에 의한 순행적 원순모음화가 존재했음을 지적하는[103] 선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려 한다.

역행적 원순모음화를 경험한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존재하기는 하나(16) 그 수효가 너무 적고 산발적이며 예외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 변화로 파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6) ㄱ. 소매{ᄉᆞᄆᆡ}　놈~넘{ᄂᆞᆷ, 他}　노물~너물{ᄂᆞᄆᆞᆯ}
　　ㄴ. 노누-~나누-{ᄂᆞᆫ호-}

지금까지는 'ᄋᆞ—오'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 관계에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화순어의 모음체계에서 'ᄋᆞ'는 사라지고 '오'가 [±원순성]에 의한 새로운 대립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대립짝이 '어'이다. 그리고 '어—오'의 대립 관계를 드러내주는 원순모음화가 화순어에 존재한다.

(17) ㄱ. 모시매~머시매(머스마)　모심~머심(머슴)　모구~머구(머위)
　　ㄴ. 깽본(강변)　매롭-(마렵-)
　　ㄴ'. 멀-(遠)　멀무(멀미)　벌(蜂)　구먹(구멍)　주먹(주먹)　주벅(주걱)

---

103) 그런데 양순음에 의한 순행적 원순모음화(ᄋᆞ>오)를 경험하여 형성된 '오'는 원순모음화의 동화주가 될 수 없다. ㉮ 보디{ᄇᆞᄃᆡ}　모디{ᄆᆞᄃᆡ} 등.

(17)의 예들을 통해 어두에서나(17ㄱ) 비어두에서나(17ㄴ) 관계없이 '어>오'의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예들이 많지 않아 '어>오'의 원순모음화가 그리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어두에서는 대부분 쌍형으로 존재하며 비어두에서는 상승 이중모음 '여'의 'y'가 탈락한 환경에 한정되어 '어>오'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동일한 환경('양순음-어'의 연쇄)을 가진 대다수의 단어들에서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17ㄱ'). 이와 같이 화순어에서 '어>오'의 원순모음화는 그 예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산발적이며 수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어>오' 규칙의 생성 시기가 그리 오래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어'와 '오'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 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비원순모음화**

먼저 어두에서는 양순음 뒤에서 전설원순모음이 비원순모음화한다.

(18) ㄱ. 매때기{뫼도기} 배{뵈}
ㄴ. 비-{보이-, 被視}

하강 이중모음 '외[ɔi]'가 '외[œ]'로 단모음화한 후에 양순음 뒤에서 '애'로 비원순모음화한 다(18ㄱ). 그런데 '외[œ]'가 상승하여 '외[ö]'로 변화하면서 [-원순성] 대립짝이 '애'에서 '에'로 바뀌게 된다. (18ㄴ)의 '비-'는 그 변화된 체계에서 비원순모음화한 것이다. 즉 양순음 뒤에서 단모음 '외[ö]'는 비원순모음화하여 '에[e]'로 변화한 뒤 '에>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 ㄱ. 피-{퓌-} 비-{뷔-} 비짜리{뷔} 삐틀-{뷔틀-}
ㄴ. 핑기-{품기-}

하강 이중모음 '위[ui]'도 상황은 '외'와 비슷하다. 하지만 '위[ui]'가 단모음 [ü]로 변화한 뒤 비원순모음 '이'로 변화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부방언을 반영한 문헌을 보면 하강 이중모음 '위[ui]'가 '의[ɯi]'로 비원순모음화한 뒤 '이'로 변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순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ui]'가 '위[wi]'로 변화

한 단계에서 이화에 의한 w탈락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19ㄱ)의 예들을 통해 화순어에 '위'의 비원순모음화가 존재했다고 확신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19ㄴ)의 예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핑기-'는 '품기-'가 움라우트(후부변자음화도 포함)를 통해 '퓡기-'로 변한 후에 단모음 '위[ü]'가 양순음 뒤에서 '이'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위[ü]>이' 비원순모음화의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비어두 위치에서는 원순모음 뒤에서 후설원순모음이 비원순모음화한다.

(20) ㄱ. 구름{구룸} 주름{주룸} 우름{우룸} 웅큼{우희윰/우훔}
ㄱ'. 목심{목숨} 우심{우숨} 수실(手術) 죽신(竹筍) 요짐{요주숨}
ㄴ. 고름{골홈} 보름{보롬} 소금{소곰} 오금{오곰} 쬐끔{죠곰}
ㄴ'. 오짐{오좀}
(21) ㄱ. 뿌리{불휘, 根}
ㄴ. 모리{모뢰, 後後日} 고리{골회, 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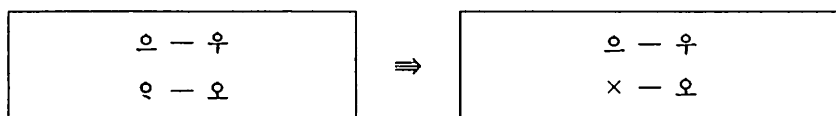
(20ㄱ)의 예들은 선행음절에 원순모음이 존재할 때 원순모음 '우'가 모두 '으'로 비원순모음화한 것이다. (12ㄱ')의 예들은 비원순모음화에 의해 형성된 '으'가 'ㅅ, ㅈ' 뒤에서 '으>이' 전설모음화를 경험한 것이다. (20ㄴ)은 원순모음 뒤에서 '오'가 '으'로 실현되는 예들이며 (20ㄴ')은 'ㅈ' 뒤에서 이 '으'가 '이'로 전설모음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오>ᄋᆞ>으'의 변화를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오>으'의 변화를 경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선 전자는 '오'가 [-원순성] 대립짝인 'ᄋᆞ'로 비원순모음화했다는 점에서 음운론적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오'의 비원순모음화가 'ᄋᆞ'의 소실 이후에 발생했다면 후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두현(1992)에서는 'ᄋᆞ'의 소실로 인한 체계의 일시적인 혼란에 의해 '오>으'의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필자도 이러한 변화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오'의 [-원순성] 대립짝인 'ᄋᆞ'가 소실되면서 '으'가 '우, 오'와 동시에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던 시기를 가정할 수 있다. 마치 '에'가 소실되면서 현대 화순어에서 '애'가 '어, 아'와 동시에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오'의 비원순모음화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ᄋᆞ>으'의 변화와 '오>으'의 변화,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길을 열어두고자 한다. 그리고 (21)의 예들은 이중모음 '위[ui], 외[ɔi]'가 선행하는 원

순모음의 영향으로 '의'로 비원순모음화한 후 '이'로 변화한 것이다. 이 때의 '외'도 앞서 언급한 '오'와 마찬가지로 '외>익>의'의 변화를 거쳤는지, 아니면 '외>의'의 변화를 거쳤는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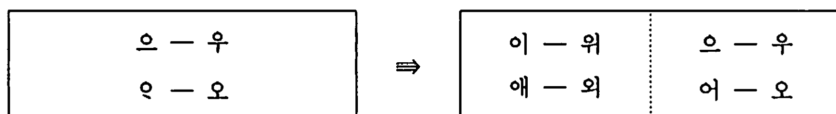
지금까지 두 지역어의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려 한다. 우선 두 지역어에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그 예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이다. 그러나 순행적 원순모음화(으>우, 으>오)는 꽤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화순어에서는 '으>우, 으>오'의 원순모음화가 모두 강력한 규칙으로 작용한 반면에, [원]용천어에서는 '으>오'의 원순모음화가 그리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순어에는 [원]용천어에서 존재하지 않은 '어>오'의 원순모음화가 존재한다는 점도 두 지역어의 차이이다.

비원순모음화 규칙이 [원]용천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화순어와의 차이이다. 화순어에서는 어두의 전설원순모음 '외[ö], 위[ü]'가 양순음 뒤에서 각각 '애/에, 이'로, 비어두의 후설원순모음 '우, 오'가 원순모음 뒤에서 '으'로 비원순모음화한다.

원순모음화나 비원순모음화는 [±원순성]에 의한 대립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지역어에서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발생 시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지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원순성]에 의한 대립 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원]용천어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의 변화>



<화순어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의 변화>

㉮ '으>우'의 원순모음화는 두 지역어 모두에서 활발하다 : 역사적으로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서 '으'와 '우'는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계속 유지한다.

㉯ 'ᄋᆞ>오'의 원순모음화가 화순어와는 달리 ㉾용천어에서 활발하지 못하다 : 'ᄋᆞ>오'의 원순모음화가 발생한 시기에 ㉾용천어에서 'ᄋᆞ'가 거의 비음운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어>오'의 원순모음화가 ㉾용천어와는 달리 화순어에 존재한다 : 화순어에서 '어'와 '오'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나 ㉾용천어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 화순어에서는 전설원순모음의 비원순모음화가 꽤 활발하다 : 화순어에서는 후설모음 뿐만 아니라 전설모음의 [±원순성]에 의한 대립도 확고하나 ㉾용천어에서 [±원순성]에 의한 대립은 후설모음 '으—우'에 한정된다.

3.2.2 전설모음화

3.2.2.1 '으>이' 전설모음화

두 지역어의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으>이' 전설모음화[104]가 확인된다.

(22) ㄱ. 비시로(빗+으로) 나시로(낫+으로)

ㄴ. 저진(젖+은) 차질(찾+을) 비시먼(빗+으먼) 버싱개(벗+웅개)

(23) 미리야(밀+으야) 비리야(빌+으야) 시리문(싫+으문, 厭) 히린(힗+은, 失)

(22)는 화순어형이고 (23)은 ㉾용천어형이다. 화순어에서는 'ㅅ, ㅈ' 종성 체언에 조사 '-으로'가 결합될 때나(22ㄱ)[105] 'ㅅ, ㅈ' 종성 용언에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22ㄴ)

104) 국어사에서 선행자음이 'ㅅ, ㅈ'일 때 후행하는 모음 '으'가 '이'로 교체하는 변화가 있다. 이는 결국 선행음에 의한 동화인데 이 변화에 대한 용어로 '치찰음 아래에서의 전부모음화'(이병근 1970ㄱ), '전설고모음화'(최명옥 1982), '구개모음화'(남광우 1984:167), '치찰음과 유음 뒤의 전설모음화'(백두현 1992) 등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전부모음, 전설고모음'이 '이'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용천어에 모음에 의한 '으>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이러한 동화 현상을 '으>이' 전설모음화라고 칭하여 다루고자 한다.

105) 앞서 살펴본 원순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체언 어간에 조사 '-은, -을'이 결합할 때에

‘으’가 ‘이’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ㅅ, ㅈ’ 뒤에서 ‘으’가 ‘이’로 교체되는 음운 과정을 [원]용천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원]용천어에는 (23)과 같은 ‘으>이’ 전설모음화가 존재한다.[106] 즉 선행음절에 ‘이’가 위치하고 개재자음이 ‘ㄹ’일 때 어미 두음 ‘으’가 ‘이’로 교체된다.[107] 그런데 이러한 ‘이’모음에 의한 ‘으>이’ 전설모음화가 화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ㅅ, ㅈ’ 뒤에서 ‘으>이’ 전설모음화가 화순어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24ㄱ)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4) ㄱ. 살살∽실실　살금살금∽실금실금
　　ㄴ. 살살∽슬슬　살금살금∽슬금슬금

이들은 음성상징과 관련된 단어들인데 ‘아’와 ‘이’의 직접적인 상관 대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보다는 ‘아’와 ‘이’가 어떤 모음의 변화형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화순어의 음운 변화를 참고할 때 각각 ‘ᄋᆞ’와 ‘으’의 변화형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원]용천어형을 고려하면(24ㄴ) 그 가능성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음성상징어를 통해서도 화순어에 ‘으>이’의 변화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원]용천어

[원]용천어의 형태소 결합과정에서는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형태소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예들이 존재한다. 먼저 어두에서의 변화를 보기로 한다.

는 ‘으>이’ 전설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㊀ 오슨(옷+은, 衣)　저슬(젓+을, 乳) 등.

106) 이러한 음소의 배열은 다음 환경에서 형성된다.
　㉮ 곡용 : ‘-il’말음 어간 + 조사(은, 을)
　㉯ 활용 : ㉠ ‘-ilh’말음 어간 + ‘으’계 모음어미　㉡ ‘-il’말음 어간 + 으야

107)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ㄹ’ 종성 체언에 조사 ‘-은, -을’이 결합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㊀ 이른(일+은, 事)　시를(실+을, 絲) 등.

(25) ㄱ. 싱겁-{슴겁-} 싫-{슳-} 시골{스ᄀᆞ볼} 싲-{슺-}
ㄴ. 짓-~집-(짓-, 접두사) 짓{즛} 찌끄레기{즘의} 칠기{츩}
질러-{즈르+어, 捷徑} 찔개{즐게} 짐승{즘싱}
(26) 쓰- 쓸- 즐- 즞- 쯪- 쯔- 츠-

(25ㄱ)은 'ㅅ'에 후행하는 예들이고 (25ㄴ)은 'ㅈ, ㅊ, ㅉ'에 후행하는 예들이다. 그리고 'ㅅ'과 'ㅈ'은 ㉻용천어에서 설면음으로 자연부류를 형성한다. 또한 모음 중에서 설면성을 강하게 띠는 모음이 '이' 모음임을 감안할 때 이는 설면성 동화라고 부를 만하다. 결국 이러한 '으>이' 전설모음화는 'ㅅ, ㅈ'의 설면음화(<4.1.1 'ㅅ, ㅈ'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를 참조)가 일어난 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용천어에는 이와 동일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으>이' 전설모음화를 보여주지 않는 예들도 다수 존재한다(26).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모두 단음절 어간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108] 물론 (25)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음절 어간의 경우에도 '으>이' 전설모음화를 보이는 예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음절 어간이라는 점이 '으>이' 전설모음화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은 확인할 수가 있다.

(27) ㄱ. 모질허-{모ᄌᆞ라다} 지질{지즑} 꺼실리우-(그슬리-)
ㄴ. 가즈라니~가지라니 거츨-~거칠- 어즈럽-~어지럽- 거즛~거짓 기츰~기침
ㄷ. 이슬 아츰 마츰 가쯕허- 비슥허- 거스레미 버즘

비어두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27ㄱ).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이 변화를 경험한 어형과 그렇지 못한 어형이 자유변이하고 있다(27ㄴ). 그리고 아직까지 '으>이' 전설모음화를 모르는 어형들이 다수 존재한다(27ㄷ).[109]

㉻용천어에는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와 성격이 다른 '으>이' 전설모음화가 존재한다.

---

108) ㉻용천어에서 '십(十)'은 '습'으로 실현된다. 이는 '으>이' 전설모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예가 아닌가 한다. 다만 '시오리(15리)'는 '습오리'로 실현되는 일이 없으며 '20, 30, …'의 경우에도 '이십, 삼십, …'으로만 실현될 뿐 '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109) ㉻용천어에서 어말어미 '-슴니다(습니다)'는 '으>이' 전설모음화를 전혀 모르나 접미사 '-스럽-'은 '-시럽-'으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28) ㄱ. 기리매(기르마) 기림(기름) 니리키-(일으키-) 니리-(讀, 謂)
디리-(빗장, 소리) 띠리-(刺)
ㄴ. 씨림~씨름 이림~이름
ㄷ. 기리리까니(그러니까) 기리케(그렇게) 이리케(이렇게)[110] 니리세-(일어서-)
(29) ㄱ. 가르- 거르- 아름
ㄴ. 비슥허- 니글니글 이슬

우리는 (28)의 예들을 통해 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이 규칙이 적용된 어형과 그러지 못한 어형이 자유변이하기도 한다(28ㄴ). 또한 고모음화(어>으)를 경험한 후에 동일한 환경에서 '으>이' 전설모음화가 적용된 예들도 존재한다(28ㄷ). 그렇다면 이 변화의 환경을 분명히 할 필요를 느끼는데 예들을 통해 두 가지 환경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먼저, '이' 이외의 모음이 선행 음절에 놓이면 이 전설모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29ㄱ). 그리고 'ㄹ' 이외의 자음이 개재하면 또한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29ㄴ).

㉮ 동화주 : 선행 음절의 모음 '이'
㉯ 개재자음 : ㄹ

그런데 국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두 환경 모두 매우 특이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용천어에 이러한 변화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므로 이를 ㊊용천어의 특징적인 변화라고 해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 화순어

화순어에서 'ㅅ, ㅈ'에 의한 '으>이' 전설모음화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30) ㄱ. 싱겁- 싫- 시치- 씰- 질- 짓- 찟- 춥치-{춥츠-}
ㄴ. 이실 보십(보습) 아침 기침 거짓 모질허-(모자라-)
ㄷ. -시룹-(스럽-) -십니다(습니다)

---

110) '데리케(저렇게)'라는 어형도 쓰이는데 이는 '이리케, 기리케'에 이끌린 결과로 보인다.

(31) ㄱ. 어지깨(어저께) 암시롱(알면서로)

ㄴ. 오짐{오좀} 수실(수술) 목심(목숨) 죽신(竹筍)

예들이 너무 많아 일부만 제시한 것인데 어두에서든(30ㄱ), 비어두에서든(30ㄴ) 관계없이 이 변화는 매우 활발히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변화의 결과로 '으'모음이 'ㅅ, ㅈ' 뒤에 위치하게 될 때에도 '으>이' 전설모음화가 일어난다(31). (31ㄱ)은 고모음화에 의해 '어'가 '으'로 변한 것이고 (31ㄴ)은 원순모음 뒤에서 '우'가 비원순모음화하여 '으'로 변화한 것이다.111)

그런데 동일한 환경에서 '으>이' 전설모음화를 보이지 않는 예들이 존재한다.

(32) ㄱ. 수물(스물) 무순~무신(무슨) 우숩-(우습-) 우술뿌랭이(牛膝)

ㄱ'. 구실{구슬} 뿌식-(부수-) 부지런허-{브즈런ᄒᆞ-}

ㄴ. 쓰-{혀-, 點火} 스-{셔-, 立} 즈그{저희}

ㄷ. 자석(子息) 임석(飮食) 양석(糧食) -썩(-씩) 거석(거시기)

(32ㄱ)은 'ㅅ' 뒤의 '으'가 '우'로 변화한 예인데 이는 규칙들의 경쟁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으' 모음이 원순모음화와 '으>이' 전설모음화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일 때 경쟁관계에 있는 두 규칙 중에 원순모음화가 먼저 적용되면 '으'가 '우'로 변화하게 되고(32ㄱ) '으>이' 전설모음화가 앞서 적용되면 '으'가 '이'로 변화하게 된다(32ㄱ'). (32ㄴ)의 예들은 화자들의 어간 재해석에 의해 어간말의 '어'가 '으'로 교체된 경우인데 이 때에는 '으>이' 전설모음화를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32ㄷ)의 예들은 과도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ㅅ' 뒤의 '이'가 '어'로 실현된다. 이는 '이>으>어'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음절 종성은 모두 'ㄱ'인데 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112)

'ㅅ, ㅈ' 이외의 자음 뒤에서도 '으'가 '이'로 실현되는 예들도 있다.

---

111) '목심'(목#숨)과 비슷한 구성의 '한#숨'은 '한심'이 아닌 '한숨'으로 실현된다. 이로 보아 '우>으'의 동화주는 선행음절의 '오'이며 이에 대한 이화작용으로서의 비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112) 화순어에서 음절종성이 'ㄱ'일 때 '으'는 '어'로 실현되는 일이 잦다. ㉥ 그럭(그릇), 미력(미륵), 아적(아침) 등.

(33) ㄱ. -니라고(-느라고)
ㄴ. 가리-(가르-) 짜리-(자르-) 보리-(바르-)

(34) ㄱ. 늦- 느자구(늦) 미느리(며느리) -는 -는디
ㄴ. 보름 누른밥(누룽지) 거름 -를

그런데 이들은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ㅅ, ㅈ'과 모음 '이'는 [설면성]이라는 성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으>이'를 동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화순어의 'ㄴ, ㄹ'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ㄴ, ㄹ' 뒤의 '으'가 '이'로 변화하지 않는 예들이 다수이다(34). 결국 'ㄴ' 뒤에서 '으'가 '이'로 변화하는 예는 (33ㄱ)의 '-니라고' 한 예 정도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중부방언에서도 '-냐구'라는 특이한 형태도 나타남을 감안할 때 다른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또한 'ㄹ' 뒤에서 '으'가 '이'로 변화하는 예는 용언 어간말이라는 환경에 한정된다. 그 환경을 벗어나서 'ㄹ' 뒤의 '으'가 '이'로 변화하는 예는 없다(34ㄴ). 따라서 이는 어간말 '으'의 특수한 변화로 보아야지, 이를 'ㄹ'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로 볼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의 '으>이' 전설모음화 양상을 대조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자음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는 '설면성 동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존재했음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반면에 [원]용천어에서는 일부 환경에서만 이를 경험하였다. 즉 비어두에서는 몇몇 '으>이' 전설모음화 어형이 보이는데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어두에서 어느 정도 '으>이' 전설모음화가 진행되었지만 단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예들이 다수이다. 따라서 [원]용천어에서 이 변화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 이외에, [원]용천어에는 '이' 모음에 의한 순행적 '으>이' 전설모음화가 화순어와는 달리 존재한다. 즉 [원]용천어에서는 선행음절에 '이' 모음이 존재하고 개재자음으로 'ㄹ'이 존재할 때 '으'는 '이'로 변화한다.

'이' 모음에 의한 '으>이' 전설모음화에 대한 두 지역어의 차이는 체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에 대한 두 지역어의 차이는 체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모음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두 지역어 모두에서 '으'와 '이'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가 매우 활발한 화순어는 물론이려니와 (원)용천어에서도 '이' 모음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가 활발한 점을 감안하면 '으'와 '이'의 [±전설성]에 의한 대립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두 지역어의 차이는 자음체계의 변화, 즉 'ㅅ, ㅈ'의 재음운화(설면음화) 시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가 설면성 동화임을 감안할 때 'ㅅ, ㅈ'의 설면음화 시기는 '으>이' 전설모음화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1.1 'ㅅ, ㅈ'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후술하겠지만 (원)용천어에서 'ㅅ, ㅈ'의 설면음화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은데 그 시기가 화순어에 비해 늦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2.2.2 움라우트

현대 화순어에는 체언・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움라우트[113]가 공시적 규칙으로 존재한다.

(35) 뱅이(방+이) 배비(법+이) 쇠기(속+이) 귀기(국+이) 기미(금+이)
(36) ㄱ. 개기(가+기) 외기(오+기) 배기싫-(보기싫-) 디끼싫-(듣기싫-)
ㄴ. 외깄소(오+아+기+었+소) 개깄소(가+아+기-) 자배깄소(잡+아+기-)

(35)의 예들은 체언어간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어형이고 (36)은 용언어간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36ㄱ)와 존칭선어말어미 '-기-'(36ㄴ)가 결합한 어형이다. 그런데 화순어와 달리 (원)용천어에서는 이러한 움라우트를 관찰할 수 없다.

그런데 두 지역어 모두에서 움라우트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예들이 피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어형들이다.

113) 국어사에서 움라우트는 이숭녕(1935), 정인승(1937)에서 언어학적으로 체계화된 이래 김완진(1963, 1971), 이병근(1971ㄱ)를 거치면서 동화주, 개재자음, 피동화음의 성격, 그리고 체계와의 관련성 등이 상당 부분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37) 냉기-(남기-) 매키-(막히-) 메기-(먹이-) 넹기-(넘기-)

(37)은 ㊐용천어형인데 화순어형도 '에>이' 변화를 제외하면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한 예들의 제1음절 모음은 의미의 연관성을 생각할 때 각각 '남-, 막-, 먹-, 넘-'의 모음이 변화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환경으로 보아 움라우트를 적용받았다고 할 수 있다.

■ ㊐용천어

㊐용천어에서 움라우트는 피동화음이 '아, 어'일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38) ㄱ. 새끼{삿기} 방매이(방망이) 애비(아비) 손재비(손잡이) 보재기(보자기)
쌔기-(삭히-) 애리-(아리-) 채리-(차리-) 냉기-(남기-) 대끼-(닫기-, 閉)
ㄱ'. 댕기-{ᄃᆞᆼ긔-}
ㄴ. 구세기(구석) 데미(더미) 에미(어미) 건데기(건더기) 구데기(구더기)
세구(석유) 찌께기(찌꺼기) 메기-(먹이-) 넹기-(넘기-) 뎀비-(덤비-)

(38ㄱ)은 피동화음이 '아'이고 (38ㄴ)은 '어'인데 두 경우 모두 움라우트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8ㄱ')의 '댕기-'는 용언어간말에서 '의'가 변화한 '이'도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때 개재자음은 [-설면성] 자음이다.114)

(39) ㄱ. 쬐리-(졸이-) 쐐키-(속이-) 뇌키-(녹이-)
ㄴ. 쥐기-(죽이-) 쉬기-(숙이-)

피동화음이 '오, 우'일 때에도 움라우트를 경험한 듯이 보이는 예들이 존재하는데 모두 피사동접미사가 결합한 용언에 한정된다(39). 그런데 과연 이들을 움라우트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움라우트를 전설모음 계열이 모음체계

---

114) 'ㄹ'은 용언에서만 움라우트의 개재자음으로서 기능하는데 이는 국어 전반적인 현상이다. 최명옥(1989)에서는 개재자음의 조건으로 [αback][αhigh]를 제시한 바 있다.

에서 확립된 후에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에 한정115)(이병근 1970ㄱ, 김완진 1971, 이기문 1972)시킨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원)용천어에는 '외[œ], 위[ü]'가 전설모음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다만 [+전설성] 자음 뒤에서 각각 상승 이중모음 '왜[wɛ]'와 '위[wi]'의 이음으로 실현될 뿐이다. 그런데 (원)용천어에서도 역사적으로 전설모음 '외[œ]'가 존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39ㄱ)의 예들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즉 '외[œ]'가 모음체계에 존재할 당시 '오'가 움라우트를 경험하고 뒤이어 '외[œ]>왜[wɛ]'의 변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9ㄴ)의 예들은 문제가 다르다. (원)용천어의 역사상 전설모음 '위[ü]'가 모음체계에 존재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도 일어난다. 즉 '외'와 '위'가 단위음운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두음이 'ㅅ, ㅆ, ㅈ, ㅊ, ㄷ'일 때 '오, 우'가 '외, 위'로 실현되는 것이다(이병근 1970ㄱ).

필자는 (39)의 변화에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첫째, 움라우트 규칙이 내재화되기 전에 다른 규칙, 즉 'ㅣ'첨가 규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설성] 자음 뒤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이중모음 '외, 위'의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용천어에 존재하는 '쒸시-{슈시-}, 쒸시{슈슈}, 쥐추{쥬츄}' 등의 예도 이러

---

115) 이와 달리 음절부음 'ㅣ'의 첨가를 움라우트에 포함시켜 움라우트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숭녕(1949)에서는 중세국어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二重母音化(i의 변화)"로 보고 "先行母音을 '아ㅣ, ㆍㅣ'로 만들어 '아, ㆍ'音에 二重母音의 'ㅣ'要素를 부가시킴도 母音의 分節距離에서 오는 부조화를 조화시키는 같은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일종의 母音 同化作用이며 우믈라우트 現象의 시초하고 본다."라고 하였다. 한영균(1980)에서는 "이 움라우트 現象이 반드시 ɯ→i, u→ü, ə→e 등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겪은 것이 아니고, ɯ→ɯy→i, u→uy→ü, ə→əy→e의 과정을 밟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안병희(1985)에서는 '제기~져기(略), 죄히(淨)'의 예를 들어 "움라우트 현상은 뒤에 오는 전설모음의 영향으로, 앞의 모음이 ㅣ를 갖게된 사실을 말한다. 이때 ㅣ가 이중모음의 副音으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현대어의 움라우트 현상과 꼭같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동화라 생각된다." 허웅(1965:427)에서는 이 현상을 '/ㅣ/ 치닮기'라 하고 '히이다, -닉이다' 등을 예로 들어 "지금말과 다른점은, 닮은 홀소리가 홑홀소리로 바뀌지 않고, /ㅣ/내림 겹홀소리가 되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최전승(1986:166)에서는 이 이중모음화를 "1차 i-umlaut"라고 하고 모음체계상에서 전설모음 계열이 확립된 후 후설모음이 전설화(fronting)하는 것을 "i-umlaut"라고 한 바 있다.

한 가능성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116) 이들 예에서 제1음절의 '유'는 일반적인 변화(유>우)에서 벗어난 것인데 후행음절에 'i, y'가 위치하는 것이 눈에 띈다.117) 둘째, '오, 우'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이루는 모음이 체계에 존재하지 않더라고 어떤 모음(또는 모음연쇄)이 음성적으로 전설모음으로 실현되면 움라우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용천어에서 상승 이중모음 '왜[wɛ], 위[wi]'는 [+전설성] 자음 뒤에서 음성적으로 각각 '[œ], [ü]'로 실현된다. (39)의 예들에서 '왜, 위'의 음절 두음이 [+전설성] 자음이라는 점이 이와의 관련성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말한 두 가능성 모두, ㉣용천어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왜 움라우트를 보여주는 예들이 존재하지 않은지에118)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 힘들다. 따라서 필자는 그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삼가고자 한다.

(40) ㄱ. 디리-(들이-) 디리-(드리-) 띠끼-(뜯기-) -띠리-(-뜨리-)
ㄴ. 그리- 흐리- 느리-

(40ㄱ)은 'ㅡ'가 움라우트에 의해 'ㅣ'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피동화음 'ㅡ'에 선행하는 자음이 주로 'ㄷ, ㄸ'이라는 점이다. 기타 자음이 선행할 때에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모른다(40ㄴ). 따라서 이는 움라우트의 예에 포함시키기보다는 'ㄷ'의 음성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용천어의 '디가-(들어가-), 디디-{드듸-}'와 같이 움라우트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ㅡ>ㅣ'의 변화가 일어난 예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ㄷ'의 어떠한 음성적 특

116) 필자가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이협(1981)에는 보다 많은 어형들이 보고되어 있다. ㉮ 쇠식{쇼식}, 쇠주{쇼쥬}, 쥐정{쥬졍}, 쥐전재{쥬젼ᄌᆞ}, 쥐제{쥬졔} 등.

117) 만약 이들이 'ㅣ'첨가에 의한 것이라면 이 경우 개재자음에 'ㅅ, ㅈ' 등도 위치할 수 있어 움라우트의 개재자음 조건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곽충구(1994:129)에 따르면 육진방언에서 피동화음이 이중모음 /야, 여, 여, 유/이고 개재자음이 [+coronal] 자음일 때 이러한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를 '동화주가 앞 뒤에 위치한 움라우트'라고 한 바 있다.

118) ㉣용천어에 존재하는 '쇄경{쇼경}'이 형태소 내부에서 '오'가 움라우트를 경험한 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쒀시-{슈시-}, 쒀시{슈슈}, 쥐추{쥬츄}' 등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징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119]

■ 화순어

화순어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을 피동화음의 종류에 따라 보도록 한다.

(41) ㄱ. 애비(아비) 싸래기(싸라기) 냉기-(남기-) 깽본(강변)
ㄴ. 이미(어미) 미기-(먹이-) 닝기-(넘기-)
ㄴ'. 재리-(저리-) 애룹-(어렵-)
ㄷ. 괴기(고기) 죄끼(조끼) 쇠키(속히) 욍기-(옮기-) 굉기-(곪기-)
ㄷ'. 깜배기{감보기} 매때기{묏도기} 꼰대기{본도기}
ㄹ. 귀경(구경) 뉘비(누비) 뉘피-(눕히-) 쥐기-(죽이-) 슁키-(숨기-)
ㅁ. 기리-(그리-) 디리-(드리-) 띠끼-(뜯기-)
(42) ㄱ. 땡기-{ᄃᆞᆼ긔} 배끼-{밧괴-} 새기-~사구-{사괴-}
ㄴ. 배끼{밧긔}

(41)은 환경에 따라 예들의 일부만 제시한 것인데 화순어에서 움라우트는 피동화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어'는 움라우트가 일어난 후(어>에) '이'로 변화하기도 하고(41ㄴ) '애'로 실현되기도 한다(41ㄴ'). 그리고 '오'는 움라우트가 일어난 후 비어두 위치에서 '애'로 실현되는데 이는 [+원순성]을 상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41ㄷ'). 또한 화순어에서는 순정의 '이'가 아니더라도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될 수 있다(42). (42ㄱ)의 동화주 '이'는 부동 이중모음 '의, 위'는 용언어간말에서 '이'로 변화한 경우이고 (42ㄴ)은 처격조사 '의'가 '이'로 변화하여 화석형으로 존재하는 경우인데 모두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의 움라우트 양상을 비교해 보자. (원)용천어에서 움라우트 현상은 피동화음이 '아, 어'인 경우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피동화음이 '오, 우'일 때

119) 이병근(1970ㄱ)에서도 '으:티끼(어떻게), 그리케(그렇게)' 등을 예로 들어 'ㄷ,ㄹ,ㄴ' 아래에서 '으>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송철의(1987)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음절두음이 'ㄷ,ㄹ'일 때 용언어간말 '이'가 glide화하지 않고 glide 첨가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바 있다. 혹시 [+전설성]이 관여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에도 움라우트를 보이기는 하나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모든 후설모음을 피동화음으로 하여 움라우트가 일어난다. 이러한 차이는 모음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용천어에서는 [œ]와 [ü]만 음성적으로는 존재할 뿐 음소로서는 기능하지 못한다. 즉 후설모음 '오, 우'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하는 전설모음이 존재하기 않는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부동 이중모음 '위[ui]'가 'ui>wi>ü'의 변화를 거치면서 전설원순모음 '외[ö], 위[ü]'가 모음체계에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그리하여 전설모음 5개와 후설모음 5개가 [±전설성]에 의한 상관대립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점이 움라우트를 자연스러운 규칙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3.2.3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현대 두 지역어에서 y계 이중모음의 실현은 그리 흔하지 않다.

(43) ㄱ. 열-(開) 약(藥) 욕(辱) 유리 옌주 애드래미
ㄴ. 볍~벱(부엌) 쇄경(소경) 귀경 병(甁) 병원(病院) 형(兄) -향(向)
교애(교회) 학교(學敎) 귤(橘)
(44) ㄱ. 열-(開) 약(藥) 요즘 유리
ㄴ. 경사 평(坪) 학교 교장 귤 휴가 효꽈
ㄷ. 사료 비료 훌륭허- 훈련 당뇨 숭년 가냐(가-느냐)

(43)은 ㉯용천어형이고 (44)는 화순어형이다. 먼저 ㉯용천어에서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모음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실현된다(43ㄱ). 그리고 선행자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중모음이 실현될 수 있으나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자어가 대부분이다(43ㄴ). 화순어에서도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모음의 실현이 자연스럽다(44ㄱ). 그리고 선행자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중모음이 실현되기는 하나 ㉯용천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자어에 한정된다(44ㄴ). 그런데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이 실현되는 정도에 있어서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용천어보다는 화순어에서 이중모음의 실현이 훨씬 활발하다. 특히 'ㄹ, ㄴ' 뒤에서 그 차이가 확연한데(44ㄷ) ㉯용천어에서 'ㄹ·ㄴ-y'의 연쇄는 거의

불가능하다.

두 지역어가 정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조를 통해 y계 상승 이중모음[120]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현대 두 지역어에 존재하는 공시적 음운 과정은 이를 더욱 뒷받침해 준다. 현대 두 지역어의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y계 상승 이중모음, 특히 '여'는 교체를 보인다.

(45) ㄱ. 이게(이기+어) 비베(비비+어) 떨어데(떨어디+어) 테(티+어) 마세(마시+어)
ㄴ. 제(지+어, 負) 체(치+어, 養) 쩨(찌+어, 썰물)
ㄷ. 보에(보이+어) 쏘에(쏘이+어) 고에(고이+어)
(46) ㄱ. 재폈다(잡히+었+다) 이깄다(이기-) 마싰다(마시-) 다칬다(다치-)
ㄴ. 졌다(지-, 負) 쳤다(치-, 養) 쪘다(찌-, 肥)

(45)는 ㉧용천어형이고 (46)은 화순어형이다. 두 지역어에서 '이'말음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여'가 형성될 수 있다.[121] 이 '여'가 ㉧용천어에서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에'로 실현된다(45).[122] 즉, 선행자음이 'ㅈ, ㅊ, ㅉ'일 때(45ㄴ)에나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45ㄷ)에도 예외는 없다. 그리고 화순어에서는 대부분 '여'가 '이'로 실현된다(46ㄱ). 이를 "완전순행동화(최명옥 1982), '어' 탈락(졸고 1995)" 등의 공시적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음운 과정은 통시적 변화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형태소 결합과정에서 형성된 '여'가 화순어에

---

120) 두 지역어에서 '야, 여, 요, 유, 예, 얘' 등이 변화할 당시 이 이중모음의 부음이 /y/이었는지, 아니면 /i/의 이음 [i̯]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 /y/로 추정하여 'y계 상승 이중모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 ㉧용천어에서 '야, 여, 요, 유' 등의 부음은 /y/이다. 이는 복합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멩지립성(멩질#입성)'과 '일$요일(일#요일)'을 비교하면 그 음운과정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2요소의 두음이 'i'이냐, 아니면 'y'이냐의 차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둘째, 두 지역어에서 '야, 여, 요, 유'는 주로 자음 뒤에서 변화를 겪는데 이는 '자음-i'가 아니라 '자음-y'의 연쇄를 꺼리는 제약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121) 어간말 모음이 '이'이고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 탈락하는 자음을 가진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에도 '여'는 형성될 수 있다.

122) 그런데 형태소 경계라고 하더라도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y탈락이 일어나기도 한다. ㉠ 터다보-(티+어다#보-).

서 '여>에>이'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23] 그런데 선행자음이 'ㅈ, ㅊ, ㅉ'인 경우에는 'y'가 탈락한다(46ㄴ). 우리는 이를 통해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여'의 변화가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원]용천어

먼저, '여'의 변화부터 검토하도록 한다.[124]

(47) ㄱ. 베(벼) 벨(별) 베루(벼루) 페-(申) 뻬(뼈) 멫(몇)
ㄴ. 게울(겨울) 게(겨) 게리-(결-) 켄(켠)
ㄷ. 더기{뎌어긔} 덜{뎔, 寺} 턴디{텬디} 너름{녀름) 미런허-(미련)
ㄹ. 서른{셜혼} 섬{셤} 저물-{져믈-} 젓{졋} 천{쳔, 千}
ㅁ. 헤{혀} 헤-~쎄-{ᅘᅧ-} 헝데~형데(형제)[125]
ㅂ. 옌주{연지} 예닐굽(예닐곱) 옌필(연필)

'여'는 선행자음의 종류에 따라 그 변화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먼저 [-전설성] 자음, 즉 양순음(47ㄱ)과 연구개음(47ㄴ) 뒤에서는 '여'가 '에'로 축약된다.[126] 그리고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여'가 y탈락을 경험한다(47ㄷ, ㄹ). 그리고 'ㅎ' 뒤에서는 축약과 y탈락의 실현형이 공존하는데 고유어와 한자어의 차이로 보인다(47ㅁ).[127]

---

123) 그런데 어미 '-어#'가 결합할 때에는 이러한 음운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여'가 그대로 실현된다. (예) 재펴(잡히+어), 이겨(이기+어), 마셔(마시+어) 등.

124) '여>에'의 변화가 상승 이중모음 변화의 단초가 되었을 가능성은 누차 이야기되어 온 바이다(김완진 1963, 백두현 1992:169).

125) '헝데'보다는 주로 '형데'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헹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26) 그동안 학계에 '여>에'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학설들이 제기된 바 있다. ① jə>əj>e(이광호 1977, 곽충구 1982, 최태영 1983), ② jə>e(이승녕 1954ㄴ, 이병근 1973, 최명옥 1982), ③ jə>je>e(김완진 1963), ④ jə>jəj>je>e(유창돈 1964ㄴ:159, 오종갑 1983, 최임식 1984, 최전승 1986), ⑤ ㉠ jə>jəj>je>e, ㉡ jə>e(백두현 1992:162).

127) 또한 이러한 차이는 'ㅎ'의 음성적인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즉 /ㅎ/은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음 [ç](+전설성)로, 기타 환경에서는 [h](-전설성)로 실현되는데 이 점이 y탈락과 축약의 변화를 모두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그리고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승 이중모음이 변화를 겪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로 변화하는 소수의 예들이 있다(47ㅂ). 결국 '여'는 선행자음이 [+전설성] 자음일 때에는 축약을, [-전설성] 자음일 때에는 y탈락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소수 존재한다. 먼저 선행자음이 [-전설성] 자음일 때 y탈락을 보이는 예는 '-으문(<-으먼<-으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128] 그런데 과연 '-으먼'이 '-으면'의 변화형인지는 의심이 간다.[129] 다음으로 [+전설성] 자음 뒤에서 y탈락 이외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들이 존재한다.

(48) ㄱ. 데~더{뎌, 彼}
ㄴ. 체네{쳐녀} 선네{션녀} 넘네{념려} 부체{부쳐, 夫妻} 제까치{져}
ㄷ. 세-{셔-, 立}
ㄹ. 젤펜{졀편} 덴장{뎐장, 田庄} 셍미{셩미} 네비{녀비, 旅費} 넨세{년셰}
체네{쳐녀} 체형{쳐형} 첸모{쳔묘, 遷墓}
ㅁ. 제네{젼+에, 前}

그런데 이런 예외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48ㄱ)의 '데'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의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 본다. 즉 '이'에 이끌려 '뎌'에 '이'가 첨가되어 '뎨'가 형성되고 '뎨>데'의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130] (48ㄴ)의 예들은 체언 어간말 '이'첨가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31] '아, 어' 종성 체언에 '이'가 첨가되는 양상은 거의 전국적이며 [원]용천어도 예

---

128) [원]용천어에서는 '가뷰-'은 표준어의 '가볍-'과 비교할 때 양순음 아래에서 y탈락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세문헌어 {가비얍-}을 참고할 때 다른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129) [원]용천어의 일반적인 변화 경향을 따르는 '-으멘(-으면서)'와 비교하면 '-으문'의 특이성이 더욱 드러난다. 또한 동남방언에 존재하는 '-으모(-으면)'를 참고할 때 혹시 그 기원이 다른 것은 아닐까 한다.

130) 이는 '그'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원]용천어에서 '그'보다는 '기'가 더 활발히 쓰이고 있는데 이 '기'도 '그'에 '이'가 첨가되어 '긔'가 되고 '긔>기'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부방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걔, 쟤' 또는 '갸, 쟈'가 그것이다. 이들은 '그, 저'에 '애(兒)' 또는 '아(兒)'가 결합한 것인데 '애(이#애)' 또는 '야(이#아)'에 이끌려 그와 같은 어형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가 아니다(예 가매(가마), 붕에(붕어) 등). 그리고 (48ㄷ)의 '세-'는 용언 어간말이라는 특수 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즉 어간 '셔-'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의 활용형은 '셔'인데 원용천어에서 활용형의 '여'는 모두 '에'로 변화한다. 따라서 활용형 '셔'가 '세'로 변화하고 화자들이 어간을 '세-'로 재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8ㄹ)의 예들은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후행음절에 'i, y'가 존재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i, y'가 '여>에'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한다. (48ㅁ)의 '젠'(前)은 주로 처격조사 '-에'와 결합하여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예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132]

(49) ㄱ. 개름허-{갸름ᄒᆞ-} 깨울깨울{갸웃갸웃} 뺌{뺨}
ㄴ. 땱-(댜ᄅᆞ-, 短} 당개{댱가} 낭반{냥반} 불랑(불량)
ㄷ. 사마구{샤마괴} 자래{쟈래} 자루{쟈ᄅᆞ}
ㄹ. 항뿔~향뿔
ㅁ. 야드래미~얘드래미
(50) ㄱ. 새치{샤치, 奢侈}
ㄴ. 재랑{쟈랑}

'야'의 변화 양상도 '여'가 비슷하다. [-전설성] 자음(양순음, 연구개음) 뒤에서는 '야'가 '애'로 축약된다(49ㄱ). 그리고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야'의 'y'가 탈락한다(49ㄴ, ㄷ).[133] 후음 뒤에서는 '여'와 달리 축약을 보여주는 예들이 없는데 '햐'와 같

---

131) '제까치'는 {져}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제'(箸)에 '가치(가락)'가 결합된 복합어일 가능성이 높다.

132) 필자는 '제네'가 '저네(전+에)'의 변화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후행하는 음절에 존재하는 '에'의 영향으로, 같은 중모음인 '어'가 전설모음 '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어에서 쓰이는 '대매(다음+에), 배깨(밖+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억측을 삼가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133) 이 지역어에서 'ㄷ, ㅌ, ㄸ' 뒤에서 '야'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디#않-'의 결합에서 '이'가 활음화하여 수의적으로 '-댢-'이 되는 경우인데 y탈락을 경험하지 않는다. 예 펜티않-~펜턓-(편찮-), 귀티않-~귀턓-(귀찮-), 허디않-~허댢-(하지않-) 등. 다만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한해 y탈락을 보이는 예들이 존재한다. 예 점댢-(점잖-), 에땮-(언짢-) 등.

은 연쇄를 가진 고유어가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행자음이 없을 때는 '야'의 실현이 자연스러운데 거의 유일하게 '야>얘'의 변화를 보이는 예가 '얘드래미'이다. '야'의 경우도 '여'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예들이 있다(50). (50ㄱ)의 '새치'는 '여'의 변화에서 보았듯이 후행음절의 '이'가 '야>애'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50ㄴ)의 '재랑'은 그 변화 과정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여, 야'와는 달리 '요, 유'는 대부분 y탈락을 경험한다.

(51) ㄱ. 뾰족허-{ᄲᅭ족ᄒᆞ-} 포준말 포범 첸<u>모</u>{쳔묘, 遷墓}
　　ㄴ. 돔- 당노(당뇨) 재로(재료)
　　ㄷ. 소{쇼, 牛} 종애{죠희} 초{쵸, 燭}
　　ㄹ. 호자(효자) 호과(효과)
(52) ㄱ. 두야{듀야, 晝夜} 둥무{듕믜} 누행(流行) 훌룽(훌륭)
　　ㄴ. 수박{슈박} 죽{쥭, 粥} 중{즁, 僧}
　　ㄷ. 훙(흉) 훙년(흉년) 훙악(흉악)
(53) 쒸시-{슈시-} 쒸시{슈슈} 쥐추{쥬츄}

(51)은 '요'의 경우이고 (52)는 '유'의 경우이다. '요, 유' 앞에 자음이 존재하는 단어는 상당수가 한자어이다. 따라서 이중모음의 변화가 그리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하여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단어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 이중모음이 변화를 경험한다면 거의 대부분 'y'가 탈락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듯한 예들이 존재한다(53). 이들은 후행음절에 'i, y'가 존재한다는 점이 공통적인데 y탈락을 경험하는 대신 [ü]로 실현된다.

(54) ㄱ. 베-{볘-, 枕} 세상{셰상, 世上} 네장{녜장, 禮裝} 형<u>데</u>{형뎨}
　　ㄴ. 내기{<내기<니야기}

선행자음이 존재할 때의 '예'와 '얘'는 각각 [ye]와 [yɛ]로 변화한 후 모두 'y'가 탈락한다(54). Ross(1877)에서도 '예, 얘'의 'y'가 실현되는 예들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y'가 탈락한 시기가 비교적 이르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 화순어

먼저, '여'의 변화 양상을 보도록 한다.

(55) ㄱ. 서른{셜혼} 섬{셤} 저물-{져믈-} 젓{졎} 천{쳔}
ㄴ. 쩌기{뎌어긔} 절{뎔}
ㄷ. 저(겨) 절-(결-) 저탈밋(겨드랑)
ㄹ. 서{혀} 성{형}

(56) ㄱ. 비실(벼슬) 빌(별) 밋(몇) 미느리(며느리) 핀지(편지) 핑상(평상)
ㄱ'. 깽본(강변) 매룹-(마렵-) -으먼(-으면)
ㄴ. 이드름(여드름) 이핀내(여편네)

이 지역어에서 [+전설성] 자음 뒤의 '여'는 거의 대부분 y탈락을 경험한다(55).[134] 그런데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는 <4.2.1.1 설면음화>에서 후술할 설면음화와 시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화순어에서는 설면음화(ㄷ>ㅈ, ㄱ>ㅈ, ㅎ>ㅅ)의 시기가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중모음의 변화가 선행한다면 동화주가 사라져 설면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어에서 'ㄷ, ㄱ, ㅎ' 뒤의 'y'는 선행자음을 설면음화시키고 이어서 'ㅈ, ㅅ' 뒤에서 탈락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설성] 자음인 양순음 뒤에서 '여'는 대체로 축약(여>에)한 다음 '이'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6ㄱ).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56ㄱ') 그 기원이 의심스러운 '-으먼'을 제외하면 움라우트의 동화주인 'y'가 탈락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 '여'가 변화하는 것은 (56ㄴ)에 제시한 예가 전부인 듯하다. 결국 화순어에서도 ㉯용천어와 마찬가지로 상승 이중모음 '여'가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y탈락을 경험하고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57) 짜우뚱(갸우뚱) 장가{댱가} 자리{쟈ᄅᆞ} 사마구{샤마괴} 상뿔{향불} 양반{냥반}

---

134) 물론 설단-치경음 'ㄹ, ㄴ' 뒤에서는(비록 [+전설성] 자음이기는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이중모음이 자연스럽게 실현됨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야'의 변화도 '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57). 다만 '양순음+야'의 연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 '야>애'의 변화는 관찰하기가 힘들 뿐이다.

(58) ㄱ. 푀~패(표) 뾔쪽허--~빼쪽허- 괴욱(교육) 회녀(효녀)
　　ㄴ. 소{쇼} 좋-{둏-} 소자{효자}
(59) ㄱ. 휘가(휴가) 원귀(원규, 人名)
　　ㄴ. 수박{슈박} 죽{쥭} 중매{듕미} 숭년(흉년)

'요, 유'도 자음 뒤에서 '여, 야'의 변화 양상과 비슷하다. '자음+요·유'의 연쇄는 화순어에서 심한 변화를 입은 것이 아니지만 만약 이중모음 '요, 유'가 변화한다면 선행자음이 [+전설성] 자음일 때에는 대체로 'y'가 탈락하고 [-전설성] 자음일 때에는 축약을 하여 각각 '외, 위'로 변화한다.

(60) <u>시</u>상(세상) 회<u>기</u>(회계) 기<u>개</u>(기계)

그리고 '예, 얘'는 자음 뒤에서 반드시 'y'가 탈락한다. 그런데 '예, 얘'의 변화는 '여, 야, 요, 유'의 변화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여, 야, 요, 유'의 변화는 대체로 선행자음 뒤에서 변화하는데 '예, 얘'는 선행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 애'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 야, 요, 유'의 변화 원인은 '자음-y'의 연쇄를 기피하려는 데에 있지만 '예, 얘'의 경우는 이 이중모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전설성]을 가진 'y'와 '에, 애'의 연쇄를 기피하려는 일종의 이화에 의한 y탈락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에서 '야, 여, 요, 유'는 '자음-y'의 연쇄를 기피하려는 노력에 의해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선행자음이 없을 때에는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자음 뒤에서 그 변화를 활발히 관찰할 수 있다. 두 지역어에서 자음 뒤의 '여, 야'는 변화 방향이 대체로 비슷하다. [-전설성] 뒤에서는 축약되어 각각 '에, 애'로 변화하며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y'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요, 유'의 변화 양상은 두 지역어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㉑용천어에서는 대부분 'y'가 탈락하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전설성] 자음 뒤에서 축약된다.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두 지역어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요, 유'의 경우인데 이는 모음체계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 야'의 경우는 두 지역어가 동일하게 '어—에, 아—애'의 [±전설성] 대립 체계가 확고해 축약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요, 유'의 경우는 다르다. 즉 화순어는 '오, 우'의 [+전설성] 대립짝인 '외, 위'의 지위가 모음체계에서 확고하지만 [원]용천어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화순어에서는 '요>외, 유>위'의 축약이 가능한 반면 [원]용천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에서 두 지역어의 차이는 모음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2.4 고모음화

고모음화는 비고모음이 고모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고모음화가 두 지역어에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예들을 찾을 수 있다.

(61) ㄱ. 선스나~서나(선#사내)135) 새쓰방(새#서방) 어쯔낙(어제#저녁)
ㄴ. 바우래기(바#오라기)
(62) 자부댕이-(잡아#당기-) 삼시롱~삼서(살+으면서)

(61)은 [원]용천어형이고 (62)는 화순어형이다. (61ㄱ)은 '어>으'의 변화를 보여주는 복합어이다. 그리고 (6ㄴ)은 '오>우'의 변화를 보여주는 복합어이다. 이 지역어에 존재하는 '왜오래기(외#오라기)'와 비교하면 '오>우'의 변화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원]용천어에서 '어>으, 오>우' 고모음화가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2)에서 '자부댕이-'는 '자버댕이-(잡+어 댕이-)'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면서 '어>으'의 변화를 거치고 이 '으'가 원순모음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시롱'은 '삼서'에 '롱'이 결합한 어형인데 두 어형의 차이에서도 '어>으'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

135) '선스나'에서 '선'은 표준어 '선머슴'의 '선'과 성격이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표준어 '사내'의 중세어형이 'ᄉᆞ나ᄒᆡ'인 점을 감안하면 '선스나'의 선대형으로 '*선ᄉᆞ나ᄒᆡ'를 재구하여 제2음절의 'ᆞ'가 직접 '으'로 변화하여 '선스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지역어에서 '서나'도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스나'는 '선서나'의 변화로 보려 한다.

■ 원용천어

먼저 '어>으'의 고모음화는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두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인 예는 찾아 보기 힘들다.

(63) ㄱ. 어즈께~어지께(어저께) 그즈께~그지께(그저께)
ㄱ'. 기리문(그러면) 어뜨케(어떻게) 이리케(이렇게)
ㄴ. 무넝(무명) 시덥(접시) 양념(양념) 멍석 거럼(그럼) 거저(그저)
ㄷ. 먹어(먹+어) 너꺼정(너+꺼정) 나터렁(나+터렁, 처럼)
ㄹ. 버버리(벙어리) 벌거지(벌레)

결국 '어>으'는 비어두 위치에서 일어난다(63ㄱ). 이 때 '으'는 뒤이은 변화(예 으>이)를 경험할 수도 있다(63ㄱ'). 하지만 비어두 위치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단어들이 아주 많다. 먼저 어말 위치나(63ㄴ),[136] 문법형태소(조사, 어미)의 첫머리(1ㄷ)의 어'는 비록 비어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63ㄹ)의 예들은 어느 정도 고모음화의 환경을 만족시키는데 이들도 이러한 변화를 모른다. 이는 화자들의 인식속에 존재하는 '어리/아리, 어지/아지'의 대립이 '어'의 고모음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그렇다면 원용천어에서 '어>으'의 고모음화는 비어두-비어말 위치라는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오>우'의 고모음화도 '어>으'의 고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어두 위치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비어두 위치에서 '오>우'의 변화는 '어>으'와 비교해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어말 위치에서의 변화를 개음절과 폐음절로 나누어 살피도록 한다.

(64) ㄱ. 고누 모루 베루 동무 채수(菜蔬) 산수(山所) 앵두
고추 대추 고무(姑母) 장구
ㄱ'. 포도 이모 수도
ㄴ. 모두- 배우- 노누- 바꾸- 가꾸- 감추-

---

136) '-으문(-으면)' 정도가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원이 의심스러움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ㄷ. 따루 고루 아주 마주 하두 바루 모두 손수
ㄹ. -두 -구 -으루 -우(<-으우<-으오, 명령형 어미)
ㄹ'. -으오/소(의문형 어미) -어/아<u>요</u>

먼저 개음절인 경우에 '오>우'의 고모음화는 매우 활발하다(64). (64ㄱ)은 체언의 경우인데 어원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한자어의 경우에 예외가 존재할 뿐(64ㄱ') 많은 단어들에서 이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용언(64ㄴ), 부사(64ㄷ)의 경우는 '오>우'의 고모음화가 더욱 강력해 거의 예외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용언과 부사에 '오'로 끝나는 한자어가 거의 없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64ㄹ)은 문법형태소(조사, 어미)의 경우인데 이 때에도 변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64ㄹ')의 어미들은 고모음화를 경험한 어형을 전혀 관찰할 수가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명령형 어미 '-우'와 비교할 때 의문형 어미 '-으오'가 고모음화를 경험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결국 몇몇 비음운론적인 예외들을 제외하면 개음절 어말의 '오>우'는 매우 강력한 변화이었음을 알 수 있다.

(65) ㄱ. 말뚝 삼춘 사둔 동긋 송긋 방울
ㄴ. 널굽~널곱 아웁~아옵 배꿉~배꼽 시굴~시골 손툽~손톱 사궁~사공
ㄷ. 골목 농촌 청사초롱
ㄷ'. 보롬 소곰 고롬(膿) 조꼼 오종(尿)

폐음절 어말의 경우는 체언에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 때에도 '오'의 모음 상승은 꽤 활발하다(65ㄱ). 하지만 개음절과 비교해 볼 때 그 정도는 약하지 않나 싶다. (65ㄴ)은 자유변이하는 어형들이며 (65ㄷ)은 '오>우'의 변화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예들이다. 특히 (65ㄷ')의 예들은 선행음절에 '오'가 고모음화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한다.

(66) ㄱ. 까마구 사마구 사우 파우 바뀌- 사귀-
ㄴ. 모래{모뢰, 後後日} 부새-{부쇠-/보쇠-} 종애{죠희} 동애{동희}

이중모음 '외'도 '위'로 고모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6ㄱ).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있다(66ㄴ). 이때에도 고모음화를 방해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선

행음절에 있는 '오'가 아닌가 한다.137)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는 매우 많은 단어들이 고모음화를 경험한다.

(67) ㄱ. 까투리 갈쿠지(갈고리) 소구리(소쿠리) 차우지(창호지) 바우래기(바#오래기)
모주리(모조리) 가운대 가우리(가오리) 아무가이(아무개)

ㄴ. 오소리 도토리 조고리{져고리} 왜오래기{외#오래기}

이 환경은 대부분 개음절인데 가장 활발한 '오>우'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67ㄱ). 다만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존재하는데(67ㄴ) 이 경우에도 선행음절에 존재하는 '오'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한다.138)

■ 화순어

화순어에서도 '어>으'의 고모음화는 비어두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68ㄱ).

(68) ㄱ. 어무니(어머니) 아부지(아버지) 자부댕이-(잡아 당기-) 어지깨 그지깨
삼<u>시</u>롱(살+으면서) 그르먼~글먼(그러면) 어뜨캐

ㄴ. 구먹(구멍) 구석 덕석(멍석)

ㄷ. 먹어(먹+어) 멀어서(멀+어서)

ㄹ. 버버리 벌거지

이 때 '으'는 환경에 따라 뒤따르는 음운변화, 즉 원순모음화, '으'전설음화, '으'탈락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원]용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어두 '어'의 고모음화에

---

137) 비록 '부새-'는 이러한 환경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주로 '가시부새-'와 같은 형태로 쓰이는 점으로 미루어 '부새-'는 '보쇠-'의 반사형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새-'가 '부쇠-'의 반사형이라고 하더라도 '보쇠-'의 반사형으로 '*보새-'를 상정할 수 있다면 이의 간섭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행음절의 '오'가 모음 '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은 곽충구(1994)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38) 곽충구(1994:258)에서는 이를 '오'의 강한 동화력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예로 제시된 '바우래기'와 '왜오래기'에 있어서 고모음화의 차이도 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 먼저 어말의 '어'는 이러한 변화에서 제외된다(68ㄴ). 어말과 비어말에 있어서 고모음화 여부는 동일한 기원의 '-음서'와 '-음시롱'의 비교에서 확인된다. 즉 '-음서'는 어말위치이기 때문에 어'가 실현되나 '-음시롱'의 '어'는 어말위치를 벗어나면서 '어>으'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어 'ㅅ'뒤에서 '으'가 '이'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문법형태소(조사, 어미)의 첫머리의 '어'도 이러한 변화를 모른다(68ㄷ). (68ㄹ)의 예들은 (원)용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자들의 머리속에 '어리/아리, 어지/아지'의 대립이 분명하게 존재함으로 인해 '어'의 상승이 거부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화순어의 '어>으'의 변화는 (원)용천어와 같이 극히 제한된 환경, 즉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원)용천어와 마찬가지로 '오>우'의 고모음화가 어두에서 일어난 예는 없다. 이러한 변화는 비어두 위치에만 한정되는데 (원)용천어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는 않다.

(69) ㄱ. 동무 생두 대추 부주(扶助)
ㄱ'. 말뚝 삼춘 사둔
ㄴ. 모두- 배우- 나누- 바꾸- 가꾸- 감추-
(70) 까마구 사마구 사우 바우 배끼- 사구-~새기-

(69)의 예들은 어간말에 '오'가 위치하는 경우이다. 체언어간의 경우 개음절 어간(69ㄱ)과 폐음절 어간(69ㄱ')에 관계없이 '오>우'의 변화를 보이는 예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은 그리 많지 않아 여기에 제시한 예들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순수하게 음운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체언과는 달리 개음절 용언어간말에서 '오'가 실현되는 예는 전혀 찾을 수 없다. 즉 '오'는 모두 '우'로 변화한 것이다(69ㄴ). 용언어간말에서 '오>우'의 고모음화가 이렇게 활발한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의존 형태소인 용언의 어간말 위치는 비어두-비어말 위치라는 점이다. 둘째, 모음 어미 '-아/어'와의 결합시 활음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위치라는 점이다. 즉 용언어간말 모음 '오'와 '우'는 이들 어미와 결합하여 활음화하면 모두 'w'로 실현되는데 이 점이 '오'와 '우'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으리라 추정한다. 그리고 화순어에서 이중모음 '외'가 '위'로 고모음화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70). 단모음 '오'와는 달리 이중모음 '외'의 '오'가 고모음화를 활발히 실현하는 까닭은 후자의 '오'가 비어두-비어말 위치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71) ㄱ. 바구리(바구니) 까투리 깔쿠리 소쿠리 저구리 마구자(마고자)
깨구락지(개구리) 가운대 아무개
ㄴ. 오소리 도토리 상소리(상수리) 가오리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는 '오>우'의 고모음화가 아주 활발함을 볼 수 있다(71ㄱ). 다만 이 변화에서 벗어난 예들이 존재하는데(71ㄴ) ㉤용천어에서와는 달리 그 음운론적 조건을 분명히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지역어에는 '어>으, 오>우'의 고모음화 외에도 전설모음 '에, 외'의 고모음화도 존재한다. 그런데 <3.1.1 '에'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언급했듯이 화순어의 '에'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이'로 바뀌면서 비음운화했으며 '외>위'의 고모음화도 '외아' 연쇄라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수의적으로 일어난다(72)는 점에서 '어>으, 오>우'의 고모음화와 성격이 다르다.

(72) 뒤아지~되아지(돼지) 쉬앙치~쇠앙치(송아지) 쉬악~쇠악(楔)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에서 '어>으'의 고모음화는 비어두-비어말 개음절 위치에 한정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우'의 고모음화도 비어두-비어말 위치와 이중모음 '외'에 한정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이중모음 '외'의 '오'도 비어두-비어말 위치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두 지역어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오>우'의 고모음화는 비어두-비어말 위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용천어에서는 '오>우'의 고모음화가 그 환경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즉 비어두 개음절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변화가 일어나며 비어두 폐음절인 경우에도 다수 단어들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비어두-비어말 위치가 아닌 경우에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예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용천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두 지역어에서 '어>으'와 '오>우'가 공통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위치가 비어두-비어말이라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이숭녕(1959)에 따르면 비어두는 "音節母音의 分節의 不分明 또는 聽覺印象의 不分明이 흔히 수반되는" 위치이다. 이는 음성의 부정확성과도 관련이 있을 듯한데 이는 비어말 위치에서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모음화는 음성적 부정확성에 따른 약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변화가 폐음절일 때보다 개음절일 때 더 활발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Kenstowicz(1994:251)에 따르면 "언어보편적으로 개음절이 약화에 더 민감하기"[139] 때문이다.

고모음화는 모음체계에서 모음들이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고모음화는 비어두-비어말 위치의 후설모음에만 한정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원)용천어에서 '오>우'는 환경을 확대하여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 반면 '어>으'는 그러지 못하다. 또한 (원)용천어에서 전설모음 '에'는 '이'로의 고모음화를 모르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에'가 '이'로 합류한다. 따라서 두 지역어에서 보이는 고모음화가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을 바탕으로 한 모음들의 체계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두 지역어에 [±고모음]에 의한 대립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설성], [±원순성]에 의한 대립보다는 상대적으로 강력하지는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2.5 모음충돌의 변화

현대 두 지역어에서 음절들이 연결될 때 모음충돌[140]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73) ㄱ. 가운대 따우(따위)[141] 거우(蛔) 더우(더위) 게우(겨우)
내우(內外) 쌔우(蝦) 디우-(除) 비우(脾胃)
ㄴ. 가이~개(犬) 아이(初) 궈이(게) 서이~셋(三) 어이딸(母女)
매일~맬:(每日) 내일~낼:(來日) 데일~델:(데일) 노인 오이 주인~쥔
(74) ㄱ. 가운대 바우(巖) 서운허- 지우-(除) 내우(內外)
ㄴ. 서이~싯(三) 너이~넛(四) 노인 주인 죄인

---

139) Cross-linguistically open syllables are more suceptible to reduction.

140) 두 지역어에서 음절이 연결되는 방식에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음을 <2.2.1 음소배열> 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 중에 'V_1'과 'V_2'가 모두 단모음인 제1유형을 우리는 흔히 '모음충돌[Hiatus]'이라고 일컫는다.

141) 심양어에서는 '기딴(그따위)'이라는 어형이 자주 쓰이는데 이것이 '따우(<따위)'와 관련이 있다면 '우'가 탈락하는 소수 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73)은 (원)용천어형이고 (74)는 화순어형이다.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후행모음이 '우' 또는 '이'일 때 모음충돌이 유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모음충돌을 회피[142]하려는 노력의 일단을 공시적인 형태소 결합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75) ㄱ. 써(쓰+어) 떠서(뜨+어서) 간(가+은)
　　ㄱ'. 닐:(닛+을, 繼) 싼:(쌓+은, 積)
(76) ㄱ. 떼(띠+어, 烝) 페(피+어, 發花) 이게(이기+어) 네(닛+어) 떼(띵+어)
　　　모에(모이+어) 보에(보이+어)
　　ㄴ. 쏴(쏘+아) 놔(놓+아) 쒀(쑤+어) 바꿔(바꾸+어)

위의 예들은 (원)용천어형인데 화순어형도 모음충돌 회피 방식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는 생략한다. (75)는 '으'가 기타 모음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때 '으'탈락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모음충돌이 회피된다. 여기에서 (75ㄱ')의 예는 모음 사이의 자음이 탈락하여 모음충돌을 형성하고 뒤이어 '으'가 탈락한 것이다. (76)은 '이, 우, 오'에 '어, 아'모음이 후행할 때 선행모음 '이'(76ㄱ)는 반모음 'y'로, '우, 오'(76ㄴ)는 반모음 'w'로 교체된 것이다. 우리는 두 지역어에서 공시적으로 보이는 모음충돌 회피 현상('으'탈락, 반모음화)을 통해 이들을 포함한 모음충돌 회피가 형태소 내부에서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 (원)용천어

이 지역어에서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두 모음 중에 어느 한 모음을 탈락시킨다.

---

142) 모음충돌은 심리적으로 우리의 감각에 심한 불쾌감을 주고(이숭녕 1954ㄱ) 음절구조의 연속성 추구라는 동기에 위배되기 때문에(강창석 1984),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숭녕(1954ㄱ)에는 그 방향으로 '母音收約(Contraction), 母音脫落, 子音介入' 등의 3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허웅(1965:226)에서는 '닿소리나 반홀소리를 넣는 일, 한 성절음을 반홀소리로 하여 두 음절을 한 음절로 만드는 일, 한 성절음을 아주 없애는 일' 등을, 강창석(1984)에서는 '활음화, 활음삽입, 모음탈락' 등을 모음충돌 회피 방식으로 언급한 바 있다.

(77) ㄱ. 갈:{<가을, ᄀᆞᅀᆞᆯ} 맘:{<마음, ᄆᆞᅀᆞᆷ} 댐:{<다음, 다ᄋᆞᆷ}[143]
덤:{더음} 김:{<기음, 기ᅀᅳᆷ} 밈:(<미음, 米飮) 님:{니ᅀᅳᆷ}
벰:{<비음, 비ᅀᅳᆷ}[144] 냄:새{내ᄋᆞᆷ}

ㄴ. 시골{<스ᄀᆞ올, 스ᄀᆞᄫᆞᆯ} 돼-{<ᄃᆞ외-, ᄃᆞᄫᆡ-} 기튼날(<그이튼날)
홋{ᄒᆞ옷} 홀애비{ᄒᆞ올아비} 뒤:-{드위-} 굴:-{구을-, 轉}
거:(<그어, 긋+어) 것:두(<그엇두<그것두)

ㄴ'. 함자{<ᄒᆞ오ᅀᅡ, ᄒᆞᄫᆞᅀᅡ}

ㄷ. 게울르-{게으르-} 게울{겨ᅀᅳᆯ} 여울{여흘}

(78) 델:{데일} 맬:(每日) 낸:(內人) 낼:(來日) 챌:(遮日)

(77)의 예들은 모음충돌을 형성하는 한 모음이 '으' 또는 'ᄋᆞ'인데 이 경우 '으, ᄋᆞ'는 탈락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 그 위치는 연쇄를 이루는 모음에 후행하든지(77ㄱ), 선행하든지(77ㄴ)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함자'는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난 형태이다. 이는 'ᄋᆞ>아'의 변화가 꽤 일렀거나 아니면 '한(一)'의 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있겠다. 한편 이러한 탈락에 대한 보상으로 장모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돼-, 홋, 홀애비, 기튼날'과 같은 예외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환경에서 '으'가 탈락하지 않고 '우'로 변화하는 예들도 있다(77ㄷ). 그런데 그 음운론적 환경을 명확히 하기란 쉽지 않다. 모음충돌에서 후행모음이 '이'일 때 이 '이'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78). 아때 선행모음은 전설모음에 한정되어 후설모음 뒤에서 '이'가 탈락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가 탈락할 때에도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장모음화가 수반된다.

(79) ㄱ. 넷(古) 냇물(川) 매뗑(墓) 개(犬) 새(鳥) 셋(三) 넷(四)[145]
ㄴ. 쐐-~쏘이- 배우-~보이-(視) 채우-(차이-, 蹴) 태우-(燒)

---

143) '댐'은 '담'의 변화로 보이는데 처격조사 '-애'와 함께 쓰이는 매우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이 '담>댐'의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144) '벰'은 '멩질벰'과 같이 복합어에서만 쓰인다. 또한 '벰'은 '빔'의 변화로 보이는데 심양어에는 '이>에'의 변화처럼 보이는 예들이 소수 존재한다. 예 젠~쥔(主人), 데역(懲役), 넘테(廉恥) 등.

145) 위에서 보았듯이 '개, 새, 셋, 넷'은 각각 '가이, 사이, 서이, 너이'와 쌍형으로 공존한다. 그런데 화자들은 후자를 古形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자의 사용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ㄴ'. 쥔~쥅~주인 뉘-~누피-(臥)
ㄷ. 새~사이{사ᅀᅵ, 間}

둘째,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중모음화가 있다(79). 이숭녕(1947)에서는 이를 '축약'에 의한 변화로 본 것인데 중간 과정으로 이중모음화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중간 과정으로 이중모음화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79ㄴ')의 예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u$i-'의 'u$i'가 직접적인 축약을 했다면 단모음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나 심양어에서 단모음 /ü/는 인정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원)용천어에서 모음충돌이 직접 축약의 변화를 보이는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146]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은 정확히 말해 이중모음화인 것이다. '개'를 예로 들면 'ka$i > kai$(이중모음화) > kε(축약)'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겠다.

(80) ㄱ. 녕:(<녕<*니엉, 이엉) 야:(<이아, 이아이) 여기{이어긔}
ㄴ. 둬:~두어 둼:~두엄 멋:~뭣:~무엇 괌:(고함)
(81) ㄱ. 니약허-(이악스럽-) 시야이(<시아이, 시동생) 미염(ㅁ) 비엽(ㅂ)
ㄴ. 수월허-(*수혈ᄒᆞ-)

셋째, 선행모음이 반모음화하거나(80) 두 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는(81) 경우인데 이러한 변화는 선행모음이 '이' 또는 '우, 오'일 때 일어난다. 그리고 반모음화 후에 환경에 따라서 이 반모음은 탈락하기도 한다(예 녕(영), 멋(무엇) 등).

(82) ㄱ. 마이{:매, 鷹)
ㄴ. 쓴나이{나ᅀᅵ} 모이{모ᅀᅵ} 구이{구ᅀᅵ} 강애~가아{ᄀᆞᅀᅢ} 죵{조ᅀᅵ}[147]
눙애{누베} 또아리{ᄯᅩ아리} 꼬아리{ᄭᅩ아리} 노이{노ᄒᆞ, 繩} 죵애{죠ᄒᆡ}

넷째, 자음을 삽입하는 경우인데 이 때 삽입되는 자음은 'ㆁ[ŋ]'이다. (82)에서 볼 수 있듯이 (원)용천어에서는 'ㆁ'의 삽입이 꽤 활발한데 이는 서북방언의 특징이라고

146) 이숭녕(1947)에 따르면 중부방언의 '불곳(거웃)'이 축약의 훌륭한 예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심양어에서는 자료 부족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147) '죵'은 두 모음 사이에서 'ㆁ'이 삽입되고 '이'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82ㄱ) 대개 모음간에서 자음(ㅿ, ㅸ, ㆆ)의 탈락하여 형성된 모음충돌에서 이 형성된 경우에 'ㆁ'의 삽입이 활발한 듯하다(82ㄴ).

■ 화순어

이 지역어에서도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은 ㉮용천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83) ㄱ. 맘:(마음) 담:(다음) 덤:(덤) 냄:시(냄새)
ㄴ. 시골{스ᄀᆞᆯ} 되-{ᄃᆞ외-} 호래비{ᄒᆞ올아비} 혼차{ᄒᆞ오ᅀᅡ}
ㄷ. 끼울-{게으르-} 여울{여흘}
(84) 질:{뎨일} 맬:{밀} 널:~니얼~니알{너일}
(85) ㄱ. 새(鳥) 새(間) 매(鷹) 기(蟹) 싓(三) 넛(四) 묏(墓)
ㄴ. 사이(間) 서이(三) 너이(四)
(86) 여그{이어긔} 멋(무엇) 괌(고함) 쉴허-(수월하-)
(87) 좋우{죠히} 갱아지{가야지} 망아지{ᄆᆞ야지}

첫째, 두 모음 중에 어느 한 모음을 탈락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모음충돌을 형성하던 한 모음이 역사적으로 '으, ᄋᆞ'인 경우인데 이들 모음은 모음충돌에서 후행모음이든(83ㄱ), 선행모음이든(83ㄴ) 상관없이 탈락한다. 다만 '으'가 탈락하지 않고 '우'로 변화하는 예들도 있다(83ㄷ). 그리고 선행모음이 전설모음일 때에 한해 후행하는 모음 '이'가 탈락하기도 한다(84). 둘째, 이중모음화에 의해 모음충돌을 회피한다(85ㄱ). 이들은 이중모음화를 경험하고 이어서 단모음화하여 모음충돌을 회피한다. 하지만 여전히 모음충돌을 형성하고 있는 단어와 쌍형으로 존재하기도 한다(85ㄴ). 셋째, 선행모음이 반모음화한다(86). 넷째, 자음 'ㆁ'을 삽입한다(87). 그런데 자음 삽입에 의해 모음충돌을 회피하려는 변화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48]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에서는 모음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데 ㉮ 모음탈락, ㉯ 이중모음화, ㉰ 반모음화(또는 반모음 첨가), ㉱ 자음 'ㆁ'의 첨가 등이 그

---

148) '갱아지, 망아지'가 모음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기원적인 문제인지도 확실치 않다. 또한 '망아지'의 경우 'ㅁ' 아래에서 'ᄋᆞ'가 '아'로 변화한 것을 보면 이 단어는 방언차용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것이다. 두 지역어 모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다. 다만 화순어에 비해 [원]용천어에는 자음 'ㆁ'을 첨가하는 변화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2.6 두 지역어의 '통합상의 변화' 대조

지금까지 두 지역어의 '통합상의 변화'의 대조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 두 지역어에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그 예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이다. 그러나 순행적 원순모음화(으>우, ᄋᆞ>오)는 꽤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화순어에서는 '으>우, ᄋᆞ>오'의 원순모음화가 모두 강력한 규칙으로 작용한 반면에, [원]용천어에서는 'ᄋᆞ>오'의 원순모음화가 그리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용천어에서 존재하지 않은 '어>오'의 원순모음화가 화순어에는 존재한다는 점도 두 지역어의 차이이다. 그리고 비원순모음화 규칙이 [원]용천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화순어와의 차이이다. 화순어에서는 어두의 전설원순모음 '외[ö], 위[ü]'가 양순음 뒤에서 각각 '애/에, 이'로, 비어두의 후설원순모음 '우, 오'가 원순모음 뒤에서 '으'로 비원순모음화한다.

㈏ '으>이' 전설모음화 :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는 '설면성 동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존재했음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반면에 [원]용천어에서는 일부 환경에서만 이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원]용천어에서 이 변화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 이외에, [원]용천어에는 '이' 모음에 의한 순행적 '으>이' 전설모음화가 화순어와는 달리 존재한다.

㈐ 움라우트 : [원]용천어에서 움라우트 현상은 피동화음이 '아, 어'인 경우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피동화음이 '오, 우'일 때에도 움라우트를 보이기는 하나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모든 후설모음을 피동화음으로 하여 움라우트가 일어난다.

㈑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 두 지역어에서 '야, 여, 요, 유'는 '자음-y'의 연쇄를 기피하려는 노력에 의해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선행자음이 없을 때에는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자음 뒤에서 그 변화를 활발히 관찰할 수 있다. 두 지역어에서 자음 뒤의 '여, 야'는 변화 방향이 대체로 비슷하다. [-전설성] 뒤에서는 축약되어 각각 '에, 애'로 변화하며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y'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요, 유'의 변화 양상은 두 지역어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원)용천어에서는 대부분 'y'가 탈락하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전설성] 자음 뒤에서 축약된다.

(마) 고모음화 : 두 지역어에서 '어>으'의 고모음화는 비어두-비어말 개음절 위치에 한정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우'의 고모음화도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 두 지역어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원)용천어에서는 '오>우'의 고모음화가 그 환경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즉 비어두 개음절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변화가 일어나며 비어두 폐음절인 경우에도 다수 단어들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비어두-비어말 위치가 아닌 경우에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예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원)용천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바) 모음충돌의 변화 : 두 지역어에서는 모음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데 ㉮ 모음탈락, ㉯ 이중모음화, ㉰ 반모음화(또는 반모음 첨가), ㉱ 자음 'ㆁ'의 첨가 등이 그것이다. 두 지역어 모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다. 다만 화순어에 비해 (원)용천어에는 자음 'ㆁ'을 첨가하는 변화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음의 '통합상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모음체계(또는 자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인가, 그렇지 않는 변화인가에 따른 구분이 그것이다.

㉮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 :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으>이'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고모음화
㉯ 체계와 관련이 비교적 적은 변화 : 모음충돌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음운변화의 유형(교체, 축약, 탈락, 첨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체와 축약은 음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탈락과 첨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런데 체계와 관련이 비교적 적은 변화는 음소 자체의 특성과 음소배열의 제약, 즉 분화 이전의 母體로서 國語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국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두 지역어에서 '모음충돌의 변화'에 큰 차이가 없음이 이를 말해준다.

'통합상의 변화'에서 두 지역어의 차이를 잘 드러내 주는 변화는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일 것이다. 이들이 음소체계의 차이를 잘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통합상의 변화' 양상을 대조함으로써 음소체계 변화에 있어서 두 지역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할 수도 있다. ㉮에서 제시한 '통합상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이를 검토하여 보자.

㉠ 모음체계와 관련된 변화
  ① [±원순성] :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② [±전설성] : 움라우트,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③ [±고모음성] : 고모음화
㉡ 자음체계와 관련된 변화 : '으>이' 전설모음화

우선 두 지역어에서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전설원순모음(위, 외)의 유무와 '어—오'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했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그리고 움라우트와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에서의 차이는 전설원순모음의 유무에 기인한다. 그리고 고모음화는 두 지역어에서 다른 변화에 비해 체계적인 모습이 덜한데 그 이유는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서 [±원순성]과 [±전설성]에 의한 대립보다는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으>이' 전설모음화는 모음체계보다 자음체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ㅅ, ㅈ' 설면음화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으>이' 전설모음화 양상에 있어서 두 지역어의 차이를 유발한 것이다.

4. 자음의 변화

이 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자음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대조를 진행하려 한다. 필자는 제2장에서 두 지역어의 자음체계와 자음과 관련된 음소배열을 대조한 바 있다. 이제 그 대조 결과와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의 음운 현상을 주요 내적 증거로 삼아 공통적인 선대형을 설정하고 두 지역어가 이로부터 변화하는 양상을 대조할 것이다.

공시음운론적 대조를 통해 두 지역어는 자음목록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음성적 실현 양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그 차이점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ㅅ, ㅈ'이 ㊍용천어에서는 각각 3개의 변이음 '[s/ʃ/ɕ], [ʦ/ʧ/ʨ]'을 가지나 화순어에서는 각각 2개의 변이음 '[ʃ/ɕ], [ʧ/ʨ]'을 갖는다.

㉡ 'ㄷ, ㄴ'이 ㊍용천어에서는 각각 설단-치음 '[t̪], [t̪]'로 실현되나 화순어에서는 각각 설단-치경음 '[t], [n]'으로 실현된다.

이 장에서는 현대 두 지역어의 자음체계를 형성하게 한 자음의 변화, 즉 자음의 '계열상의 변화'를 대조하되 제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적 증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변화에 한정한다. 그리고 공시음운론적 대조에 통해 드러난 자음의 분포·빈도와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의 음운현상을 고려하여 음소배열상에 진행된 자음의 변화, 즉 자음의 '통합상의 변화'도 뒤이어 함께 살필 것이다.

㉮ 계열상의 변화

① 'ㅅ, ㅈ'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② 'ㄷ, ㄴ'와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③ 'ㆅ'의 변화

④ 유성마찰음의 변화

㉯ 통합상의 변화

① 설면-경구개 이음과 관련된 변화(설면음화, 어두 'ㄴ'의 변화)

② 모음간 자음의 변화

③ 자음연쇄의 변화

4.1 계열상의 변화

4.1.1 'ㅅ, ㅈ'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중세국어의 'ㅈ'이 경구개음 [ʧ]이 아니라 치경음 [ʦ]이었을 가능성은 Lee(1964), 허웅(1964)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중부방언에서는 '[ʦ]>[ʧ]'의 변화가 존재했는데 이를 'ㅈ의 구개음화'라고 칭하기도 한다(이기문 1972).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같은 齒音으로 분류되었던 'ㅅ'은 이러한 구개음화를 거부하여 현대 중부방언에서 치경음으로 유지되고 있어 'ㅈ'과 'ㅅ'은 조음위치상 하나의 자연부류로 묶일 수가 없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졸고(2003)에서 조음점만을 기준으로 하여 자음의 조음위치를 분류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음체의 조음위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정란(1999)에서 이러한 문제 인식은 드러나 있다. 우리는 이희승(1955), 최현배(1955)에서의 자음 분류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조음점뿐만 아니라 조음체의 조음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ㅈ'과 'ㅅ'의 조음위치를 논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 이희승(1955) : 兩脣音, 齒槽音 혹은 舌端音, 硬口蓋音 혹은 舌面音, 軟口蓋音 혹은 舌根音, 聲門音 혹은 喉音

㉯ 최현배(1955) : 입술소리(脣音), 혀끝소리(舌端音), 혓바닥소리(舌面音), 혀뿌리소리(舌根音), 목청소리(聲帶音)

중부방언의 자음이 가지는 조음위치상의 음성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 梅田博之(1983)이 아닌가 한다. 이 실험은 動態口蓋圖(dynamic palatography)[149]에 의한 것인데 일본어와의 비교를 통해 중부방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ㅈ, ㅅ'

의 실험결과 보고는 다음과 같다.

<ㅈ>

㉮ /ㅈ, ㅊ, ㅉ/의 경우에는, 구개 앞부분의 제1열은 전혀 접촉을 기록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불안정한 접촉을 이룰 뿐이다. 폐쇄를 위한 접촉은 제2·3열에서 이루어진다. … 일본어는 폐쇄가 제1·2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한국어의 파찰음이 舌背音(dorsal)인 반면 일본어는 舌尖音(apical)인 점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다.(161-162면)

㉯ '자'와 '지'는 둘 다 조음위치가 거의 正中 제2·3점이지만 패턴의 추이를 보면 '지'의 경우가 약간 뒤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준다. … 양자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 자음 자체가 구개화자음이기 때문이다. (170면)

<ㅅ>

㉮ '사'의 조음위치는 제2열에 있으며 3점폭의 협착이 이루어진다. … 일본어 s의 패턴은 그 협착의 폭이 2개 전극이며 제1·2열 사이에서 규칙적인 폭으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한국어의 마찰음이 舌背音(dorsal)인 반면 일본어는 舌尖音(apical)인 점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다. (162면)

㉯ '시'의 조음위치는 正中 제3점 부근에 있으며 2점폭의 협착이 이루어진다. 조음위치는 '사'에 비해 뒤쪽이다. (169면)

위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보면 중부방언의 'ㅈ'과 'ㅅ'은 조음점을 기준으로 볼 때에 조음위치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ㅅ'의 조음위치가 약간 앞인데 이는 'ㅅ'의 경우 폐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음체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모두 설배음(필자의 용어로는 설면음)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모음이 후행할 때에는 조음위치가 약간 후행하는데 'ㅅ'의 경우에 그것이 보다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음점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연 'ㅈ'을 과연 경구개음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이는 'ㄷ'과의 비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梅田博之(1983)의 'ㄷ'에 관한 보고를 인용하려 한다.

'ㄷ, ㅌ, ㄸ'의 발음에서는 최대접촉면이 제1열로부터 제2 또는 3열까지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으로 제2열까지로 감소되고 마침내 제1열에서 개방된다.

---

149) 이는 얄팍한 인조 구개에 다수의 전극을 장치한 것으로 발성 중 조음 양상을 동적으로 기록해 보여주는 데에 뛰어난 방법이라고 한다.

이 음성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모음에 선행하는 'ㄷ'과 'ㅈ'은 최대접촉면이 제2·3열('ㄷ'의 경우는 제1열도 포함)로 동일하다. 신지영(1998)의 실험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평음(ㄷ : ㅈ)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조음되지만 격음(ㅌ : ㅊ)과 경음(ㄸ : ㅉ)의 경우는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ㅈ,ㅉ,ㅊ'의 경우에 혀높이가 전반적으로 높다.

이러한 실험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볼 때 국어에서 'ㄷ'을 경구개음이라고 볼 수 없을진대 'ㅈ'을 경구개음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부방언에서 '이' 이외의 모음에 선행하는 /ㅈ/의 음성은 [ʧ](설면-후치경음)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용천어에서 'ㅅ, ㅈ'은 각각 3개의 이음을 갖는다. (1)은 'ㅅ'의 이음이고 (2)는 'ㅈ'의 이음이다.

(1) ㄱ. ʃaʤᴇ(사자) ʃo(소)
ㄴ. ʃiʤak～ɕiʤak(시작)
ㄷ. sɯlphuda～ʃɯlphuda(哀)
(2) ㄱ. ʧa(尺) ʧ'ok'om(조금)
ㄴ. ʧik'ɯm～ʨik'ɯm(지금)
ㄷ. ʦɯlda(질-)

먼저 'ㅅ'은 대개의 모음들 앞에서 설면-후치경음 [ʃ]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 모음 앞에서는 [ʃ]와 설면-경구개음 [ɕ]가 자유변이한다.[150] 또한 '으' 모음 앞에서는 [ʃ]와 설단-치경음 [s]가 자유변이한다. 다음으로 'ㅈ'은 대개의 모음들 앞에서 설면-후치경음 [ʧ]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 모음 앞에서는 [ʧ]와 설면-경구개음 [ʨ]가 자유변이한다. 또한 '으' 모음 앞에서는 설단-치경음 [ʦ]로 실현된다. 'ㅅ'과 'ㅈ'을 비교하면 두

---

150) 반모음 'y' 앞에서도 동일한 음성적 실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용천어에서 자음 뒤의 'y'는 역사적으로 탈락 또는 축약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음-y'의 연쇄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ㅅ·ㅈ-y'의 연쇄는 ㊊용천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음 모두 설면-후치경음 [ʃ, ʧ]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 모음 앞에서는 각각 [ʃ~ɕ, ʧ~ʨ]로 자유변이한다. 그런데 '으' 모음 앞에서는 'ㅅ'과 'ㅈ'이 차이를 보여 'ㅅ'은 [ʃ~s]로 자유변이하나 'ㅈ'은 항상 [ʦ]로만 실현된다.

필자는 '으' 모음 앞에서 실현되는 'ㅅ, ㅈ'의 이음에 주목하려 한다. 왜냐하면 국어 전반에 걸쳐 '이' 모음 앞에서 자음이 변이음을 갖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나 '으' 모음 앞에서 자음이 이음을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진행중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ㅅ'이 '으' 모음 앞에서 자유변이한다거나 'ㅅ, ㅈ'이 '이' 모음 앞에서 자유변이하는 것이 모두 이러한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ㅅ'의 주된 이음이 설면-후치경음이고 '으' 모음 앞에서 [ʃ~s]로 자유변이하는 점을 보면 그 변화 방향이 '설단-치경음>설면-후치경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역방향이라면 '으' 모음 앞에서 'ㅅ'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는 것인데 여러 국어 방언들을 비추어 볼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천어에서 'ㅅ, ㅈ'이 설단-치경음으로 실현되는 어느 역사적인 단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고들도 있다. 이기문(1972), 김영배(1977)에 따르면 현대 서북방언의 'ㅈ, ㅅ'이 치경음 [ʦ, s]로 실현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영순(1956ㄴ)에서도 의주·피현 지역어의 'ㅈ'이 [ʦ]과 [ʧ] 사이에서 동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아 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화순어에서 'ㅅ, ㅈ'이 ㉮용천어와 같이 설단-치경음이었던 단계를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내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화순어에서 'ㅅ, ㅈ'이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은 중부방언과 완전히 동일하다. 만약 중부방언에서 'ㅅ, ㅈ'이 설단-치경음이었던 단계가 있었다면(이기문 1972) 화순어에서도 이러한 단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두 지역어는 어느 역사적인 시기에 'ㅅ, ㅈ'이 설단-치경음 '[s], [ʦ]'로 실현되던 단계가 공통적으로 존재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ㅅ[s] ㅈ[ʦ]

<공통적인 단계의 'ㅅ, ㅈ'>

■ ㉠용천어

현대 ㉠용천어의 'ㅅ, ㅈ'은 '설단음의 설면음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졸고(2003)에서 Ross(1877)의 자료와 필자가 조사한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그 변화 과정을 논한 바 있다. 우선 설면음화는 'y' 앞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ㅈ, ㅅ' 뒤에서 'V'와 'yV'의 관계가 음성적으로 모호해지면서 설면음화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151] 이러한 설면음화는 5단계를 거친 것으로 '자 : 쟈, 사 : 샤'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그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자/	/쟈/	/사/	/샤/
단계Ⅰ	ʦa	ʦya	sa	sya
단계Ⅱ	ʦa	ʨya (~ʧya)	sa	ɕya (~ʃya)
단계Ⅲ	ʦa	ʨa (~ʧa)	sa	ɕa (~ʃa)
단계Ⅳ	ʧa	ʨa (~ʧa)	ʃa	ɕa (~ʃa)
단계Ⅴ	ʧa	ʧa	ʃa	ʃa

먼저 /ㅈ, ㅅ/이 모든 모음 앞에서 설단음 [ʦ]와 [s]로 발음되는 단계를 가정할 수 있다(단계Ⅰ). 그러다가 /y/ 앞에서 설면음 [ʨ](또는 [ʧ])와 [ɕ](또는 [ʃ])로 변화하여 이음으로 존재하는 단계가 있었을 것이다(단계Ⅱ). 바로 이 단계가 설면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음 단계가 없었다면 설면음화는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때 설면음 뒤의 'y'가 음성적으로 탈락되면서 두 이음 사이의 관계가 모호해진다(단계Ⅲ). 그리하여 'y'앞의 이음에 이끌려 단모음 앞의 설단음 [ʦ]와 [s]가 각각 설면음 [ʧ]와 [ʃ]로 바뀐 것이다(단계Ⅳ). 이때 음성적으로 [y]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ʨ, ɕ]에 후행하는 모음은 음소적으로 이중모음 /yV/이다. 그런데 'ㅈ, ㅅ'에 후행하는 'y'가 음소적으로 탈락하게 된다. 그로 인해 'y'에 선행하는 [ʨ, ɕ]은 [ʧ, ʃ]로 실현된다(단계Ⅴ). /yV/ 앞에서 이음으로 존재했던 음성 [ʨ, ɕ]는 /y/가 탈락해서 이음 환경이 사라짐으로 인해 /V/ 앞의 음성 [ʧ, ʃ]로 바뀌게 된 것

---

151) ㉠용천어에서 'ㅈ, ㅅ'은 유독 '으'모음 앞에서만 고형인 [ʦ, s]로 실현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ㅈ, ㅅ' 뒤에서 /ɯ/와 /yɯ/의 대립이 형성될 수 없었던 점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섯 단계를 거쳐서 현대 ㉧용천어에서는 '자, 쟈'와 '사, 샤'가 각각 [ʧa]와 [ʃa]로 실현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계Ⅰ : /ㅈ, ㅅ/이 모든 모음 앞에서 설단음 [ʦ]와 [s]로 실현된다.
㉯ 단계Ⅱ : /y/ 앞에서 설면음 [ʨ(~ʧ)]와 [ɕ(~ʃ)]로 실현된다.
㉰ 단계Ⅲ : 설면음 뒤의 [y]가 음성적으로 탈락한다.
㉱ 단계Ⅳ : 단모음 앞의 설단음 [ʦ]와 [s]가 각각 [ʧ]와 [ʃ]로 설면음화한다.152)
㉲ 단계Ⅴ : 이중모음의 /y/가 음소적으로 탈락한다.

■ 화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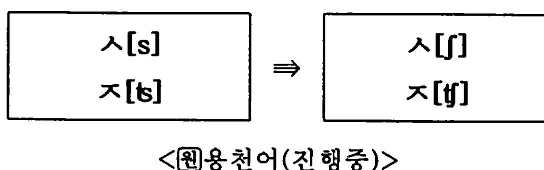
화순어에서도 ㉧용천어와 마찬가지로 '설단음의 설면음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 단계는 ㉧용천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런데 화순어에서 'ㅅ, ㅈ'의 설면음화는 ㉧용천어와 비교해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변이음 실현이 매우 단순화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대 화순어에서 'ㅅ, ㅈ'은 '이' 이외의 모음 앞에서 각각 설면-후치경음 '[ʃ], [ʧ]'로 실현된다. 그리고 'i, y' 앞에서는 각각 설면-경구개음 '[ɕ], [ʨ]'로 실현된다.

(3) ㄱ. ʃaʤɛ(사자) ʃo(소) ; ʧa(尺) ʧ'ok'om(조금)
ㄴ. ɕiʤak(시작) maɕyə(마시-어, 飮) ; ʨigɯm(지금) kaʥya(가자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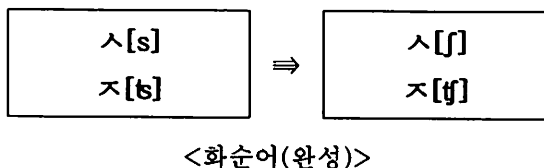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서 설단-치경음 '[s], [ʦ]'이었던 'ㅅ, ㅈ'이 두 지역어 모두에서 설면음화하여 '이, 으'를 제외한 모음 앞에서 각각 설면-후치경음 [ʃ], [ʧ]로 실현된다. 다만 두 지역어에서 'ㅅ, ㅈ'이 음성적으로 실현

152) 중부방언의 모음체계 관점에서 볼 때 이는 'ㅈ'의 재음운화인데 이 재음운화가 가능했던 것은 중세국어에서 경구개 위치가 체계의 빈칸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파찰음은 경구개 위치에서 조음되는 것이 가장 무표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곽충구 1980, 송민 1986, 곽충구 2001).

되는 양상이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이' 모음 앞에서 화순어는 항상 설면-경구개음 [ɕ], [ʨ]로 실현되나 [원]용천어는 설면-후치경음과 설면-경구개음으로 자유변이([ʃ~ɕ], [ʧ~ʨ])를 한다는 점이 첫 번째 차이이다. 또한 [원]용천어에서는 '으' 모음 앞에서 'ㅈ'은 항상 설단-치경음 [ʦ]로만 실현되고 'ㅅ'은 설단-치경음과 설면-후치경음으로 자유변이([s~ʃ])하는 데에 반해 화순어는 항상 각각 설면-후치경음 [ʧ], [ʃ]로 실현된다는 점이 두 번째 차이이다. 이를 통해 볼 때 'ㅅ, ㅈ'의 재음운화(설면음화)가 일어난 것은 두 지역어의 공통적인 변화이지만 그 시기는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원]용천어의 경우, '으' 모음 앞이라는 일부 환경에 국한되기는 하나 [s, ʦ]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 설면음화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화순어는 꽤 이른 시기에 설면음화가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변화가 앞서 <3.2.2.1 '으>이' 전설모음화>에서 언급한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인 것이다.



<[원]용천어(진행중)>



<화순어(완성)>

4.1.2 'ㄷ, ㄴ'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현대 두 지역어에서 'ㄷ'과 'ㄴ'은 각각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된다.

(4) ㄱ. t̪ɛmᴇ(다음-에) t̪'ɛ(때) t̪ʰanad̪a(타-) ɔt̪(옷)
ㄴ. n̪a(나) t̪ɔn̪(돈)

(5) ㄱ. ta:mᴇ(다음-에) t'ᴇ(때) t^hanada(타-) ot(옷)
ㄴ. na(나) to:n(돈)
ㄴ'. ni(네) niŋginda(넘기-)
ㄴ''. taɲinda(당기-) kaɲya(가-냐)

(4)는 ⓦ용천어형이고 (5)는 화순어형이다. ⓦ용천어에서 'ㄷ'과 'ㄴ'은 환경에 관계 없이 각각 설단-치음 [t̪]와 [n̪]로 실현된다(4).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ㄷ'과 'ㄴ'은 각각 설단-치경음 [t]와 [n]으로 실현된다(5). 그런데 화순어에서 'i, y'가 후행할 때에는 'ㄴ'의 음성 실현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어두에서는 다른 모음 앞에서처럼 설단-치경음 [n]으로 실현되나(5ㄴ') 비어두에서는 설면-경구개음 [ɲ]으로 실현된다(5ㄴ'').

우리는 현대 두 지역어의 대조를 통해 'ㄷ, ㄴ'이 적어도 한 지역어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그 가능성은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① 화순어에서와 동일한 음성이 ⓦ용천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존재하여 변화했을 가능성, ② ⓦ용천어에서와 동일한 음성이 화순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존재하여 변화했을 가능성, ③ ⓦ용천어와 화순어의 음성이 제3의 음성에서 변화했을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두 지역어의 대조와 내적 증거만을 가지고서는 셋 중에 어느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두 지역어 각각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실현된 음성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중부방언을 참고하려 한다. 왜냐하면 'ㄷ, ㄴ'과 관련하여 화순어와 중부방언은 비슷한 변화(설면음화, 어두 'ㄴ'의 변화, 현대어에서의 이음 실현 등)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해례≫에 따르면 중세국어의 설음 'ㄴ'은 "윗잇몸에 혀가 닿아서"(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 나는 소리이다. 다시 말해 중세국어에서 설음 'ㄷ'과 'ㄴ'은 음성적으로 설단-치경음 [t]와 [n]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부방언을 참고하여 화순어와 마찬가지로 ⓦ용천어에서도 'ㄷ, ㄴ'이 설단-치경음으로 실현되던 단계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었다고 잠정적으로 가정하고자 한다.[153]

---

153) 이러한 가정은 말 그대로 잠정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왜냐하면 중부방언에서도 15세기 이전에 'ㄷ, ㄴ'이 현대 ⓦ용천어와 같이 설단-치음으로 실현되는 단계가 존재했음을 부인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ㄷ[t]
ㄴ[n]

<공통적인 단계의 'ㄷ, ㄴ'>

■ ㉦용천어

㉦용천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서 만약 'ㄷ, ㄴ'이 설단-치경음 [t, n]으로 실현되었다면 ㉦용천어에서 'ㄷ, ㄴ'은 조음위치가 앞쪽으로 이동하여 설단-치음 [t̪, n̪]으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그 변화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는 쉽지 않으나 이러한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i, y' 앞에서도 설면-경구개 이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4.2.1 설면-경구개 이음과 관련된 변화>에서 후술할 설면음화와 어두 'ㄴ'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용천어는 'i, y' 앞에서 'ㄷ'이 'ㅈ'으로 변하거나 어두 'ㄴ'이 탈락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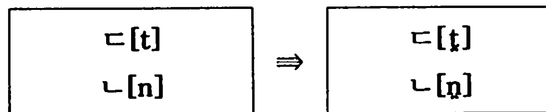
■ 화순어

화순어에서 'ㄷ, ㄴ'은 각각 설단-치경음 [t]와 [n]으로 실현된다. 'ㄴ'의 경우 비어두 위치의 'i, y' 앞에서는 [ɲ]으로 실현됨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梅田博之(1983:161)에서는 한국어(중부방언)과 일본어의 음성적 실험을 통해 같은 설단-치경음이라고 하더라도 2개의 음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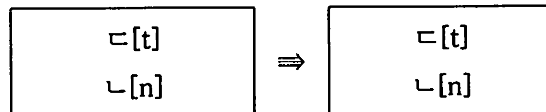
> 調音位置면에서 볼 때 일본어의 t, d, n音에서는 혀끝이 口蓋 앞부분에서 제2列까지 접촉을 이룬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ㄷ, ㅌ, ㄴ/음의 調音에서 제3列까지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閉鎖의 시초에는 제1列의 2,3개 전극이 접촉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어의 t, d, n音의 조음위치는 잇몸의 앞부분인 반면 한국어의 조음위치는 그보다 조금 더 뒤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일본어의 'ㄷ, ㄴ'은 잇몸의 앞쪽에서 조음되는 반면 한국어(중부방언)에서는 잇몸의 뒤쪽에서 조음된다. 화순어에서 'ㄷ, ㄴ'의 조음위치도 중부방언과 동일하게 잇몸의 뒤쪽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조음을 할 때 잇몸의 넓은 부분에서 폐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ㄷ, ㄴ'의 음성적 실현 때문에 이들 자음이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 이음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에서 'ㄷ, ㄴ'은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된다. [원]용천어에서는 'ㄷ, ㄴ'이 각각 설단-치음 [t̪], [n̪]로 실현된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이들이 각각 설단-치경음 [t], [n]로 실현된다. 두 지역어 각각의 역사적인 단계에서 앞서 가정한 잠정적인 선대형을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원]용천어에서는 'ㄷ, ㄴ'이 재음운화하였으며 화순어에서는 이들이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이음 실현에 차이를 가져 오게 된다. 즉 [원]용천어에서 'ㄷ, ㄴ'은 항상 설단-치음 [t̪], [n̪]로 실현되는 반면, 화순어에는 비어두 위치의 'ㄴ'이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음 [ɲ]로 실현된다. 결국 이음 실현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i, y' 앞에서의 'ㄷ>ㅈ' 설면음화나 어두 'ㄴ'의 변화에서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용천어>



<화순어>

4.1.3 'ㆅ'의 변화

현대 두 지역어 모두 자음 '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예들이 있다.[154)]

(6) ㄱ. 쎄-～헤-(點火)
ㄴ. 쓰-(點火)

(6ㄱ)은 [원]용천어형이고 (6ㄴ)은 화순어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용천어에 존재하는 쌍형 '쎄-'와 '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ㅆ'과 'ㅎ'의 자유변이를 보여주는데 어느 한 자음이 다른 자음의 변화형이라고 보기에는 음성적인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ㅆ'으로도, 또한 'ㅎ'으로도 변화가 가능한 제3의 음소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용천어와의 대조에 의해서 화순어에서도 'ㆅ'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겠다.[155)] 이 어형은 중세국어에서 {ᅘᅧ-}로 나타나는데[156)] 이를 참고할 때 두 지역어에서 'ㆅ'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

154) 이기문(1972:50)에서는 중세국어의 'ㆅ'을 'ㅎ'의 된소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허웅(1965:369)에서도 이는 'ㅎ'의 된소리이며 정확한 음성은 [ç']라고 한 바 있다. ≪훈민정음 해례≫에 따르면 'ㆅ'은 '凝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된소리(경음)로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음성학적으로 'ㅎ'의 된소리([h'])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제음성기호(IPA)에서도 성문-경음(Glottal-Ejective stop)을 표기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중부방언에서 'ㆅ'이 'ㅋ'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점은 'ㆅ'이 경음이기보다는 격음(hh)일 가능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ㆅ'의 문제는 'ㅆ'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155) [원]용천어의 '쎄-'와 화순어의 '쓰-'는 모음 대응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ㅆ'뒤의 '으>이' 전설모음화가 매우 활발했던 화순어에서 '쓰-'가 '씨-'로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점은 어간말 모음이 기원적이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두 지역어에서 'ᅘᅧ-'의 직접적인 변화형으로 '*쎠-'를 인정한다면 두 지역어의 모음 대응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부방언의 '서-{셔-, 立}'가 [원]용천어에서는 '세-'로, 화순어에서는 '스-'로 실현되는 것과 완전히 동궤의 변화인 것이다.

156) 중세국어에서 'ㆅ'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여'에만 선행한다. 그런데 하나의 음소가 이와 같이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출현한다는 점도 꽤 드문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찰음 'ㅅ, ㅆ'을 포함시켜 생각하면 두 지역어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마찰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ㅅ	ㅎ
ㅆ	ㆅ

<공통적인 단계의 마찰음 체계>

■ ㉯용천어

(7) ㄱ. 쎄-~헤-(불을) 쎄-~헤-(톱으로 나무를)
   ㄴ. 니리키-(일으키-) 밀키-~몰키-{*밀ᅘᅧ-, *몰ᅘᅧ-} 개키-{*개ᅘᅧ-} 추키-{추ᅘᅧ-}

어두에서 'ㆅ'의 반사형이 나타나는 예는 (7ㄱ)에 제시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157] 여기서 보면 'ㆅ'은 'ㅆ' 또는 'ㅎ'으로 변화한다. 'ㅆ'은 설면음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ㅎ'은 평음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어두에서도 'ㆅ'의 반사형을 찾을 수 있다(7ㄴ). 이들은 'ᅘᅧ-'가 결합된 복합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비어두에서는 어두에서와 달리 'ㆅ'이 'ㅋ'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허웅(1965:369)에서는 'ㆅ'의 공깃길을 한층 더 좁히게 되면 'ㅋ'으로 바뀐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ㆅ>ㅋ'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ㆅ'과 'ㅋ'이 자연부류를 형성하는 시기가 존재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일 것이다. 따라서 기원적으로는 더 넓은 환경에서 'ㆅ'이 실현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헌어 {바회(輪), 우홈(握)}의 'ㅎ'이 'ㅋ'으로 실현되는 것이 국어 전반적인 현상인데 이 'ㅎ'은 'ㆅ'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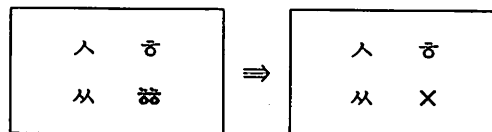
157) 표준어의 '물을 ①켜다, ②기지개 켜다, ③썰물'에 해당하는 'ᅘᅧ-'의 반사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①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②는 '하다'를 사용하며 ③'바닷물이 빠지다'라는 의미의 단어로는 '찌-'를 사용한다.

■ 화순어

(8) ㄱ. 쓰-(불을 켜-) 쓰-(기지개를 켜-) 씌-(물이 켜이-)
ㄴ. 돌씨-(돌리-, 回) 밀씨-(밀-, 推)

(8ㄱ)에서 보듯이 어두의 'ᅘᅧ-'는 모두 '쓰-'로 실현된다. 즉 'ᅘ>ㅆ'의 변화(ᅘᅧ-> 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면음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ᅘᅧ-'의 직접적인 변화형 '*쎠-'의 '여'는 [+전설성] 자음인 'ㅆ' 뒤에서 y가 탈락하여 '써-'가 된 다음 어간 재구조화에 의해 '쓰-'가 형성된 것이다. 비어두에서 'ᅘ'의 존재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만약 화순어의 강세접미사 '-씨-'가 'ᅘᅧ-'의 반사형이라면(8ㄴ) 비어두 위치에서도 'ᅘ'은 'ㅆ'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어는 모두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ᅘ'이 존재했는데 이 자음이 비음운화하게 된다. ㉯용천어에서 'ᅘ'은 어두 위치와 비어두 위치에서 변화를 달리한다. 어두 위치에서는 'ㅆ'으로 변화한 어형과 'ㅎ'으로 변화한 어형이 쌍형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비어두에서는 'ㅋ'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위치에 상관없이 'ㅆ'으로 변화한다는 점이 ㉯용천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지역어가 'ᅘ'의 세부적인 비음운화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 따른 마찰음 체계는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용천어 · 화순어>

4.1.4 유성마찰음의 변화

두 지역어에서 유성마찰음(β, z, γ)[158]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9) ㄱ. 덥구, 더워서(덥-, 暑)
　ㄱ'. 덥구, 더버서(덥-, 疊)
　ㄴ. 넛구, 네(넛-, 繼)
　ㄴ'. 빗구, 비서서(빗-, 梳)
(10) ㄱ. 떱고, 떠와서(덥-, 暑)
　ㄱ'. 접고, 저버서(접-, 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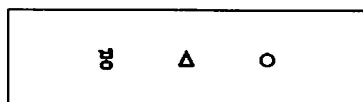
(9)는 ㉤용천어의 활용형이고 (10)은 화순어의 활용형이다. ㉤용천어의 용언어간말 'ㅂ'은 두 가지 활용양상을 보인다. 자음어미와 모음어미에 관계없이 'ㅂ'이 실현되는 활용형이 있는가 하면(9ㄱ')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ㅂ'의 음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활용형이 있다(9ㄱ). 그리고 '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 'ㅅ'의 음가가 드러나는 활용형이 있는가 하면(9ㄴ') 그렇지 못하는 활용형이 있다(9ㄴ). 여기에서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 자음의 음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활용(9ㄱ, 9ㄴ)을 우리는 흔히 'ㅂ-불규칙 활용, ㅅ-불규칙 활용'이라고 불러 왔다. 따라서 ㉤용천어에는 두 개의 불규칙 활용이 모두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화순어에는 'ㅅ-불규칙 활용'은 존재하지 않고[159] 'ㅂ-불규칙 활용'만이 존재한다(10ㄱ).

현대 ㉤용천어에 존재하는 이러한 불규칙 활용형은 이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ㅂ, ㅅ'과 다른 자음이 존재했으며 이 자음은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 자음의 성질을 상실하는 변화를 경험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음은 중부방언을 참고할 때 유성마찰음 'ㅸ[β], ㅿ[z]'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용

158)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유성마찰음은 'ㅂ, ㅅ' 등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하며(이숭녕 1954) 기원적이라고 보기도 한다(이기문 1972). 또한 박창원(1985)에서는 유성폐쇄음이 변화된 것이라는 견해를 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성마찰음의 생성을 밝히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159) 화순어에서 하나의 예외로 '져(짓+어, 作)'가 사용되는데 이는 '지서'와 쌍형으로 존재한다.

천어에서 연구개 유성마찰음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내적 증거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체계적인 면을 고려하여 이 자음도 존재했다고 가정하려 한다. 또한 현대 화순어의 내적 증거는 양순 유성마찰음 'ㅸ[β]'의 존재 가능성만을 확인시켜 주지만 체계적인 면을 고려하여 'ㅿ[z], ㆁ[γ]'도 존재했다고 가정하려 한다. 그렇다면 두 지역어 모두 유성마찰음 'ㅸ, ㅿ, ㆁ'이 존재했던 단계를 공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통적인 유성마찰음 체계>

■ [원]용천어

이병근 · 정인호(2003)은 가능한 한 환경을 세분화하여 [원]용천어에서 유성마찰음이 변화한 양상을 보이려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음운론적 환경 뿐만 아니라 비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유성마찰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논의는 이병근 · 정인호(2003)에 넘기고 본고에서는 음운변화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래서 비음운론적 환경은 되도록 배제하기 위해 형태소 내부에서의 변화 양상만을 보려 한다.[160]

[원]용천어에서 양순 유성마찰음 'ㅸ'[β]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11) ㄱ. 가운대{가ᄫᆞᆫᄃᆡ} 쌔우{사ᄫᅵ} 함자{ᄒᆞᄫᆞᆫᅀᅡ} 돼-{ᄃᆞᄫᅵ-}
　　ㄴ. 갈배(갈비) 버버리{버워리} 데불구(데리고)[161] 우벙(우ᄫᅯᆼ)[162]

---

160) 또한 형태소 내부라고 하더라도 체언 · 용언 어간말 위치는 어간 재구조화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161) 이와 더불어 '데리구, 델꾸'도 함께 쓰인다.

162) 이는 시장에서 배운 말이라고 한다. 그로 보아 [원]용천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어에서 'ㅸ'은 대부분 탈락하거나 '우'(또는 w)로 변화한다(11ㄱ). 이병근·정인호(2003)에서는 조사한 단어의 87%가 이러한 변화를 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자료에 따라 통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변화의 경향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경우 'ㅸ'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김완진(1972)에서는 'ㅸ'이 'w'로 변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김경아(1997)에서는 'ㅸ'이 'ɦw'로 변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주필(2001)에서는 'ㅸ'이 가지고 있던 [유성성]·[순음성]·[지속성] 가운데에 [순음성]이 잉여자질이 됨으로써 [유성성]·[지속성]을 가진 [ɦ]으로 약화된다고 하였다. 현재 필자는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ㅸ'이 유성음 사이에서 [+자음성]을 상실했다는 점만을 지적하려 한다.[163] (11ㄴ)은 국어의 제방언을 고려할 때 'ㅸ'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인데 ㊆용천어에서 이 자음이 'ㅂ'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예는 극히 소수이다. 따라서 이들 단어에서는 'ㅸ'이 선대형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164] 또한 변화 과정에서 비음운론적 제약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㊆용천어에서 'ㅸ'은 [+자음성]을 상실하는 것이 주된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개 유성마찰음 'ㅇ'[ɣ]을 선대형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중세 문헌어에 'ㅇ'으로 표기되어 있고 국어방언형에 'ㄱ'이 나타나는 어형들을 위주로 하여 이 지역어에서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물론 형태소 내부 환경에만 한정한다.

(12) ㄱ. 게으르다{게으르-} 냄새{내옴새} 댐{다옴, 後} 따우(따위)
ㄴ. 멀구{멀위} 벌기~벌거지{벌에} 널괘{널웨} 몰개{몰애}
물구지{물옷} 달개-{달애-} 얼개빗{얼에빗} 돌가지{돌앗}
ㄴ'. 꾸래미{굴에}

---

163) [+자음성]을 상실한다는 말은 [-자음성]을 가진 음소(모음, 반모음)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164) ㊆용천어에서 '자:땐다(잡아 당기-)'라는 어형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잡-'의 'ㅂ'이 'ㅸ'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낮은데도 탈락하는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병근(1969)에 따르면 국어 방언들에서 /ㅂ/이 [β]로 실현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β]가 탈락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12ㄱ)은 두 모음 사이의 경우인데 대부분 'ㅇ'이 탈락한다. 하지만 자음연쇄, 즉 'ㄹ' 뒤에서는 대부분 'ㄱ'으로 변화한다(12ㄴ). '꾸래미' 정도가 'ㅇ'이 탈락하는 예일 것이다(12ㄴ'). 따라서 (원)용천어에서 'ㅇ'은 모음 사이이냐, 아니면 자음 'ㄹ' 뒤이냐에 따라 다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 ㄱ. 갈{ᄀᆞᅀᆞᆯ} 구이{구ᅀᅵ} 모이{모ᅀᅵ} 게울(겨ᅀᅳᆯ) 아우{아ᅀᆞ}
　　ㄴ. 꺼스레미{그ᅀᅳ름} 무습-{므의엽-} 오소리{오ᅀᆞ리} 쪼숨{주ᅀᅮᆷ, 쯤}
　　ㄷ. 삼질랄(*삼ᅀᅵᆯ날)

치경 유성마찰음 'ㅿ'[z]은 3방향의 변화를 한다. 먼저 'ㅿ'은 탈락한다(13ㄱ). 이병근・정인호(2003)에서는 조사한 단어의 72%가 이러한 변화를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음으로 'ㅿ'이 'ㅅ'으로 변화하는 예들도 소수 존재한다(13ㄴ). 그리고 'ㅿ>ㅈ'의 변화를 보이는 예도 존재하는데(13ㄷ)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질랄' 한 예뿐이다. 후술할 화순어 뿐만 아니라 중부방언에서도 이 단어는 'ㅿ>ㅈ'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한자어라는 비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ㅁ'이 선행하는 환경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원)용천어에서 유성마찰음은, 'ㅸ'과 'ㅿ'의 경우에는 [+자음성]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화 방향이다. 하지만 'ㅇ'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변화가 달라 두 모음 사이에서는 탈락하고 'ㄹ' 뒤에서는 'ㄱ'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화순어

(14) ㄱ. 가운대{가ᄫᆞᆫᄃᆡ} 혼차{ᄒᆞᄫᆞᆫᅀᅡ} 되-{ᄃᆞᄫᅵ-}
　　ㄴ. 갈비(갈비) 버버리{버워리} 새비{사ᄫᅵ}
　　ㄷ. 궁굴-{그울-, 轉} 또가리{ᄯᅩ아리} 뚜겅{두에}

화순어에서 'ㅸ'은 3가지 방향의 변화를 경험한다. 형태소 내부에서 'ㅸ'은 [+자음성]을 상실하는 변화가 일반적이다(14ㄱ). 이병근・정인호(2003)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86% 정도에 달한다고 한 바 있다. 다만 'ㅸ'이 'ㅂ'으로 변화하거나(14ㄴ) 'ㄱ'으로 변화한 예들이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한다(14ㄷ). '갈비, 버버리'에서 'ㅸ'이 'ㅂ'으로

변화하는 것은 ㉾용천어와 동일하다. 그리고 'ㅸ'이 'ㄱ'으로 변화하는 것은 'ㅂ-ㄱ' 교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ㅸ'이 선대형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5) ㄱ. 끼울-(懶怠) 냄시(嗅) 담(다음) 따우~따구(따위)
　　ㄴ. 멀구{멀위} 벌거지{벌에} 달개-{달애-} 물굿{물읏} 얼기빗{얼에빗}
　　ㄴ'. 굴래{굴에} 이래{닐웨}

화순어에서 'ㅇ'이 변화하는 방향은 ㉾용천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모음 사이의 'ㅇ'는 대부분 탈락한다(15ㄱ). 단 쌍형으로 존재하는 '따구~따우'에서 'ㄱ'으로 변화한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165] 그리고 'ㄹ' 뒤에서 'ㅇ'는 대부분 'ㄱ'으로 변화하며(15ㄴ)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굴래, 이래' 정도가 탈락을 경험한다(15ㄴ').

(16) ㄱ. 가실{ᄀᆞᅀᆞᆯ} 구시{구ᅀᅵ} 모시{모ᅀᅵ} 아시{아ᅀᆞ} 여시{여ᅀᆞ}
　　ㄴ. 사이~새{사ᅀᅵ} 맘{ᄆᆞᅀᆞᆷ} 금{그ᅀᅳᆷ} 밸~뱔{비ᅀᆞᆯ} 요즘{요주ᅀᆞᆷ}
　　　첨{처ᅀᅥᆷ} 마운{마ᅀᆞᆫ}
　　ㄷ. 삼진날 푸징가리{프ᅀᅥᆼ귀} 거진{거ᅀᅴ}
　　ㄹ. 혼차{ᄒᆞᄫᅀᅡ}

'ㅿ'은 4가지 방향의 변화를 경험한다. (16ㄱ)은 'ㅿ'이 'ㅅ'으로 변화한 예들의 일부만 제시한 것이다. 이병근 · 정인호(2003)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80%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16ㄴ)은 'ㅿ'이 탈락한 예들인데 여기에 제시한 예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16ㄷ)은 'ㅿ'이 'ㅈ'으로 변화한 전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ㅿ'이 'ㅊ'으로 변화하는 예도 존재한다(16ㄹ).

화순어에서 'ㅸ'은 [+자음성]을 상실하는 것이, 'ㅿ'은 'ㅅ'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ㅇ'은 두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고 'ㄹ' 뒤에서 'ㄱ'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65) 전남방언의 '따우~따구'는 모음 사이에서 'ㄱ'의 실현형과 탈락형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머ᅘᅱ}, {바ᅘᅬ, 巖} 등과 동일한 부류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은 전남방언에서 각각 '머우~머구', '바우~바구' 등의 반사형을 갖는다(이기갑 외(1998)을 참조). 그렇다면 '따구'의 'ㄱ'은 선대형으로 'ㅎ'을 재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ㅎ'이 연구개 유성마찰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ㅸ'은 두 지역어에서 모두 '[+자음성]>[-자음성]'의 변화가 큰 경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ㅇ'이 두 가지 방향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도 두 지역어가 공통적이다. 즉 두 모음 사이에서는 대체로 'ㅇ'이 탈락하고 'ㄹ' 뒤에서는 'ㅇ'은 'ㄱ'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ㅿ'의 변화는 두 지역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원)용천어에서는 'ㅿ'이 탈락하는 것이, 화순어에서는 'ㅿ'이 'ㅅ'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성마찰음	(원)용천어	화순어
ㅸ[β]	∅	
ㅇ[γ]	① ∅(두 모음 사이) ② ㄱ('ㄹ' 뒤)	
ㅿ[z]	∅	ㅅ

유성마찰음은 비록 세부적인 변화 양상과 그 변화 시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두 지역어 모두에서 비음운화하여 자음체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ㅸ ㅿ ㅇ	⇒	× × ×

<(원)용천어 · 화순어>

4.1.5 두 지역어의 '계열상의 변화' 대조

위에서 필자는 두 지역어의 공시론음운적 대조와 내적 증거를 통해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 존재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자음체계를 항목별로 구성하고 그 변화 양상을 통시론적으로 대조하였다. 이 때 '계열상의 변화'는 그 발생에 있어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다음의 순서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있어서 ④가 현대 (원)용천어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가장 뒤늦은 변화일 가능성만 어느 정도 확실할 뿐, ①과 ② 그리고 ③과 ④는 각각 변화 발생 시기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기가 힘든 면이 있기도 하다.

① 유성마찰음의 변화
② 'ㆅ'의 변화
③ 'ㄷ, ㄴ'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④ 'ㅅ, ㅈ'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

이 절에서는 '계열상의 변화'에 있어서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까지 고려하여 두 지역어의 전반적인 자음체계의 변화를 대조하여 검토하려 한다(음영은 본고에서 설정 가능한 最古 단계의 자음체계).

자음체계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ㆅ ㅸ ㅿ ㅇ ㅈ ㅊ ㅉ ㅁ ㄴ ㆁ ㄹ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ㅈ ㅊ ㅉ ㅁ ㄴ ㆁ ㄹ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ㅈ ㅊ ㅉ ㅁ ㄴ ㆁ ㄹ
대조		▶유성마찰음이 두 지역어 모두에서 非音韻化한다. ▶'ㆅ'이 두 지역어 모두에서 非音韻化한다.	▶'ㅅ,ㅆ,ㅈ,ㅊ,ㅉ'이 再音韻化(설면음화)한다. 다만 두 지역어가 변화 시기와 정도의 차이를 보여 화순어에서는 설면음화가 완성된 반면, [원]용천어에서는 현재 진행중이다. ▶[원]용천어에서 'ㄷ,ㅌ,ㄸ,ㄴ'이 再音韻化한다. 즉 이들 자음이 설단-치음 [t̪,t̪^{h},t̪',n̪]으로 변화한다.

4.2 통합상의 변화

4.2.1 설면-경구개 이음과 관련된 변화

4.2.1.1 설면음화

국어의 음운사에 존재하는 소위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는 곽충구(2001)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ㅈ'은 치조음[ʦ]이었으며, 'ㅈ'이 /i, y/ 앞에서 구개음화하는 이음규칙이 발생한 후 t구개음화 규칙이 출현하였다. 그 뒤 이음 [ʦ]와 [ʧ]는 [ʧ]로 점차 합류의 길을 걷게 되었다.
㉡ t구개음화 규칙은 형태소 내부(비어두→어두)→형태소 경계로 점차 그 적용 영역을 넓혀 나갔다.
㉢ 구개음화 규칙은 h구개음화, t구개음화, k구개음화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 t구개음화는 남부와 북부(함남)에서 각각 발생하였고 h구개음화는 황해, 육진, 함경, 남부방언에서 다원발생하였다.

필자는 먼저 소위 '구개음화'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만약 'ㄷ>ㅈ, ㄱ>ㅈ, ㅎ>ㅅ'이 동일한 기제에 의한 변화라고 한다면 '구개음화'라는 용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ㅅ'을 치경음이라고 하면서 'ㅎ>ㅅ'의 변화를 'ㅎ구개음화'라고 불러왔는데 이는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희승(1955)에서처럼 '설단음화'라고 하여 'ㄷ>ㅈ'의 '구개음화'(ㄷ구개음화)와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설단음화(ㅎ구개음화)와 구개음화(ㄷ구개음화)가 다른 기제에 의한 변화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들을 아우를 필요성이 있는데 'ㅈ'과 'ㅅ'이 공유하는 음성적 특성이 설면음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구개음화의 동화주인 'i, y'가 설면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 이 변화의 자연성을 이야기해 준다. 따라서 필자는 졸고(2003)에서 '구개음화'라는 용어 대신에 '설면음화'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설면음화(소위 '구개음화')의 기제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기문(1972)에서는 'ㄷ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음운체계에 경구개음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였다. 즉 'ㄷ구개음화'에 선행하여 'ㅈ'이 구개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곽충구(2001)에서는 음성층위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음변화의 과정으로 '구개음화'를 파악하고서 이를 체계적 관점에서만 논리적으로 형식화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육진방언이나 황해방언을 예로 들어 'ㅈ'이 음소적으로 경구개음으로 바뀌지 않고 치경음인 상태에서도 'ㄷ구개음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황해방언에서 '다 · 자 · 쟈'가 모두 [tsa]로 발음된다는 사실은 이미 小倉進平(1929)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ㄷ구개음화'와 동일한 기제라고 볼 수 있는 'ㅎ구개음화'를 아울러 생각할 때 'ㅅ'이 경구개음이 아니어도 'ㅎ>ㅅ'의 변화는 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곽충구(2001)에서 논의한 '구개음화'의 기제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즉 'ㄷ구개음화'는 'ㅈ'이 음소적으로 경구개음으로 변화한 후에 생긴 규칙이 아니라 'ㅈ'이 /i, y/ 앞에서 이음으로 설면-경구개음 [tɕ]를 갖는 단계에서 형성된 규칙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위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음성학적 유인에 의한 음성층위의 변화인 셈이다.166) 여기서 음성학적 유인이라면 그것은 /i, y/에 선행하는 자음들이 설면-경구개 이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음성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일 것이다.167) 곽충구(2001)에서는 ㅎ구개음화가 가장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는 /i, y/ 앞에서의 'ㅅ'과 'ㅎ'의 이음이 각각 [ʃ](정확한 음성기호는 [ɕ] 일 듯)와 [ç]로 아주 가깝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의 양상도 이와 동일하리라 본다. 즉 /i, y/에 선행하는 'ㅈ'과 'ㄷ, ㄱ'의 이음이 음성적으로 유사해짐으로 인해 이들 음운 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구개음화는 이음의 음성적 유사성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이 때 화자들이 음소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만약에 '구개음화'를 음소의 재해석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자칫 그 변화가 무원칙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구개음화를 경험한 방언들을 통해 보면 여기에 일정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ㄷ>ㅈ', 'ㅎ>ㅅ', 'ㄱ>ㅈ'의 변화이다.168) 바로 변화 후의 자음이 'ㅈ, ㅅ'으로서 설면음이라는

---

166) 김주필(1994:75)에서도 "음성적 특징이 [+front]와 [+high]에 가까운 음에서부터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리라 추측"하여 'i'보다는 'y' 앞에서 이 변화가 먼저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설면음화를 음성층위의 변화로 이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7) 이들 이음은 '舌面-硬口蓋 異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구개 이음'이라 약칭하려 한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설면음과 설면성을 가진 동화주 'i, y'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소위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설면성 동화'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개음화'라는 용어는 '설면음화'로 대체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

'설면음화'(ㅎ>ㅅ, ㄷ>ㅈ, ㄱ>ㅈ)는 두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즉 ①'i, y' 앞에서 설면음으로 변화, ②'ㅈ, ㅅ' 뒤에서 'y'의 변화(탈락 또는 축약)가 그것이다. 엄격히 말해 ①만을 설면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중부방언에서 'ㅈ, ㅅ' 뒤에서 'y'는 모두 변화(주로 탈락)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변화까지 포함시켜 설면음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지역어의 역사적인 단계에서 '{t · h · k}-{i · y}'의 연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두 지역어의 대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원)용천어형⇔화순어형).

(1) ㄱ. 바디⇔보디{ᄇᆞ디} 마디⇔모디{ᄆᆞ디} 티끌⇔티끄락{틔}
ㄴ. -디⇔-지(어말어미) 티-⇔치-(打)
ㄷ. 가티⇔가치(같+이) 부티-⇔부치-(붙+이-)
(2) ㄱ. 둏-⇔좋-(好) 당개⇔장개(장가)
ㄴ. 떠러데⇔떠러저(떨어지+어) 떼⇔쩌(찧+어)

먼저 (1)과 (2)의 예를 통해 현대 't-{i · y}'의 연쇄가 두 지역어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지역어에서 모두 'ㄷㅌㄸ-i'의 연쇄가 가능한데 두 지역어가 동일하게 이 연쇄를 갖는 대응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1ㄱ). 그리고 이 경우의 '이'는 중부방언을 참고할 때 모두 순정의 '이'가 아니라 이중모음 'ᄋᆡ, 의'가 변화한 '이'이다. 나머지 대다수의 경우, (원)용천어에서의 'ㄷㅌㄸ-i' 연쇄가 화순어에서의 'ㅈㅊㅉ-i' 연쇄에 대응한다(1ㄴ). 이는 화순어에서 'ㄷㅌㄸ-純晶i'가 'ㅈㅊㅉ-i'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특히 (1ㄷ)의 화순어형은 접미사가 결합한 것인데 이는 'ㅌ>ㅊ'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2ㄱ)에 나타나는 'ㄷ'과 'ㅈ'의 대응은 't-yV' 연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모음 '아' 앞에서의 'ㄷ>ㅈ' 또는 'ㅈ>ㄷ' 변화는 음성적인 타당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2ㄴ)에 나타나는 '데'와 '저'의 대응도 't-yV' 연쇄를 불가피하게 인정하게끔 한다.

---

168) 물론 실제로 드러나는 언어현상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위 '역구개음화'가 그 한 예라고 하겠다.

(3) ㄱ. 혜⇔서(舌) <u>혜</u>캐⇔<u>서</u>까리(서캐)
ㄴ. 게⇔저(糠)

그리고 두 지역어의 대조를 통해 '{h · k}-{i · y}'의 연쇄도 확인할 수 있다. 즉 (3)에서 보이는 두 지역어의 모음은 선대형으로 '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대응 관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즉 '에'와 '어'는 어느 한 모음이 자음까지 교체시키고서 다른 모음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3ㄱ)의 대조를 통해 '혀'의 연쇄를, (3ㄴ)의 대조를 통해 '겨'의 연쇄를 선대형으로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원용천어

● ㅎ>ㅅ

'ㅎ>ㅅ' 설면음화는 'i, y' 앞에서 성문음 'ㅎ'이 설면-후치경음 '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곽충구(2001)에 의하면 중부방언에서 '슈지'라는 어형이 문헌을 통해 상당히 이른 시기에 보인다는 점을 들어 'ㅎ>ㅅ' 설면음화가 역사적으로 딴 설면음화에 비해 일찍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i, y' 앞에서 'ㅅ'의 이음과 'ㅎ'의 이음이 음성적으로 제일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ㄱ. 서까래{혀, 椽} 설마{현마,혈마}169) 수지(休紙)
ㄴ. 쎄-~혜-{쎠-, 點火, 斷}
(5) 헝~형(兄) 항~향(香) 호자(孝子) 흥(흉) 흥악(凶惡) 흥년(凶年) 힘(力)
혜{혀, 舌} 혜캐{혀, 蟣} 혜-{혜-, 算}

(4)에서 볼 수 있듯이 'ㅎ>ㅅ' 설면음화를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은 원용천어에 그리 많지 않다. (4ㄱ)은 'ㅎ'이 'ㅅ'으로 변화하고 (4ㄴ)에서 'ㆅ'이 'ㅆ'으로 변화하는데 이들이 'ㅎ>ㅅ' 설면음화의 예로 제시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h-y'의 연쇄는 'ㅎ>ㅅ' 설면음화를 모르고 'y'가 탈락하거나 뒷모음과 축약된다(5).
'ㅎ, ㆅ'이 설면음 'ㅅ, ㅆ'로 변화하는 예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이

169) 김이협(1981)에서는 평북 용천에서 '혈마'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했으나 필자의 조사에서는 이 어형을 발견하지 못했다.

들이 과연 'ㅎ>ㅅ' 설면음화의 기제의 의한 변화의 예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들은 달리 해석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하겠다. 곽충구(2001)에서는 'ㅎ>ㅅ' 설면음화를 모르는 평북방언에서 '서까래'가 실현되는 점을 들어 문헌어의 '혓가래'는 '셧가래'의 과도교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가능성에는 '설마'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서까래, 설마'는 'ㅎ>ㅅ' 설면음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원적으로 '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170] 그리고 '수지'는 문헌어에서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ㅎ>ㅅ' 설면음화가 한자어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이 딴 설면음화와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혹시 차용 당시의 한자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또한 '쎄-'는 'ㆅ>ㅆ'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y' 앞이라는 조건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중부방언의 'ㆅ>ㅋ'의 변화처럼 무조건 변화로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논증될 수 있다면 [원]용천어에서 'ㅎ>ㅅ' 설면음화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북방언에서 'ㅎ>ㅅ' 설면음화가 없었다는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서까래, 설마'에 대한 해석은 자칫 순환론으로 흐르기 쉽다.[171] 따라서 필자는 [원]용천어에서 약하기는 하지만 'ㅎ>ㅅ' 설면음화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원]용천어에서 'ㅎ>ㅅ' 설면음화를 경험한 어형이 적은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설면음화의 기제와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다. 즉 설면음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i, y'에 선행하는 이음들의 음성적 유사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2가지 정도라고 생각한다. 첫째, 'ㅅ'과 'ㅎ'이 'i, y' 앞에서(둘 모두 또는 어느 하나가) 경구개 이음으로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 [원]용천어에서는 'ㅅ'과 'ㅎ'이 '이'모음 앞에서 각각 [ʃ~ɕ]와 [ç]로 실현된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이음을 가졌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기문(1972)에 따르면 현대 평안방언에서도 'ㅅ'이 'i, y' 앞에서도 이음을 갖지 않고 치경음으로 실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ㅅ'과 'ㅎ'이 경구개 이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둘 모두 경구개 이음을 가졌는데 조음위

170) 문헌어의 'ㅅ'이 [원]용천어에서 'ㅎ'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헤-~세-{셰-, 白髮}'가 그것이다. 이의 존재 이유도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171) '설마'는 15세기 문헌에 '현마'로 나타난다. 후자를 과도교정형으로 본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15세기에 'ㅎ>ㅅ' 설면음화가 활발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치상의 거리가 혼란을 일으킬 만큼 가깝지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대 (원)용천어의 'ㅅ'이 '이'모음 앞에서 [ʃ~ɕ]로 실현된다고 했는데 이는 그만큼 이음이 조음위치상 앞쪽에서 실현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2가지 가능성을 모두 생각할 때 'i, y'에 선행한 'ㅅ'과 'ㅎ'의 음성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조음위치상의 거리가 가깝지 않았고 이것이 'ㅎ>ㅅ' 설면음화가 미약하게 일어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ㄷ>ㅈ

'ㄷ>ㅈ' 설면음화는 'i, y' 앞에서 설단-치경음 'ㄷ'이 설면-후치경음 '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ㄷ>ㅈ' 설면음화는 (원)용천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몇 예만을 제시한다.

(6) ㄱ. -디(-지) 디-(落) ᄣᆡᆼ-(碎) 티-(打)
　ㄴ. 당개{댱가} 더기(뎌어긔) 돟-{둏-} 두야{듀야, 晝夜}
　ㄴ'. 데{뎌, 彼} 덴장(*뎐쟝, 田庄)

(6)에서 보듯이 'ㄷ'은 'i, y' 앞에서도 그대로 'ㄷ'으로 실현된다(6ㄱ). 그리고 'y'는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에 따라 대다수 탈락하며(6ㄴ) 소수의 예가 축약의 변화를 보인다(6ㄴ').

그런데 (원)용천어에서 'ㄷ>ㅈ' 설면음화를 겪은 듯이 보이는 어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7) 중국 조선 공장 교장 중병
　정기~덩기(전기) 중심~둥심 정거장~덩거당

하지만 이들 예는 (원)용천어의 고유의 'ㄷ>ㅈ' 설면음화라고 보기 힘들다. 고유어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예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이는 국어 여타 방언의 차용이거나 인접언어(중국어)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172)]

---

172) 한편 역구개음화가 의심스러운 예들이 몇 개 있다. ㉗ 뗠짱구~쩔짱구(질경이), 제티-(젖히-), 지티-(지치-, 疲). 하지만 '뗠짱구'는 '질경이'와의 어원적 연관성이 의심

그동안 평안방언이 'ㄷ>ㅈ' 설면음화를 모르는 이유는 'ㅈ'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되어 왔다(이기문 1972).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설면음화의 기제에서 'ㅈ'의 '구개음화' 여부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다. (원)용천어가 'ㄷ>ㅈ' 설면음화를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ㄷ' 자체의 음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4.1.2 'ㄷ, ㄴ'과 관련된 대립의 변화>에서 (원)용천어의 'ㄷ'은 '설단-치음'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i, y' 앞에서도 그 음가 그대로 실현되어 설면-경구개 이음을 갖지 못한다. 결국 'i, y'에 선행하여 'ㄷ'과 'ㅈ'의 이음이 음성적으로 비슷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점이 바로 'ㄷ>ㅈ' 설면음화를 방해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설단음-yV' 연결에서 부음 'y'가 탈락함으로써 설면음화의 환경이 사라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하겠다(김영배 1969).

● ㄱ>ㅈ

'ㄱ>ㅈ' 설면음화는 'i, y' 앞에서 설근-연구개음 'ㄱ'이 설면-후치경음 '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원)용천어에서는 'ㄱ>ㅈ' 설면음화를 보이는 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8) ㄱ. 길 기림(기름) 길-(長) 김 키
ㄴ. 지태-(기대-) 짓(깃) 지질{지즑} 질드리-
ㄴ'. 기애{디ᅀᅢ, 기와} 기래(지라)

대부분 (8ㄱ)과 같이 'ㄱ'을 유지하고 있다. (8ㄴ)은 중부방언에서 소위 역구개음화에 의해 기원적인 'ㅈ'이 'ㄱ'으로 변화한 예들인데 (원)용천어에서는 이들도 'ㅈ'으로 실현된다. 다만 (8ㄴ')의 두 예가 'ㄱ'으로 실현되는데 방언차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스러운 면이 있고 '제티-, 지티-'는 파생접미사 '-티-'에 유추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역구개음화의 예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 화순어

● ㅎ>ㅅ

화순어에서 'ㅎ>ㅅ' 설면음화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ㄱ. 심(힘) 써까리(서캐) 서(혀) 상뿔(향불) 성(형) 소자(효자) 솜(효험)
쓰-{혀-, 點化, 물}
ㄱ'. 회도(효도) 휘가(休가)
ㄴ. 히-(희-) 히써(했어)
ㄴ'. 셤(헤엄)
ㄷ. 회주{쇼쥬}

(9ㄱ)은 'ㅎ>ㅅ' 설면음화를 보이는 예들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중에서도 이 변화를 보이는 예들이 많다. 이 중에 '쓰-'는 'ㆅ'이 'ㅆ'으로 변화한 예이다.[173] 하지만 한자어 중에서 고유어화하지 않은 단어들은 이중모음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축약을 경험한다(9ㄱ'). 그리고 'ㅎ'에 후행하는 모음이 기원적인 'i, y'가 아니고 음운변화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는 'ㅎ>ㅅ' 설면음화를 모르는 것이 원칙이다(9ㄴ). 하지만 '셤'은 '헤엄>히엄>시엄>셤'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외적으로 '에>이'에 의해 형성된 '이'에 의해서도 'ㅎ>ㅅ' 설면음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9ㄴ'). 그리고 화순어에는 'ㅎ>ㅅ' 설면음화의 방향과 반대되는 변화를 보이는 듯한 단어가 존재한다(9ㄷ). 이는 '쇼쥬>효쥬>회주'의 변화를 가정할 수 있는데 소위 '역구개음화'의 예에 포함시킬 수 있다.[174] 하지만 이러한 예를 더 이상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혹시 '燒'의 한자음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ㅎ>ㅅ' 설면음화는 어두 위치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형태소 내부의 비어두 위치에서 'ㅎ'이 실현되기 힘들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순어에서 'ㅎ>ㅅ' 설면음화를 보이는 위치가 비어두라

173) '쓰-'에서 어간말 모음 '으'는 화자들의 어간 재해석에 따라 '어'가 바뀐 것이다. 이는 '서-'(立)가 '스-'로 재구조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174) 최전승(1986)에 따르면 19세기 후기의 서남방언을 반영한 문헌에 '회쥬'와 같은 어형이 나타난다.

면 이는 복합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10).

(10) 입심 뱃심[175]

● ㄷ>ㅈ

(11) ㄱ. -지(어미) 짜릅-{댜르-} 장개{댱가} 좋-{둏-} 중간{듕간}
ㄴ. 가치(같+이) 야치(얕+이) 부치-(붙+이-) 구치-(굳+히-)
ㄷ. 보디{ᄇᆞ듸} 모디{ᄆᆞ듸} 티끄락{틔} 디-(데우-)
ㄷ'. 업지-{업듸-, 伏}

화순어에서 'ㄷ>ㅈ' 설면음화는 어두이든, 비어두이든 그 위치에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11ㄱ). 그리고 파생접미사가 결합된 때에도 'ㄷ>ㅈ' 설면음화는 예외없이 적용된다(11ㄴ). 하지만 'ㄷ>ㅈ' 설면음화는 원칙적으로 'y'나 순정의 'i'가 후행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모음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i' 앞에서는 'ㄷ>ㅈ' 설면음화가 불가능하다(11ㄴ). '디, 티끄락'의 '이'는 'ᄋᆡ' 또는 '의'가 변화한 것이며 '디-'의 '이'는 '에'가 변화한 것이다. 이는 화순어에서 '의>이, 에>이'의 변화보다 'ㄷ>ㅈ' 설면음화가 앞섰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서남방언을 반영한 문헌에 16세기 후반부터 'ㄷ>ㅈ' 설면음화를 경험한 어형이 나타난다고 점을 참고할 수 있다(안병희 1972, 김주필 1994). 그런데 (11ㄷ')의 '업지-'가 {업듸-}의 변화형이라면 이는 '의'가 변화한 '이'가 'ㄷ>ㅈ' 설면음화의 동화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 ㄱ>ㅈ

(12) ㄱ. 질(길) 지름(기름) 질-(長) 저(겨) 저릅(겨릅) 절-(결-)
자우뚱(갸우뚱) 칭이(箕) 지지배(계집애)

---

175) 복합어 구성에서 후행요소가 '힘'인 경우, 중부방언에서도 '입심, 뱃심, 뚝심'처럼 '심'으로 실현되는데 단일어 '힘'이 'ㅎ>ㅅ' 설면음화를 경험하지 않은데도 복합어 구성의 후행요소일 때는 '심'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흥미를 자아낸다. 또한 이기갑 외(1998)에 의하면 전남 동부지역어에서 '춘세'(추녀)라는 어형이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문헌어의 '춘혀'가 '춘#혀'와 같은 복합어 구성이었을 가능성도 점칠 수 있겠다.

ㄱ'. 경사 경우 교장 귤 계옥(계획)
ㄴ. 기-{긔-} 키{킈} 기{게} 기냥(그냥)
ㄷ. 질드리- 짓(옷깃) 지대- 지래

화순어에서 'ㄱ>ㅈ' 설면음화도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12ㄱ). 다만 한자어의 경우에 'ㄱ>ㅈ' 설면음화를 확인할 수 있는 어형은 발견하기 힘들다(12ㄴ). 그리고 'ㄱ>ㅈ' 설면음화도 원칙적으로 'y'나 순정의 'i'에 선행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모음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i' 앞에서는 'ㄱ>ㅈ' 설면음화를 확인할 수 없다(12ㄷ).[176] 또한 화순어에서 소위 역구개음화의 예는 발견할 수 없다(12ㄹ).

'ㄱ>ㅈ' 설면음화는 'ㅎ>ㅅ' 설면음화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어두음절에서만 가능하다.[177] 홍윤표(1985)에서는 이를 시기적인 문제라고 본 바 있다. 하지만 곽충구(2001)에서는 동질적('i, y'가 동화주) 음운현상인 움라우트와의 관련성(전광현 1977, 김주필 1994)과 'ㅎ'이 어중에서 탈락한다는 점 때문에 각각 'ㄱ>ㅈ'설면음화와 'ㅎ>ㅅ'설면음화가 비어두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비어두에서 'ㄱ>ㅈ' 설면음화를 보이는 경우는 복합어에 한정된다(13).

(13) 왕저(왕#겨) 우리찌리(우리#끼리) 홧짐(홧#김)

결론적으로 ㉯용천어에서는 설면음화를 모르나('ㅎ>ㅅ' 설면음화는 미약) 화순어에서는 설면음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는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 이음이 실현되는 양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76) 전광현(1977)에 의하면 전북 익산지역어에서 '지차{긔챠, 汽車}, 지별{긔별, 寄別}, 지-{긔-, 匐}'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고 한다.

177) 최전승(1986:302)는 Gale(1897)에 실려있는 '삼치-(삼키-)'를 비어두 음절에서 'ㄱ>ㅈ' 설면음화가 적용된 예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어두에서도 'ㄱ>ㅈ' 설면음화가 활발하지 못한 중부방언이 비어두에서 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용천어>	<화순어>
▶'ㅅ, ㅈ'의 설면음화가 현재 진행중이다. ▶'ㅅ, ㅈ'은 'i, y' 앞에서 설면-후치경음 [ʃ, ʧ]와 설면-경구개음 [ɕ, ʨ]로 자유변이한다. ▶'ㄷ, ㄴ'은 'i, y' 앞에서도 설단-치음 [t̪, n̪]로 실현된다.	▶'ㅅ, ㅈ'의 설면음화가 완성되었다. ▶'ㅅ, ㅈ'은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음 [ɕ, ʨ]으로 실현된다.

결국 설면음화는 'ㅅ, ㅈ'과 'ㅎ, ㄷ, ㄱ'이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 이음을 가지며 이들이 음성적으로 가까울 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용천어에서는 'ㅅ, ㅈ'이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이 설면음화의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ㄷ'은 'i, y' 앞에서도 설단-치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ㄷ>ㅈ' 설면음화는 전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2.1.2 어두 'ㄴ'의 변화

국어사에서 'ㄴ'은 'i, y' 앞에서 경구개 이음 [ɲ]로 실현되고 이어서 어두의 [ɲ]은 탈락함으로써 어두에서 'ㄴ-{i, y}'의 연쇄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경구개 이음이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설면음화'와 비슷하다. 하지만 딴 자음으로 교체되는 설면음화와는 달리 어두의 [ɲ]은 탈락을 경험한다.

두 지역어의 대조를 통해 두 지역어 모두 어두에서 'ㄴ-{i, y}'의 연쇄를 가진 단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ㄱ. 네⇔니(네, 爾) 넹기-⇔닝기-(넘기-)
　　ㄴ. 니⇔이(齒) 닛-⇔잇-(繼) 니마⇔이마(額)
(15) 냥반⇔양반(兩班) 녀자~네자⇔여자(女子) 뉵⇔육(六)

화순어의 어두에서 'ㄴ-이' 연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으며 이 연쇄는 ㉆용천어의 'ㄴ-에' 연쇄에 대응한다(14ㄱ). 그리고 ㉆용천어의 'ㄴ-이' 연쇄가 화순어의 'ㄴ-이' 연쇄에 대응하는 예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화순어의 'ø-이'

연쇄에 대응한다(14ㄴ). 이는 화순어에서 어두 'ㄴ'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5)에서 보이는 두 지역어의 대응 관계는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서 'ㄴ-yV' 연쇄가 존재했음을 가정할 때에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 [원]용천어

현대 [원]용천어의 'ㄴ'이 설단-치음 [n̪]임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모음 앞에서도 경구개 이음을 가지지 못하며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용천어에는 어두의 'ㄴ'이 'i, y'앞에서 탈락하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16) ㄱ. 니(齒) 니마(額) 닛-(繼)
ㄴ. 냥(兩) 냥반(兩班) 녀자(女子) 녀관(旅館) 농천(龍川) 눅(六)
ㄴ'. 네비(旅費) 넨세(年歲) 네자(女子)

(16)에서 보는 것처럼 'i, y' 앞의 '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때 'y'는 'ㄴ' 뒤에서 탈락하거나(16ㄴ) 축약에 의한 단모음화를 경험한다(16ㄴ').

(17) 여자(女子) 여학생(女學生) 요리(料理) 유리(琉璃) 요구(療飢)

그런데 [원]용천어에 'ㄴ'이 'i, y' 앞에서 탈락한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약간 존재한다(17). 그러나 이들은 언어내적(음운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방언차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것이 중국으로 이주하기 전의 차용인지, 이주한 후의 차용인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요리'에 해당하는 평북방언형으로 김이협(1981)에 '노리'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17)의 예들은 이주 후에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화순어

(18) ㄱ. 이(齒) 이마빡(額) 여자(女子) 양반(兩班) 용(龍) 육(六)
ㄴ. ni(爾) niŋginda(넘기-) 니기{너희}
ㄷ. talphaɲi(달파니, 蝸) kaɲya(가-냐)

역사적인 어느 단계에서 'i, y' 앞에 놓였던 'ㄴ'은 어두 위치에서 탈락했다(18ㄱ). 즉 'ㄴ'은 'i, y' 앞에서 경구개 이음 [ɲ]로 실현되고 어두에서 이 음성이 탈락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화순어에서 'ㄴ-이' 연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18ㄴ). 이 경우 'ㄴ' 뒤에 놓이는 '이'는 순정의 '이'가 아니라 '에>이' 변화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경우의 'ㄴ'은 '이' 앞에서 결코 경구개 이음으로 실현되지 않고 설단-치경음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어두 'ㄴ'의 탈락도 설면음화 규칙과 마찬가지로 '에>이' 규칙이 생기기 이전에 화자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진 음운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순어에서 비어두 위치의 'ㄴ'은 'i, y' 앞에서 경구개 이음 [ɲ]으로 실현된다(18ㄷ). 하지만 이들이 어두에서처럼 탈락의 변화를 경험한 예는 화순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어두 위치와 비어두 위치의 어떠한 음운론적(또는 음성학적) 차이가 'ㄴ'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화순어에서는 어두의 'ㄴ'이 'i, y' 앞에서 탈락했으나 ㉯용천어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 'ㄴ' 뒤에서 'yV' 상승 이중모음이 변화(주로 y탈락)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의 차이는 자음체계에서 기인한다. ㉯용천어에서 'ㄴ'은 설단-치음으로 실현되며 'i, y' 앞에서 경구개 이음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어두에서 'ㄴ'은 'i, y' 앞에서 탈락할 음성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화순어는 'ㄴ'이 설단-치경음으로 실현되며 'i, y' 앞에서 경구개 이음 [ɲ]를 가진다. 이 음성이 어두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다.

4.2.2 모음간 자음의 변화

이 절에서는 <2.2.1 음소배열>에서 언급한 음절연결의 제2유형(V_1 $ CV_2)에서 모음간 자음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 알아본다. 모음간 자음은 두 지역어에서 그리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ㅎ'과 'ㆁ'에 한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이에 덧붙여 음절경계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음절경계의 변화가 모음간 자음의 변화는 아닐진대 이 절에서 함께 살피는 것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변화가 모음간 자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 논의하도록 한다.

두 지역어에서 모음간 'ㅎ'과 'ㆁ'이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는 점은 두 지역어에 존재하는 공시적인 규칙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 ㄱ. 도아서(돟+아서) 싸:니까니(쌓+으니까니)
ㄴ. 나어구(나+허구)
(20) ㄱ. 조아서(좋+아서) 쌍:개(쌓+옹개)
ㄴ. 나어고(나+허고)

(19)은 [원]용천어형이고 (20)은 화순어형이다. 두 지역어 모두 'ㅎ' 말음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하거나 모음 말음 체언 어간에 'ㅎ'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이 때의 'ㅎ'은 탈락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ㅎ'은 모음 사이에서 탈락한 것이다.

(21) ㄱ. 바이(방+이) 따이다(땅+이다)
ㄴ. 다아~다:(장+에) 잔드으~잔드:(등+에)
ㄴ'. 당애(장+에) 잔둥애(서당+에)
(22) ㄱ. 방이(방+이) 땅이다(땅+이다)
ㄴ. 장애(장+에) 등애(등+에)

또한 [원]용천어의 공시적 결합 과정에서 모음간 'ㆁ'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21). 즉 [원]용천어의 'ㆁ' 말음 체언 어간에 주격 조사 '-이'나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할 때 'ㆁ'은 음성적으로 매우 약화된다(21ㄱ). 그리고 특수한 처격 조사 '-V'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ㆁ'이 약화되거나 더 나아가 탈락하기도 한다(21ㄴ). 하지만 특수 처격 조사 '-V' 대신 처격 조사 '-애'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변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1ㄴ').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이러한 'ㆁ'의 약화 또는 탈락 현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22).

우리는 현대 두 지역어에서 보이는 공시적인 음운 과정의 대조를 통해서 두 지역어 모두 모음 사이에 'ㅎ'과 'ㆁ'이 놓일 수 있는 역사적인 단계를 가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 원용천어

● 'ㅎ'의 변화

모음간의 'ㅎ'은 탈락하는 것이 큰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23) ㄱ. 사우{사회} 파우{바회, 巖} 아옵{아홉} 여울{여흘}
아{아히} 너{너희} 머우{머휘} 종애{죠히}[178]
ㄴ. 배우-{비호-} 싸우-{사호-} 썰-{서흘-}
(24) ㄱ. 바쿠{바회, 輪} 우쿰{우홈, 우회욤}
ㄴ. 여호(狐)

(23)에서 볼 수 있듯이 체언이든(23ㄱ), 용언이든(23ㄴ) 관계없이 모음간의 'ㅎ'은 탈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나 'ㅎ'이 'ㅋ'으로 변화하는 예들이 있다(24ㄱ).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쿠, 우쿰'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원용천어에만 한정되지 않고 거의 국어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중부방언의 문헌어에 'ㅎ'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23)의 'ㅎ'과 그 기원이 달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179] 그리고 모음 사이에서 'ㅎ'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24ㄴ) 이는 '狐'에 이끌린 화자들의 의식적인 발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78) '종애'는 {죠히}의 'ㅎ'이 탈락하고 모음충돌을 막기 위해 'ㆁ'이 첨가된 것이다. 결코 'ㅎ'이 'ㆁ'으로 변화했다고 볼 일은 아니다.

179) 앞서 언급했듯이 중부방언의 'ㆅ'은 'ㅋ'으로의 변화를 보인다. 또한 중세국어에 'ㆅ'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까닭에 '바쿠, 우쿰'의 'ㅋ'이 'ㆅ'으로 재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는데 더 이상의 억측은 삼가려 한다.

● 'ㆁ'의 변화

<2.2.1 음소배열>에서 언급했듯이 [원]용천어의 모음간 'ㆁ'은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25) 붕애(붕어) 종애(종이) 동애(동이) 눙애(누에) 겡우(경우)

(26) ㄱ. 마이(鷹) 막내이(막내) 구이(槽) 고이(杵)

ㄴ. 가아~강애(가위) 바아~방애(방아)

ㄷ. 꼬아리(꽈리) 또아리(또아리) 소아리(송이) 모아리(망울)

ㄷ'. 고앙(공항) 보앙새(봉황새)

(25)의 예들은 모음간 'ㆁ'이 [ŋ]으로 실현되는 예들이다.180) 하지만 [원]용천어의 모음간 'ㆁ'은 약화되어 $[^{ŋ}]$으로 실현되거나 아예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26). 첫째, '이' 모음이 후행할 때에는 'ㆁ'이 약화된다(26ㄱ). 이 때 선행모음의 종류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동일한 모음 사이에 위치하는 'ㆁ'이 약화된다(26ㄴ).181) '바아~방애', '가아~강애'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셋째, '오'와 '아' 사이에 위치하는 'ㆁ'는 약화된다(26ㄷ).182) (26ㄷ')의 예는 'ㅎ'이 탈락하고 난 뒤 동일한 환경에서 'ㆁ'이 탈락한 경우이다.

그런데 'ㆁ' 뒤에 상승 이중모음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이와 약간 다른 변화를 한다.

(27) ㄱ. 폐양(平壤) 고양미(供養米) 보양(奉養) 디역~데역(懲役)

ㄴ. 타냑(湯藥) 호녁(紅疫)

---

180) 한영순(1956ㄱ)은 '눙에, 종왜(종이), 생우지(새우), 강에(가위)'의 'ㆁ'도 '비음자음 [~]'이라 하여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경우의 'ㆁ'은 약화되지 않고 다만 양음절적이다. 이것이 시대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81) 확언할 수는 없지만 [원]용천어의 '짜짠디{쟝앗디히}'의 어두 음절 '짜'는 'ㆁ'이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용천어에서 '짠디'는 '김치'를 가리킨다.

182) [원]용천어의 '오자뻬'는 '오징어'가 화석형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오자'도 'ㆁ'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봉사(봉숭아), 복사(복숭아)'는 중부방언과 비교할 때 'ㆁ'이 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봉쇼아, 복쇼아'의 직접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한자어 구성인데 선행요소의 말자음이 'ㆁ'이고 후행요소의 모음이 상승 이중모음이며 종성은 연구개음(ㆁ, ㄱ)이다. 이 경우에 상승 이중모음은 전혀 변화가 없고 다만 선행요소의 말자음 'ㆁ'이 탈락하거나(27ㄱ) 'ㄴ'으로 변화한다(27ㄴ).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ㄴ'으로 변화하는 예는 '타냑, 호녁'이 전부이며[183] 동일한 환경에서 'ㆁ'은 거의 대부분 탈락한다. 'ㆁ'의 탈락은 중부방언에서도 존재하는데 이숭녕(1960)에서는 이를 이화에 의한 탈락으로 보았다. 다만 이숭녕(1960)에서는 후행음절의 종성이 'ㆁ'인 경우로만 한정하여 이 'ㆁ'에 의한 이화로 보았는데 'ㄱ'까지 포함시켜 동기관적 이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ㆁ'이 'ㄴ'으로 변화하는 변화는 그 예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다.[184] 결국 'Vŋ#yV{ŋ · k}'의 환경에서 'ㆁ'이 탈락하는 것이 ㉯용천어의 일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음절경계의 변화

㉯용천어에서 모음간에 자음이 하나일 때 음절경계는 자음 앞에 놓인다.[185] 특히 후행하는 모음이 단모음일 때에는 음절경계가 자음 앞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후행하는 모음이 상승 이중모음일 때는 음절경계가 놓이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용천어에는 상승 이중모음이 연결될 때 이중모음이 변화한 어형[186]과 이중모음이 그대로 실현되는 어형이 쌍형으로 공존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28).

---

183) 중부방언의 '시늉'에 해당하는 ㉯용천어가 '헤농'인데 만약 이 단어의 어원이 '형용(形容)'이라면 이것도 'ㆁ>ㄴ'의 예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그 어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184) '타냑, 호녁'은 'ㄴ'뒤에서 'ㅑ'가 'ㅏ'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용천어의 일반적인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이 점에서 'ㆁ>ㄴ'의 변화가 이 지역어의 고유한 변화라고 보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

185) 중부방언에서도 모음 사이에 하나의 자음이 위치하면 음절경계는 자음 앞에 놓여 자음은 후행음절의 초성이 된다. 이 때 후행하는 모음은 단모음일 수도 있고 이중모음일 수도 있다.

186) ㉯용천어에서 자음 앞에 음절경계가 놓이면, 즉 자음이 후행음절의 초성이 되면 초성 뒤의 y계 상승 이중모음은 변화(축약 또는 y탈락)를 경험하게 된다.

(28) 니라듧~닐야듧 피로~필요 저념~전염 저략~절약 마냑~만약
타냑~탄약(탕약) 호녁~혼역(홍역)

이 때 이중모음이 실현되는 어형은 음절경계가 자음 뒤에 놓이게(C $ yV) 된다. 이는 [원]용천어에서 음절경계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두 어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비교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전#염/	/전#염/
음절경계	저$념	전$염
이중모음변화	저념	전염
	[저념]	[전염]

이러한 변화는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는데 복합어(한자어 포함)의 후행요소가 상승 이중모음으로 시작할 때이다. 다시 말하면 'V_1C # yV_2'의 환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 자음 뒤에 음절경계가 놓이는 것은 아니다.

(29) ㄱ. 가라겻(가락#엿) 호바겻(호박#엿) 배겨우(백#여우)[187]
ㄴ. 강엿(강#엿) 물엿(물#엿) 불여우(불#여우) 곰열(곰#열, 쓸개) 좀약(좀#약)
(30) ㄱ. 모교일(목#요일) 능마겸(능막#염, 肋膜炎) 홍마겸(홍막#염, 胸膜炎) 노공(鹿茸)
ㄴ. 일요일(일#요일) 금요일 전염(傳染) 간염(肝炎) 절약(節約) 한약(韓藥)
동양(東洋) 심양(沈陽)

(29)는 고유어가 포함된 복합어의 경우이고 (30)은 한자어의 경우이다. 이들 예를 통해 음절경계의 차이를 뚜렷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일'이 결합된 단어에서 음절경계의 차이를 보도록 하자.

㉮ mo $ gyo $ il
㉯ il $ yo $ il

우리는 선행요소의 말자음의 'ㄱ'일 때에는 음절경계가 'ㄱ' 앞에 놓이고 'ㄹ'일 때에는 'ㄹ' 뒤에 놓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더 확대하면 선행요소의 말자음

187) 중부방언에서 이 예들은 'ㄴ'첨가가 일어나는데 [원]용천어에서는 이와 다르다.

이 공명음(ㅁ ㄴ ㅇ ㄹ)이면 음절경계가 이들 자음 뒤에 놓이고 기타 자음이면 음절경계는 이들 자음 앞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188)

정연찬(1997:162)는 중부방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이중모음이 두음으로 자음을 못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음을 갖지 않는 이중모음보다는 부자연스럽다. 즉 '각양, 각왕, 갑연' 등이 '[가걍/각양], [가광/각왕], [가변/갑연]'과 같이 둘 다 가능하나 후자가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간여, 간유, 감역' 등은 연음이 거의 불가능하며 '갈열, 발열' 등의 경우는 연음이 어려워 보인다.

한자어의 경우에 선행요소의 말자음이 장애음일 때에는 연음, 분음이 둘 다 가능하지만 비음일 때에는 연음이 거의 불가능하며 유음일 때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의 정확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선행요소의 말자음이 공명음(비음, 유음)일 때와 기타 자음일 때, 중부방언에서도 연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어의 많은 방언들에서 'y'와 'i'는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음절경계와 관련해서 ㉰용천어에서는 이들이 행동을 달리 한다. 즉 복합어(한자어 포함)에서 후행요소의 두음이 'i'일 때에는 선행요소의 말자음 종류에 관계없이 이 자음은 후행음절의 초성이 된다. 즉 말자음이 장애음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31ㄱ) 공명음이라고 하더라도(31ㄴ) 음절경계는 이 자음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31) ㄱ. 지빌(집#일) 허덜(헛#일)189) 소깁성(속#입성)
ㄴ. 노닐(논#일) 매닙(맨#입) 구닙(군#입) 멩지립성(멩질#입성)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첨사 '-요'인데 이는 ㉰용천어에서 음성적으로 [yo]로 실현된다.

---

188) 여기에 제시한 예들은 모두 선행요소의 말자음이 'ㄱ'인데 이는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9) 이를 통해 선행요소의 말자음은 음절 조정에 앞서 평폐쇄음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2) ㄱ. 바뵤(밥#요) 구교(국#요)
　　ㄴ. 수료(술#요) 도뇨(돈#요) 사묘(삼#요)

이들은 상승 이중모음 '요'가 결합되는데도 선행요소의 말자음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자음 앞에 음절경계가 놓인다. 그래서 이들은 언뜻 [원]용천어의 음절조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용천어의 '-요'는 서술격 조사 '이-'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즉 이는 음성적으로 [yo]로 실현되지만 화자들에게 형태소로서 서술격 조사 '이-'가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에서 확인된다.

(33) 꼬쵸(꽃#요) 오쇼(옷+요) 따요(땅#요)

즉 '-요'에 서술격 조사가 들어 있지 않다면 선행요소의 말자음이 그대로 실현되기 힘들며 또한 'ㆁ'이 약화되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원]용천어의 '-요'는 음성적으로 [yo]로 실현되지만 음소적으로는 /io/로 해석함으로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190]

결국 후행요소의 두음이 상승 이중모음인 경우, [원]용천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서 선행요소의 말자음이 연음되어 음절경계는 그 자음 앞에 놓이다가, 그 후 어느 시기에 이르러 음절경계가 자음 뒤에 놓이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원]용천어에서는 이러한 음절경계의 재조정에 의해 복합어 또는 한자어의 음절구조가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약(탕약), 혼역(홍역)'의 예는 흥미롭다. 이들은 각각 '타냑, 호녁'의 오분석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 화순어

● 'ㅎ'의 변화

화순어에서도 [원]용천어와 마찬가지로 모음간에서 'ㅎ'은 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34).

---

190) [원]용천어에서 상승 이중모음과 모음 '이'가 음운론적 행동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상승 이중모음은 음소적으로 'y'와 모음의 연쇄로 보는 것이 나올 듯하다. 다만 '-요'를 통해 모든 상승 이중모음이 이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음성 [yo]가 음소적으로 /yo/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o/도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본다.

(34) ㄱ. 사우 바우 아옵 종우
ㄴ. 배우- 싸우- 썰-
(35) ㄱ. 바쿠~바꾸 웅쿰
ㄴ. 아그{아히} 느그~니기{너희} 즈그~지기{저희} 머구{머휘}

다만 (35ㄱ)의 '바쿠, 웅쿰'은 ㉿용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ㅎ'이 'ㅋ'으로 변화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ㅎ'의 기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용천어에서는 탈락을 했던 모음간 'ㅎ'이 화순어에서는 'ㄱ'으로 변화한 특이한 예들이 있다(35ㄴ). 이들도 또한 'ㅎ'의 기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191)

● 'ㆁ'의 변화

화순어에서는 ㉿용천어와 달리 모음간 'ㆁ'의 약화 또는 탈락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ŋ]으로 실현된다.

(36) ㄱ. 붕애 종우 동우
ㄴ. 강이(강+이, 江) 상애(상+에, 床)

그런데 'ㆁ' 뒤에 상승 이중모음이 위치할 때에는 특이한 변화를 경험한다.

(37) ㄱ. 여냥까(영양가) 시농차(숭용차) 지뇽(징용) 보냥(봉양)
ㄴ. 호녁(홍역) 노냑(농약) 타냑(탕약) 지녁(징역)
ㄷ. 방양(방향) 동양(동양)

(37)을 보면 상승 이중모음이 위치한 음절의 종성이 'ㆁ'이거나(37ㄱ) 'ㄱ'이라는(37ㄴ)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동기관적 이화에 의해 'ㆁ'이 변화를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ㆁ'이 탈락하는 ㉿용천어와는 달리 'ㄴ'으로 변화한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예들도 있는데(37ㄷ) 이는 방언차용(특히 표준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다.192)

191) 이병근 · 정인호(2003)에서는 이들이 연구개유성마찰음 [ɣ]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192) '방양, 동양' 등에서 음절경계가 어디에 놓이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필자의 직관으

● **음절경계의 변화**

화순어는 후행하는 모음이 상승 이중모음이든지, 아니면 단모음이든지 관계없이, 또한 자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음 앞에 음절경계가 놓인다. 즉 개재하는 자음은 후행음절의 초성이 되는 것이다. ㉯용천어와는 달리 음절경계에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8) 그묘일(금요일) 모교일(목요일) 저념(전염) 저략(절약)

결론적으로 두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것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그런데 두 모음 사이의 'ㆁ'이 변화하는 양상은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즉 ㉯용천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ㆁ'이 음성적으로 약화되고 나아가 탈락하기도 하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없다. 그리고 두 지역어는 'C#yV'의 음절경계 설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화순어에서는 '$CyV'와 같이 음절경계가 놓이는데 반해 ㉯용천어에서는 'C'의 종류에 따라 음절경계가 놓이는 유형이 두 가지(①$CyV, ②C$yV)이다. 이때 ①의 'C'는 장애음이고 ②의 'C'는 공명음(ㅁ ㄴ ㆁ ㄹ)이다.

모음간 자음의 변화는 자음체계와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자음 자체의 특성과 음소배열 제약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지역어는 국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음소배열 제약에 따라 비슷한 변화를 보이는데 다만 ㉯용천어에서는 화순어와 다른 새로운 제약이 생기면서 두 지역어가 모음간 자음의 변화에서 차이를 약간의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2.3 자음연쇄의 변화

두 지역어에서 음절이 연결되는 방식에 3가지 유형이 있음을 <2.2.1 음소배열>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제3유형(V_1C_1 \$ C_2V_2)에 해당하는 자음의 연결을 자음연쇄라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두 지역어는 이러한 자음연쇄에 있어서 동일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로는 이 경우의 모음간 'ㆁ'이 양음절적이다.

① 'C_1'에는 7자음(ㅂ ㄷ ㄱ ㅁ ㄴ ㅇ ㄹ)만이 놓일 수 있으며, 'C_2'에는 'ㅇ'이 놓일 수 없다.
② 'C_2'가 비음(ㅁ ㄴ)이면 'C_1'에 장애음(ㅂ ㄷ ㄱ)이 놓일 수 없다.
③ 'C_2'가 'ㄴ'이면 'C_1'에 장애음뿐만 아니라 'ㄹ'도 놓일 수 없다.
④ 'C_2'가 'ㄹ'이면 'C_1'에 'ㄹ'만이 놓일 수 있다.
⑤ 'C_1'이 장애음(ㅂ ㄷ ㄱ)이면 'C_2'에 평장애음(ㅂ ㄷ ㄱ ㅈ ㅅ)이 놓일 수 없다.

그런데 'C_2'가 'ㅎ'일 때[193]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해서만 알아보려 한다.

■ ㉾용천어

㉾용천어에서 'C_1-ㅎ' 연쇄는 'C_1'에 해당하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다. 먼저, 'C_1'이 공명음일 때에는 후행하는 'ㅎ'이 탈락한다(39). 이는 형태소 내부(39ㄱ)이든, 형태소 결합과정이든(39ㄴ) 관계없이 일어난다.

(39) ㄱ. 노누-{논호-} 동애{동히} 방애{방하} 가미(감히) 고루{골회} 뿌레기{불휘}
ㄴ. 파림(팔#힘) 동남양(東南#向) 달크머-(달큼#허다) 어러러-(얼얼#허다)[194]

하지만 'C_1'이 장애음일 때에는 2가지 방향의 변화를 경험한다. 즉 'C_1'과 'ㅎ'이 축약(격음화)을 경험하기도 하고(40) 이 자음연쇄가 그대로 유지되기도(41)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차이는 시기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축약(격음화)의 변화가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격음화한 예들은 화자들의 인식 속에 거의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데에 반해 자음연쇄가 유지되는 예들은 공시적인 단어형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193) 표준어에서도 'C_2'가 'ㅎ'일 때는 세밀한 관찰을 요한다. 즉 체언의 경우에는 'C_1'이 장애음일 때 'C_2'에 'ㅎ'이 놓일 수도 있으나 용언 활용의 경우에는 'C_2'가 'ㅎ'일 때 'C_1'에 '장애음'뿐만 아니라 '공명음'도 올 수 없어 'C_1'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없게 된다. <표준발음법>에서도 "'ㄶ, 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제12항)라고 하고 있다. 다시말해 용언의 경우에 'C_2'에는 'ㅎ'이 놓일 수 없는 것이다.

194) ㉾용천어에서 '허-(爲)'는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40) ㄱ. 배캐젓(白蝦) 매캐(木花) 조캐(族下)
ㄴ. 그피(급히) 조피-(좁히-) 쏘티-(쏟히-)
(41) ㄱ. pughan(북한) yaghon(약혼) chugha(축하) kughwa(국화) səghwɛ(석회)
oghi(옥희, 人名) sughi(숙희, 人名)
ㄴ. madhyəŋ(맏형) pughyaŋ(北向) hədhim(헛힘) ibhim(입힘) sɯbho(十號)
nughaŋnən(六學年) p'əp'ədhəda(뻣뻣허다) kɯbhəda(급허다)

(40)은 'C_1-ㅎ' 연쇄가 축약을 경험한 예들인데 한자어이거나 부사파생접미사(-히) 또는 피사동접미사(-히)가 결합한 경우이다. (40ㄱ)의 한자어에서 한자에 대한 어원 의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파생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의 분리 가능성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리 (41)은 'C_1-ㅎ'의 연쇄가 음소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41ㄱ)은 한자어이고 (41ㄴ)은 단어 경계에서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쇄에서 선행하는 장애음은 음성적으로 유성마찰음에 가까우며 후행하는 'ㅎ'은 음성적으로 선행하는 유성음을 약하게나마 무성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그리고 이 연쇄에서의 'ㅎ'은 어두 위치에서의 'ㅎ'과 비교할 때 선행하는 유성음의 영향으로 꽤 약화되어 실현된다. 그런데 이 경우 음절 경계가 두 자음 사이에 놓이는지, 아니면 'C_1' 앞에 놓이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화순어

화순어의 경우도 이 연쇄의 변화 양상이 ㉥용천어와 아주 비슷하다. 즉 선행자음이 공명음일 때에는 'ㅎ'이 탈락한다(42). 그리고 선행자음이 장애음일 때에도 화순어의 어느 역사적인 단계에서 축약을 경험한다는 점도 ㉥용천어와 같다(43ㄱ). 다만 공시적인 단어형성 과정에서 'ㅎ'이 아예 탈락한다는 점이(43ㄴ) ㉥용천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44) 동우{동희} 고리{골회} 딴다너다(단단하-)
(45) ㄱ. 조캐(族下) 그피(급히) 쇠키(속히) 조피-(좁히-)
ㄴ. ɕibo(十戶) yugaŋnyən(六學年) nogo(녹호, 人名)
p'əp'ədəda(뻣뻣하다) kɯbəda(급하다) c^hagəda(착하다)

결론적으로 현대 두 지역어에서 보이는 자음연쇄 제약이 비슷한 점을 보면 두 지역어가 자음연쇄에서 동일한 변화를 경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두 지역어뿐만 아니라 국어 전반에 걸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어 각 방언들의 모체로서 국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행자음이 'ㅎ'일 때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두 지역어 모두 형태소 내부에서는 'C_2'에 'ㅎ'이 놓일 수 없다. 다만 'C_1'과 'C_2' 사이에 단어경계가 놓일 때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용천어에서는 'C_1'이 장애음(ㅂ ㄷ ㄱ)일 때 'C_2'에 'ㅎ'이 놓일 수 있으나 화순어에서는 'C_1'의 종류에 관계없이 'C_2'에 결코 'ㅎ'은 놓일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전혀 별개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변화 진행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즉 장애음에 후행하는 'ㅎ'은 ㉥용천어에서 음소로서 존재하기는 하나 음성적으로 매우 약화되어 있으며 화순어는 이 변화에서 더 나아가 'ㅎ'이 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변화의 방향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4.2.4 두 지역어의 '통합상의 변화' 대조

지금까지 두 지역어의 '통합상의 변화'의 대조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 설면음화 : ㉥용천어에서는 설면음화를 모르나('ㅎ>ㅅ' 설면음화는 미약) 화순어에서는 설면음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는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 이음이 실현되는 양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어두 'ㄴ'의 변화 : 화순어에서는 어두의 'ㄴ'이 'i, y' 앞에서 탈락했으나 ㉥용천어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 'ㄴ' 뒤에서 'yV' 상승 이중모음이 변화(주로 y탈락)를 경험하였다.

㈐ 모음간 자음의 변화 : 두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것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그런데 두 모음 사이의 'ㆁ'이 변화하는 양상은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즉 ㉥용천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ㆁ'이 음성적으로 약화되고 나아가 탈락하기도 하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없다. 그리고 두 지역어는 'C#yV'의 음

절경계 설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화순어에서는 '$CyV'와 같이 음절경계가 놓이는데 반해 ㉠용천어에서는 'C'의 종류에 따라 음절경계가 놓이는 유형이 두 가지(① $CyV, ②C$yV)이다. 이때 ①의 'C'는 장애음이고 ②의 'C'는 공명음(ㅁ ㄴ ㅇ ㄹ)이다.

㈑ 자음연쇄의 변화 : 현대 두 지역어에서 보이는 자음연쇄 제약이 비슷한 점을 보면 두 지역어가 자음연쇄에서 동일한 변화를 경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후행자음이 'ㅎ'일 때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혀 별개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된 변화 정도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음에 있어서 '통합상의 변화'도 모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즉 자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와 그렇지 못한 변화가 그것이다.

㉮ 자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 : 설면음화, 어두 'ㄴ'의 변화
㉯ 자음체계와 관련이 비교적 적은 변화 : 모음간 자음의 변화, 자음연쇄의 변화

자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 즉 설면음화와 어두 'ㄴ'의 변화는 두 지역어에서 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난다. 즉 화순어와 달리 ㉠용천어에서는 'ㅅ, ㅈ'의 설면음화가 아직 진행중이라는 점과 'ㄷ, ㄴ'이 설단-치음으로 실현된다는 점 때문에 설면음화와 어두 'ㄴ'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자음체계와 관련이 비교적 적은 변화, 즉 모음간 자음의 변화와 자음연쇄의 변화는 분화 이전의 모체인 국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 바 크므로 변화에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① 모음간 'ㆁ'의 변화
② 'C#yV'에서의 음절경계 변화
③ 'C#h'에서의 'ㅎ'탈락

5. 결 론

본고에서는 두 가지의 음운론적 대조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현대 ㉳용천어와 화순어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대조를 통해 음운체계와 음운배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두 지역어의 공시음운론적 대조 결과와 내적 증거를 토대로 해서 두 지역어의 어느 역사적 단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선대형을 설정하고 이로부터의 변화 양상을 통시음운론적으로 대조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第2장은 현대 두 지역어의 음운체계와 음운배열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대조 연구이다.

두 지역어는 음운체계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먼저 두 지역어는 모음목록상 차이를 보인다(㉮㉳용천어(8모음) : 이 에 애 으 어 아 우 오 ㉯화순어(9모음) : 이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 즉 ㉳용천어에는 전설원순모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화순어에서는 '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 지역어는 이러한 모음목록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대립 체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첫째, '어, 아'의 [+전설성] 대립짝이 차이를 보인다. 즉 ㉳용천어에서는 '어, 아'의 [+전설성] 대립짝이 각각 '에, 애'이지만 화순어에서는 두 모음 모두의 [+전설성] 대립짝이 '애'이다. 둘째, '어'가 비원순모음인 화순어와 달리, ㉳용천어에서는 어두와 비어두에서 각각 원순모음과 비원순모음의 이음을 갖는다. 셋째, 두 지역어는 '오'의 [-원순성] 대립짝이 차이를 보인다. 즉 '오'의 [-원순성] 대립짝이 ㉳용천어에서는 '아'이지만 화순어에서는 '어'이다. 다음으로 두 지역어의 자음목록은 완전히 일치한다(19자음 : 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ㄲ ㅅ ㅆ ㅎ ㅈ ㅊ ㅉ ㅁ ㄴ ㅇ ㄹ). 하지만 'ㄷ ㅌ ㄸ ㄴ'이 ㉳용천어에서는 설단-치음인 반면 화순어에서는 설단-치경음이어서 체계상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두 지역어는 공통적으로 2개의 반모음(y, w)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두 지역어의 운소는 공통적으로 '음장'이다.

두 지역어는 음운배열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먼저 한 음절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음소들의 제약은 두 지역어가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한 음절 내의 음소연쇄 제약에 있어서는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반모음-모음'

(상승 이중모음)의 연쇄인 y계 상승 이중모음(㉮㉾용천어(6개) : 예 얘 여 야 유 요 ㉯화순어(4개) : 여 야 유 요)과 w계 상승 이중모음(㉮㉾용천어(5개) : 위 웨 왜 와 워 ㉯화순어(3개) : 왜 와 워)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초성-y'의 연쇄는 두 지역어 모두 그리 활발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제약은 ㉾용천어에서 더욱 심하여 초성이 [+전설성] 자음일 때 이러한 연쇄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설면음-y'와 '폐쇄음-y'의 연쇄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한 화순어에서 'ㄴ-y'의 연쇄가 비어두 위치에서는 가능하나 어두 위치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셋째, '초성-w'의 연쇄는 두 지역어 모두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하지만 '양순음-w'의 연쇄는 두 지역어 모두 형태소 경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w'는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넷째, '초성-모음'의 연쇄에도 제약이 따른다. 먼저 '양순음-으'의 연쇄는 일부 형태소 경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양상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다음으로 '설면음-으'의 연쇄가 ㉾용천어에서는 큰 제약이 보이지 않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이 연쇄를 형성하는 예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두 위치에서 'ㄴ-이'의 연쇄가 ㉾용천어에서는 제약이 없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몇몇 단어에서만 가능하다.

두 지역어에서 음절이 연결되는 유형은 3가지(㉮제1유형: V_1 \$ V_2 ㉯제2유형: V_1 \$ CV_2 ㉰제3유형: V_1C_1 \$ C_2V_2)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1유형에 해당하는 연쇄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그 제약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양상은 두 지역어가 비슷하다. 둘째, 제2유형에 해당하는 연쇄에서의 제약으로 'C'에 'ㅎ'이 놓일 수 없다는 점과 'C'가 경음, 격음일 때 이 자음이 양음절적이라는 점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그런데 'C'가 'ㅇ[ŋ]'일 때 음절경계 배정에 있어서 두 지역어는 차이를 보인다. 셋째, 제3유형에서 제약은 두 지역어가 거의 비슷하다. ① 'C_1'에는 7자음(ㅂ ㄷ ㄱ ㅁ ㄴ ㆁ ㄹ)만이 놓일 수 있으며, 'C_2'에는 'ㆁ'이 놓일 수 없다. ② 'C_2'가 비음(ㅁ ㄴ)이면 'C_1'에 장애음(ㅂ ㄷ ㄱ)이 놓일 수 없다. ③ 'C_2'가 'ㄴ'이면 'C_1'에 장애음뿐만 아니라 'ㄹ'도 놓일 수 없다. ④ 'C_2'가 'ㄹ'이면 'C_1'에 'ㄹ'만이 놓일 수 있다. ⑤ 'C_1'이 장애음(ㅂ ㄷ ㄱ)이면 'C_2'에 평장애음(ㅂ ㄷ ㄱ ㅈ ㅅ)이 놓일 수 없다. 다만 'C_2'가 'ㅎ'이고 'C_1'이 장애음(ㅂ ㄷ ㄱ)인 연쇄에서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즉 화순어에서는 이 연쇄가 불가능하지만 ㉾용천어에서는 가능하다.

화순어에서 변별적 기능을 담당하는 장음은 어두 위치에서만, 더 정확히는 기식군 첫머리에서만 존재한다. ㉾용천어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비슷한데 비

어두 위치에서도 변별적인 장음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제3장은 두 지역어의 모음의 변화 양상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대조 연구인데 '계열상의 변화'와 '통합상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모음의 '계열상의 변화', 즉 모음체계의 변화 양상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음영은 본고에서 설정할 수 있는 最古 단계의 공통적인 모음체계).

모음체계		대 조
(원)용천어	화순어	
이 으 우 어 ᆞ 오 아		▶ 두 지역어 모두 '으—우', 'ᆞ—오'는 각각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한다.
이 으 우 어 아 오		▶ 두 지역어 모두 'ᆞ'가 非音韻化한다.
이 으 우 에 어 애 외 아 오		▶ 두 지역어 모두 '애[ɛ], 에[e], 외[œ]'가 音韻化(하강 이중모음의 단모음화)한다.
이 으 우 에 어 애 아 오	이 위 으 우 에 어 애 외 아 오	▶(원)용천어에서 '외'는 非音韻化(œ>wɛ)한다. ▶화순어에서 '위'가 音韻化(ui>wi>ü)한다.
〃	이 위 으 우 에 외 어 오 애 아	▶화순어에서 '오[ɔ], 외[œ]'는 '[o], [ö]'로 再音韻化하여 각각 '어, 에'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	이 위 으 우 애 외 어 오 아	▶화순어에서 '에'가 非音韻化(에>이)한다. 그리고 '애'는 '외'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어, 아'와 [±전설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한다.

모음의 '통합상의 변화'를 대조함으로써 드러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 두 지역어에서 역행적 원순모음화는 그 예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이다. 그러나 순행적 원순모음화(으>우, ᄋᆞ>오)는 꽤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화순어에서는 '으>우, ᄋᆞ>오'의 원순모음화가 모두 강력한 규칙으로 작용한 반면에, (원)용천어에서는 'ᄋᆞ>오'의 원순모음화가 그리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용천어에서 존재하지 않은 '어>오'의 원순모음화가 화순어에는 존재한다는 점도 두 지역어의 차이이다. 그리고 비원순모음화 규칙이 (원)용천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화순어와의 차이이다. 화순어에서는 어두의 전설원순모음 '외[ö], 위[ü]'가 양순음 뒤에서 각각 '애/에, 이'로, 비어두의 후설원순모음 '우, 오'가 원순모음 뒤에서 '으'로 비원순모음화한다.

(나) '으>이' 전설모음화 :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는 '설면성 동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존재했음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그런데 화순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반면에 (원)용천어에서는 일부 환경에서만 이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원)용천어에서 이 변화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ㅅ, ㅈ' 뒤의 '으>이' 전설모음화 이외에, (원)용천어에는 '이' 모음에 의한 순행적 '으>이' 전설모음화가 화순어와는 달리 존재한다.

(다) 움라우트 : (원)용천어에서 움라우트 현상은 피동화음이 '아, 어'인 경우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피동화음이 '오, 우'일 때에도 움라우트를 보이기는 하나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모든 후설모음을 피동화음으로 하여 움라우트가 일어난다.

(라)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 두 지역어에서 '야, 여, 요, 유'는 '자음-y'의 연쇄를 기피하려는 노력에 의해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선행자음이 없을 때에는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자음 뒤에서 그 변화를 활발히 관찰할 수 있다. 두 지역어에서 자음 뒤의 '여, 야'는 변화 방향이 대체로 비슷하다. [-전설성] 뒤에서는 축약되어 각각 '에, 애'로 변화하며 [+전설성] 자음 뒤에서는 'y'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요, 유'의 변화 양상은 두 지역어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원)용천어에서는 대부분 'y'가 탈락하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전설성] 자음 뒤에서 축약된다.

㈒ 고모음화 : 두 지역어에서 '어>으'의 고모음화는 비어두-비어말 개음절 위치에 한정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우'의 고모음화도 비어두-비어말 위치에서 두 지역어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원]용천어에서는 '오>우'의 고모음화가 그 환경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즉 비어두 개음절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변화가 일어나며 비어두 폐음절인 경우에도 다수 단어들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화순어에서는 비어두-비어말 위치가 아닌 경우에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예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원]용천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모음충돌의 변화 : 두 지역어에서는 모음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모음탈락, 이중모음화, 반모음화(또는 반모음 첨가), 자음 'ㆁ'의 첨가 등)이 진행된다. 두 지역어 모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다. 다만 화순어에 비해 [원]용천어에는 자음 'ㆁ'을 첨가하는 변화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음의 '통합상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모음체계(또는 자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 '으>이'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 고모음화)인가, 그렇지 않는 변화(모음충돌의 변화)인가에 따른 구분이 그것이다.

그런데 체계와 관련이 비교적 적은 변화는 음소 자체의 특성과 음소배열의 제약, 즉 분화 이전의 母體로서 國語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국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두 지역어에서 '모음충돌의 변화'에 큰 차이가 없음이 이를 말해준다.

'통합상의 변화'에서 두 지역어의 차이를 잘 드러내 주는 변화는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일 것이다. 이들이 음소체계의 차이를 잘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상의 변화'를 모음체계와 관련있는 변화(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원순성], 움라우트·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전설성], 고모음화[±고모음성])와 자음체계와 관련있는 변화('으>이' 전설모음화)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두 지역어에서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전설원순모음(위, 외)의 유무와 '어—오'가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형성했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그리고 움라우트와 y계 상승 이중모음의 변화에서의 차이는 전설원순모음의 유무에 기인한다. 그리고 고모음화는 두 지역어에서 다른 변화에 비해 체계적인 모습이 덜한데 그 이유는 두 지역어의 모음체계에서 [±원순성]과 [±전설성]에 의한 대립보다는 [±고모음성]에 의한 대립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ㅡ>ㅣ' 전설모음화는 모음체계보다 자음체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ㅅ, ㅈ' 설면음화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ㅡ>ㅣ' 전설모음화 양상에 있어서 두 지역어의 차이를 유발한 것이다.

제4장은 두 지역어의 자음의 변화 양상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대조 연구인데 '계열상의 변화'와 '통합상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자음의 '계열상의 변화', 즉 자음체계의 변화 양상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음영은 본고에서 설정할 수 있는 最古 단계의 공통적인 자음체계).

자음체계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ㆅ ㅸ ㅿ ㅇ ㅈ ㅊ ㅉ ㅁ ㄴ ㆁ ㄹ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ㅈ ㅊ ㅉ ㅁ ㄴ ㆁ ㄹ	ㅂ ㄷ ㄱ ㅍ ㅌ ㅋ ㅃ ㄸ ㄲ ㅅ ㅎ ㅆ ㅈ ㅊ ㅉ ㅁ ㄴ ㆁ ㄹ
대조		▶유성마찰음이 두 지역어 모두에서 非音韻化한다. ▶'ㆅ'이 두 지역어 모두에서 非音韻化한다.	▶'ㅅ,ㅆ,ㅈ,ㅊ,ㅉ'이 再音韻化(설면음화)한다. 다만 두 지역어가 변화 시기와 정도의 차이를 보여 화순어에서는 설면음화가 완성된 반면, [원]용천어에서는 현재 진행중이다. ▶[원]용천어에서 'ㄷ,ㅌ,ㄸ,ㄴ'이 再音韻化한다. 즉 이들 자음이 설단-치음 [ṭ,ṭ^h,ṭ',ṇ]으로 변화한다.

자음의 '통합상의 변화'를 대조함으로써 드러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설면음화 : ㉧용천어에서는 설면음화를 모르나('ㅎ>ㅅ' 설면음화는 미약) 화순어에서는 설면음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는 'i, y' 앞에서 설면-경구개 이음이 실현되는 양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어두 'ㄴ'의 변화 : 화순어에서는 어두의 'ㄴ'이 'i, y' 앞에서 탈락했으나 ㉧용천어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 'ㄴ' 뒤에서 'yV' 상승 이중모음이 변화(주로 y탈락)를 경험하였다.

㈐ 모음간 자음의 변화 : 두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것은 두 지역어가 동일하다. 그런데 두 모음 사이의 'ㆁ'이 변화하는 양상은 두 지역어가 차이를 보인다. 즉 ㉧용천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ㆁ'이 음성적으로 약화되고 나아가 탈락하기도 하는 데에 반해 화순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없다. 그리고 두 지역어는 'C#yV'의 음절경계 설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화순어에서는 '$CyV'와 같이 음절경계가 놓이는데 반해 ㉧용천어에서는 'C'의 종류에 따라 음절경계가 놓이는 유형이 두 가지(①$CyV, ②C$yV)이다. 이때 ①의 'C'는 장애음이고 ②의 'C'는 공명음이다.

㈑ 자음연쇄의 변화 : 현대 두 지역어에서 보이는 자음연쇄 제약이 비슷한 점을 보면 두 지역어가 자음연쇄에서 동일한 변화를 경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후행자음이 'ㅎ'일 때 두 지역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혀 별개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된 변화 정도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음에 있어서 '통합상의 변화'도 모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즉 자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설면음화, 어두 'ㄴ'의 변화)와 그렇지 못한 변화(모음간 자음의 변화, 자음연쇄의 변화)가 그것이다. 자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 즉 설면음화와 어두 'ㄴ'의 변화는 두 지역어에서 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난다. 즉 화순어와 달리 ㉧용천어에서는 'ㅅ, ㅈ'의 설면음화가 아직 진행중이라는 점과 'ㄷ, ㄴ'이 설단-치음으로 실현된다는 점 때문에 설면음화와 어두 'ㄴ'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자음체계와 관련이 비교적 적은 변화, 즉 모음간 자음의 변화와 자음연쇄의 변화는 분화 이전의 모체인 국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 바 크므로 변화에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면(모음간 'ㆁ'의 변화, 'C#yV'에서의 음절경계 변화, 'C#h'에서의 'ㅎ'탈락)에서 두 지역어

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필자는 본고에서 두 가지의 대조 연구, 즉 공시음운론적 대조 연구와 통시음운론적 대조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방언 연구는 독립된 방언의 체계 내적 구조를 밝히는 일, 그리고 방언간의 대조·비교에 의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일, 이 둘 중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고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은 한 편의 試攷라고 할 수 있는데 방법론상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더 나은 방법론이 나오리라 기대하며 또한 국어 방언 전반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확대되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姜信沆(1983), 齒音과 한글 表記, 國語學 12.

강진철 · 김성근 · 김수길(1996), 조선어 실험음성학 연구[199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한국문화사

姜昶錫(1984), 國語의 音節構造와 音韻現象, 國語學 13.

______(1985), 活用과 曲用의 形態論과 音韻論, 울산어문논집 2.

고광모(1992), 국어의 음운 변화 syV>sV에 대하여, 논문집(목포대) 13-2.

郭忠求(1980), 十八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硏究 43.

______(1982), 牙山地域語의 二重母音 變化와 二重母音化, 方言 7.

______(1985), 'ᄢᅦ-'(貫)의 通時的 變化와 方言分化, 國語學 14.

______(1994), 咸鏡北道 六鎭方言의 音韻論[1991,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太學社.

______(2001), 口蓋音化 規則의 發生과 그 擴散, 震檀學報 92.

김경아(1997), β>w에 대하여, 韓國文化 17.

______(2001), 국어의 변별적 자질체계 연구, 國語學 38.

金方漢(1964), 國語母音體系의 變動에 關한 考察, 東亞文化 2.

______(1977), 韓國語 語頭 h-의 起源 및 語頭子音群語와 傍點, 언어학 2.

김병제(1980), 방언사전,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______(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성규(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______(1996), '드틀'과 '듣글'의 공존,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金英培(1965), 有氣音化에 대하여, 東岳語文論集 3.

______(1969), 平安方言과 口蓋音化, 東岳語文論集 6.

______(1973), 平安方言의 '듣다'(問)에 대하여, 梁柱東博士古稀紀念論文集.

______(1977), 平安方言의 音韻體系硏究, 韓國學硏究叢書 第十一輯, 東國大學校 韓國學硏究所.

______(1979), 平安方言의 形態論的 考察, 省谷論叢 10.

______(1982), Ross 목사의 著作과 平安方言, 韓國方言學 2.

______(1983), Corean Primer의 音韻과 表記, 東岳語文論集 17.

______(1984), 평안방언연구, 동국대출판부.

______(1988), 'ㅈ · ㄷ'의 實驗音聲學的 한 考察, 論文集(東國大) 27.

______(1990), 平安方言의 長母音 小考, 東岳語文論集 25.
______ 編著(1992), 南北韓의 方言 硏究, 慶雲出版社.
______(1997), 평안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김영황(1982), 조선어방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한국문화사]
金完鎭(1957), 捷解新語에서의 日本語 轉寫에 對하여, 文理大學報(서울大) 5.
______(1963),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______(1964), 中世國語 二重母音의 音韻論的 解釋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篇) 4.
______(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篇) 10.
______(1972ㄱ), 다시 β>w를 찾아서, 어학연구 8.1.
______(1972ㄴ),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위하여, 東亞文化 11.
______(1973), 國語 語彙磨滅의 硏究, 震檀學報 35.
______(1974), 音韻變化와 音素의 分布, 震檀學報 38.
______(1975), 全羅道 方言 音韻論의 硏究 方向 設定을 위하여, 語學(전북대) 2.
______(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硏究 14-2.
金履浹(1981), 平北方言辭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김정우(1997), 조음자질과 음향자질, 國語學 29.
金種圭(1989), 中世國語 母音의 連結制約과 音韻現象, 國語硏究 90.
______(2003), 히아투스와 音節, 韓國文化 31.
김주원(1988), 母音調化와 舌縮, 언어학 9·10.
______(1992), 14세기 모음추이가설에 대한 검토, 언어학 14.
______(1996), 만주퉁구스제어의 전설모음의 변화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6.
金周弼(1985), 口蓋音化에 대한 通時論的 硏究, 國語硏究 68.
______(1988), 十五世紀 被動接尾辭의 異形態와 그 分化過程에 대하여, 冠岳語文硏究 13.
______(1994), 17·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______(2001), ㅸ의 [순음성] 관련 현상과 ɦ로의 약화, 國語學 38.
______(2003), 후기 중세국어의 音韻現象과 母音體系, 語文硏究(어문교육연구회) 117.
김진우(1971),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공모성, 어문연구(충남대) 7.
______(1972), Gravity in Korean Phonology, 어학연구(서울대) 9-2.
______(1976), 國語音韻論에 있어서의 母音音長의 機能, 語文硏究(충남대) 9.
김창섭(1997), ≪한국방언자료집≫에 따른 서남방언의 특징, 한국어문 4.

김형규(1974), 韓國方言硏究, 서울大出判部.
南廣祐(1984), 韓國語의 發音硏究(Ⅰ), 一潮閣.
도덩보(1976), 피양말.
리운규·심의섭·안운(1992), 조선어방언사전, 연변대학출판사.
박양규(1980), 서남방언 경어법의 한 문제, 방언 3.
朴正南(1982), 平北 定州地方의 方言硏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朴昌遠(1983), 固城地域語의 母音史에 대하여, 國語硏究 54.
______(1985), 국어 유성장애음의 재구와 변화, 국어국문학 93.
______(1987ㄱ), 固城地域語의 母音史에 대하여, 國語硏究 54.
______(1987ㄴ), 표면음성제약과 음운현상, 國語學 16.
______(1988), 15세기 국어의 이중모음, 경남어문논집 창간호.
方鍾鉉(1947), 獨島의 하루, 京城大學校 豫科 新聞 13. [방종현(1963)에 재수록]
______(1963), 一簑國語學論集, 民衆書館.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______(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______(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백두현(1988), "'ㆍ,오,으,우'의 대립관계와 원순모음화, 國語學 17.
______(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硏究, 太學社.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1995), 언어사, 북경: 민족출판사.
宣德五 · 趙習 · 金淳培(1991), 朝鮮語方言調查報告, 延邊人民出版社.
成百仁(1976), 滿洲語 音韻史硏究를 위하여, 언어학 1.
______(1978), 한국어와 만주어의 비교 연구(1), 언어학 3.
성희제(1997), [하치조성]과 구개음화의 과정, 語文硏究 29.
소강춘(1988),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소신애(2002), 연변 훈춘지역 조선어의 진행중인 음변화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宋 敏(1965), 韓日兩國語 音韻對應 試考, 文理大學報(서울大) 12-1.
______(1986), 前期近代國語音韻論 硏究, 塔出版社.
宋喆儀(1977), 派生語形成과 音韻現象, 國語硏究 38.
______(1982), 國語의 音節問題와 子音의 分布制約에 대하여, 冠岳語文硏究 7.
______(1987),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的 考察, 國語學 16.
______(1995), 국어의 활음화와 관련된 몇 문제, 단국어문논집(단국대) 1.
______(1996), 國語의 音韻現象과 辨別的 資質,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______(2000), 形態論과 音韻論, 國語學 35.
신지영(1998), 한국어 /ㄷ,ㄸ,ㅌ,ㅈ,ㅉ,ㅊ/의 조음적 특성에 관한 연구, 國語學 31.
安秉禧(1972), 壬辰亂 直前 國語史資料에 관한 二三問題에 대하여, 震檀學報 33.
______(1985), 別行錄節要諺解에 대하여, 건국어문학 9 · 10.
梁東輝(1967), 英語音聲學, 汎韓書籍株式會社.
오정란(1991), 모음강화 현상으로서의 원순 · 전설모음화, 國語學 21.
______(1999), 중세국어 설음과 치음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國語學 33.
오종갑(1983), ㅑ, ㅕ, ㅛ, ㅠ의 변천, 한국학논집(계명대) 10.
______(1998), 'ㅔ, ㅐ'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왕한석(1997), 언어생활,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유영대 · 이기갑 · 이종주(1998), 호남의 언어와 문화, 백산서당.
유재원(1988), 현대 국어의 악센트 규칙에 대한 연구, 성곡논총 19.
劉昌惇(1964ㄱ),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 出版部.
______(1964ㄴ), 李朝國語史硏究, 宣明文化社.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광호(1977), i母音化의 音韻論的 解釋, 語文學 36.
李克魯(1947), 音聲學, 雅文閣.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______ · 고광모 · 기세관 · 정제문 · 송하진(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李基文(1955), 語頭 子音群의 生成과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
______(1959), 十六世紀國語의 硏究, 塔出版社.
______(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______(1965), 國語音韻史硏究, 서울大 韓國文化硏究所.
______(1968), 鷄林類事의 再檢討, 東亞文化 8.
______(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______(1972), 國語音韻史硏究, 塔出版社.
______(1973), 十八世紀의 滿洲語 方言 資料, 震檀學報 36.
______(1984), 金履浹 編著 平安方言辭典, 方言 7.
李敦柱(1978), 全南方言, 螢雪出版社.
李秉根(1967ㄱ), 國語의 倒置現象 小攷,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篇) 6.

______(1967ㄴ), 中部方言의 語幹形態素 小攷, 文理大學報(서울大) 13-1 · 2.
______(1969), 黃凋地域語의 音韻, 論文集(서울大 敎養課程部) 1.
______(1970ㄱ), 19世紀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篇) 9.
______(1970ㄴ),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脣母音化, 東亞文化 9.
______(1971ㄱ), 雲奉地域語의 움라우트現象, 金亨奎博士 頌壽紀念論叢, 一潮閣.
______(1971ㄴ), 現代韓國方言의 母音體系에 대하여, 어학연구 7-2.
______(1973), 東海岸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震檀學報 36.
______(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 3.
______(1976ㄱ), 19世紀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化, 국어국문학 72 · 73.
______(1976ㄴ), '새갱이'(土蝦)의 通時音韻論, 語學(전북대) 3.
______(1976ㄷ), 派生語形成과 i逆行同化規則들, 震檀學報 42.
______(1977), 子音同化의 制約과 方向,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______(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______(1986), 發話에 있어서의 音長, 國語學 15.
______(1998), '마름(菱仁)'의 어휘사,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______(2000), '노올(霞)'의 어휘사, 冠岳語文硏究 25.
______(2001), 方言과 方言學, 方言學 事典, 태학사.
______(2003), '올가미'의 語彙史, 國語學 41.
______ · 정인호(1999), 중국조선어방언조사,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_ · ______(2003), 中國 沈陽 朝鮮語의 特徵,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_ · 崔明玉(1997), 國語音韻論,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李崇寧(1935), Umlaut 現象을 通하야 본 모음 '·'의 音價攷, 新興 8.
______(1939), 朝鮮語異化作用에 對하여, 震檀學報 11. [李崇寧(1988ㄱ)에 재수록]
______(1940), '·'音攷, 震檀學報 12. [李崇寧(1988ㄱ)에 재수록]
______(1947), 國語의 Hiatus와 子音發達에 對하여, 진단학보 15. [李崇寧(1988ㄱ)에 재수록]
______(1949), '애, 에, 외'의 音價變異論, 한글 106. [李崇寧(1988ㄱ)에 재수록]
______(1954ㄱ), 15世紀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ction的 發達에 대하여, 東方學志 1. [李崇寧(1988ㄱ)에 재수록]

______(1954ㄴ), 脣音攷, 서울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1. [李崇寧(1988ㄴ)에 재수록]
______(1956), ㅿ音攷, 서울大論文集 3. [李崇寧(1988ㄴ)에 재수록]
______(1957), 語幹變形說의 提起, 서울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______(1959), "·"音攷再論, 學術院論文集 1. [李崇寧(1988ㄴ)에 재수록]
______(1960ㄱ), 中期語의 異化作用의 考察, 學術院論文集 2. [李崇寧(1988ㄴ)에 재수록]
______(1960ㄴ), 15世紀의 '어'의 音價에 對하여, 한글 126. [李崇寧(1988ㄷ)에 재수록]
______(196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______(1967), 韓國方言史, 韓國文化史大系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李崇寧(1988ㄷ)에 재수록]
______(1977), /·/音의 消失期 推定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篇) 16. [李崇寧(1988ㄷ)에 재수록]
______(1988ㄱ), 李崇寧國語學選集(音韻篇Ⅰ), 民音社.
______(1988ㄴ), 李崇寧國語學選集(音韻篇Ⅱ), 民音社.
______(1988ㄷ), 李崇寧國語學選集(音韻篇Ⅲ), 民音社.
李丞宰(1977), 南部方言의 圓脣母音化와 母音體系, 冠岳語文研究 2.
______(1980),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 國語研究 45.
______(1983), 再構와 方言分化, 國語學 12.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이진호(2002ㄱ), 화석화된 활용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0.
______(2002ㄴ),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문화사.
李賢熙(1982ㄱ), 국어의 語中·語末 'ㄱ'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신논문집 4.
______(1982ㄴ), 중세국어 '둗겁-'의 형태론, 震檀學報 63.
李熙昇(1955), 國語學概說, 民衆書館.
전광현(1970), '勸念要錄'에 대하여, 駱山語文 2.
______(1971), 18世紀 後期 國語의 一考察, 語文集(전북대) 13.
______(1976), 南原地域語의 語末-U型 語彙에 대한 通時音韻論的 考察, 國語學 4.
______(1977), 全北 益山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語學(전북대) 4.
전길성(1939ㄱ), 시골말(价川), 한글 7-4.
______(1939ㄴ), 시골말(价川), 한글 7-5,
田相範(1985), 英語音聲學, 乙酉文化社.
전학석(1993),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1991, 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 박사논문],

태학사.
鄭承喆(1995),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 太學社.
______(1995), 제주도 방언의 파생접미사, 대동문화연구 30.
정연찬(1997), 개정 한국어음운론, 한국문화사.
鄭寅承(1937), 'i'의 逆行同化 問題, 그 原理와 處理方案, 한글 5-1.
______(1938), 母音相對法則과 子音加勢法則, 한글 6-9.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34.
______(1997), ㅂ-불규칙 용언 어간의 변화에 대하여, 애산학보 20.
______(2003), 평북방언에서의 'ㅈ, ㅅ'의 음변화, 韓國文化 31.
중국조선어실태보고조사 집필조(1985), 조선어방언조사보고, 연변인민출판사.
蔡玉子(2002), 中國 延邊地域 韓國語의 音韻體系와 音韻現象,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최금용(1939), 시골말(義州), 한글 7-7.
崔明玉(1978ㄱ), 東南方言의 세 音素, 國語學 7.
______(1978ㄴ), ㅸ, ㅿ와 東南方言, 語學硏究 14-1.
______(1980), 慶北 東海岸 方言 硏究, 嶺南大出判部.
______(1982), 越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出判部.
______(1985ㄱ), 존 로스의 *Corean Primer* 「한국어초보」와 평북 의주 지역어, 素堂千時權博士 回甲紀念 國語學論叢, 螢雪出版社.
______(1985ㄴ), 서북방언의 문서술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 19세기 후기 평북 의주지역어를 중심으로, 방언 8.
______(1986),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音韻體系, 國語學新硏究(若泉金敏洙敎授回甲紀念), 塔出版社.
______(1987), 平北 義州地域語의 通時音韻論, 語學硏究 23-1.
______(1988), 國語 UMLAUT의 硏究史的 檢討, 震檀學報 65.
______(1989), 國語 움라우트의 硏究史的 考察, 周時經學報 3.
______(1990), 方言,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東亞出版社.
______(1997),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의 대조연구, 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______(1998), 진양지역어와 김해지역어의 대조연구,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______(2003), 중국연변지역의 한국어 연구, 韓國文化 25.
______ · 곽충구 · 배주채 · 전학석(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崔世和(1965), 處格 /-에/攷, 東岳語文論集 3.
______(1979), 韓國語 摩擦音 · 破擦音의 調音 特質, 국어국문학 78.
崔林植(1984),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母音體系,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______(1994), 國語方言의 音韻史的 硏究, 文昌社.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______(1987), 二重母音 '외', '위'의 단모음화 과정과 母音體系의 변화, 語學(전북대) 14.
최태영(1978), 전주방언의 Umlaut 현상, 語學(전북대) 5.
______(1983), 방언음운론, 형설출판사.
최현배(1955), 우리말본(깁고 고침), 정음사.
편집부(1961), 평안북도 용천지방(표준말과 사투리), 말과글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방언자료집V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성우(2003), 의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韓榮均(1980), 完州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 冠岳語文硏究 5.
______(1985), 國語 音韻史에 대한 地理言語學的 硏究, 國語硏究 55.
한영순(1956ㄱ), 평안북도 의주 · 피현 지방 방언의 어음론적 특성(상), 평양: 조선어문 4.
______(1956ㄴ), 평안북도 의주 · 피현 지방 방언의 어음론적 특성(하), 평양: 조선어문 5.
許　雄(1964), 齒音攷, 國語國文學 27.
______(1965), 국어음운학(改稿新版), 정음사.
______(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______(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현우종(1988), 제주도 방언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耽羅文化(제주대) 7.
홍윤표(1985), 口蓋音化에 대한 歷史的 硏究. 震檀學報 60.
황대화(1998), 조선어 동서방언 비교연구, 한국문화사. [199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梅田博之(1983), 韓國語의 音聲學的 硏究, 螢雪出版社.
宣德五·趙習·金淳培(1990), 朝鮮語方言調査報告, 延邊人民出版社.
小倉進平(1923), 國語及朝鮮語 發音概說, 近澤印刷所出版部.
________(1929), 平安南北道の方言,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硏究調査冊子 第1輯. [小倉進平 (1944)에 재수록]
________(1944), 朝鮮語方言の硏究(下), 東京: 岩波書店.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籍.

Catford, J.C.(1988), *A Practical Introduction to Phonetics*, Oxford: Clarendon Press.

Chambes, J.K. & P. Trudgill(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rles, A.(1901), 법한즈뎐(*Petit Dictionair Francais-Coréen*), Seoul Press.

Chomsky, N. & M. Halle(1968),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Low.

Jespersen, O.(1926), *Lehrbuch der Phonetik*, Verlag von B.G. Teubner in Leipzig und Berlin.

Kenstowicz, M.(1994),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Blackwell.

Kim, Jong-Kyoo(2000), "Quantity-Sensitivity and Feature-Sensitivity of Vowel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 University, Bloomington.

Kiparsky, P.(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Foris.

Ladefoged, P.(1971), *Preliminaries to Linguistic Phone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ss, R.(1984), *Phonology*, Cambridge Univ. Press.

Lee, Ki-Moon(1964), "Mongolian Loan-words in Middle Korean", *Ural-Altaische Jahrbücher* 35.

MacIntyre, J.(1880-1882), "Note on the Corean Language", *The China Riview* Vol.Ⅷ-Ⅸ.

Pike. K.(1947), *Phonemic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Ramstedt, G.J.(1928),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58.[歷代韓國文法大系(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1979, 塔出版社) ②16에 재수록]

________(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sen Seura.[歷代韓國文法大系(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1979, 塔出版社) ②18에 재수록]

Ross, J.(1877), *Corean Prime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歷代韓國文法大系(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1979, 塔出版社) ②02에 재수록]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Mouton.

________(1954), "Is a Structural Dialectology Possible?", *Word* 10.

<ABSTRACT>

A contrastive Phonology of the two Korean Dialects spoken at original North-Western and South-Western Area

Jeong, Inho

This study presents two kinds of phonological contrast between Yongcheon dialect and Hwasun dialect. One is a synchronic contrast of phonological systems and phonotactics at the two current dialects and the other is a diachronic contrast of phonological changes.

Two dialects have a small difference on vowel inventory and system. But two dialects have the same consonant inventory and system except for opposition of 'laminals'. Both dialects have two semivowels and 'length' as a prosodeme.

Phonotactic constraints are divided into syllable structure constraints and syllable combination constraints. And syllable structure constraints also divided into syllable composition constraints and phoneme sequence constraints. Syllable composition constraints a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two dialects have a relatively large difference in phoneme sequence constraints, that is, 'semivowel-vowel' sequence, 'frontal-*y*' sequence, 'dorsal-*ɯ*' sequence, '*n-i*' sequence, etc. Two dialects, in syllable combination constraints, have similar ones except for intervocalic consonant *ŋ* and 'obstruent-*h*' sequence.

The earliest common vowel system and consonant system which composed through synchronic contrast of two current dialects and internal evidences are as follows. From these systems, two dialects have undergone 'paradigmatic changes'.

			p	t	k	
			p^h	t^h	k^h	
i	ɯ	u	p′	t′	k′	
				s		h
	ə			s′		h′
			β	z	*γ*	
	ʌ	ɔ		ʦ		
				$ʦ^h$		
	a			ʦ′		
			m	n	ŋ	
				l		

<vowels>

ⓐ the same 'paradigmatic changes'

① *ʌ* has been dephonologized.

② *ai, əi,* and *ɔi* have been phonologized.

ⓑ different 'paradigmatic changes'

① *œ* has been dephonologized in Yongcheon dialect and *ɯi* has been phonologized in Hwasun dialect.

② *o* and *œ* have been rephonologized in Hwasun dialect.

③ *e* has been dephonologized.

<consonants>

ⓐ the same 'paradigmatic changes'

① voiced fricatives have been dephonologized.

② *h′* has been dephonologized.

③ *s* and *ʦ* have been rephonologized(dorsalization).

ⓑ different 'paradigmatic changes'

① *t* and *n* have been rephonologized.

The 'syntagnatic changes' of vowels in phonotactic are divided into changes (changes of Hiatus) which are relatively irrelevant to phonological systems and changes(changes of rounded and unrounded vowel, '*ɯ>i*' frontalization, umlaut, changes of *y*-rising diphthongs, changes into high vowel, etc.) which are closely relevant to phonological systems. Two dialects have a relatively large difference in the latter. Difference in changes of rounded and unrounded vowel, umlaut,

changes of *y*-rising diphthongs, and changes into high vowel has resulted from front-rounded vowels. And difference in '*ɯ>i*' frontalization has resulted from difference of the time and degree in '*s, ʦ*'-dorsalization.

The 'syntagnatic changes' of consonants in phonotactic are also divided into changes(changes intervocalic consonants, changes consonant sequence, etc.) which are relatively irrelevant to phonological systems and changes(dorsalization, changes of word-initial *n*, etc.) which are closely relevant to pnonological systems. Two dialects have a small difference in the former(change of intervocalic *ŋ*, change of syllable-boundary at 'C#yV', *h*-deletion at 'C#h', etc.) and relatively large difference in the latter.

Key Words : north-western dialect, south-western dialect, paradigmatic change, syntagmatic change, phonological system, phonotactic

Student Number : 95101-813